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黃 瑄 喜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歐陽修의 古文運動 研究

2009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文 明 熙

# 歐陽修的 古文運動 研究

黃 瑛 喜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5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文 明 熙

# 認 准 書

文明熙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 論 文 概 要

본 논문은 北宋의 문학가이자 정치가인 歐陽修의 古文運動에 대한 연구이다.

北宋의 문학가이자 정치가인 歐陽修(1007년-1072년)는 散文과 詩, 詞등 다방면에서 많은 문학 작품을 남기고 있으며 北宋의 문학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때문에 이미 다방면에서 歐陽修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문학사에서 歐陽修의 가장 큰 공헌은 歐陽修가 주도하고 완성한 古文運動이라고 할 수 있다. 歐陽修의 古文運動은 北宋 초기부터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나 그 완성은 歐陽修에서 이루어졌다. 古文運動의 성공은 散文이라는 문학의 영역 이외에 정치와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본 논문은 歐陽修의 古文運動을 문체 복고의 문학운동으로 한정하지 않고 정치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문화운동으로 확대 발전하였다는 설정 하에 歐陽修의 古文運動을 여러 각도로 살펴보았다.

먼저 古文運動이라는 용어의 유래에 대해 살펴보면서 文學運動이라는 개념이 없던 宋代에 이미 현대적 의미의 文學運動의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古文運動의 배경에 대해 사회, 문학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古文運動의 전개는 발전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빠르게 대처하고 문학적인 면에서도 시대에 맞는 문학 형식을 추구하려는 지식인들의 經世致用의 자세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歐陽修 이전의 古文家들의 古文運動에 대한 공헌과 실패 원인을 분석해보고 歐陽修의 古文運動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北宋 초기 古文家들은 尊韓의 기치 아래 古文運動을 전개하여 古文運動의 유학적 성질을 확립하고 駢儷文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문학의 예술성을 간과하고 실용적인 면에만 치우쳐 뛰어난 작품을 써내지 못하여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없었으며 정치적 입지마저 좁아서 古

文運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었다. 歐陽修는 이러한 前人들의 실패 원인을 간파하고 스스로 문학관을 확립한 후 그에 맞는 뛰어난 작품 활동으로 모범적 古文을 제시함으로써 古文運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또한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십분 이용하여 과거제도를 변화시킴으로 문풍의 변화를 유도하였고 뛰어난 후학들을 양성하고 추천함으로써 古文運動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古文運動을 완성하였다. 다음으로 古文運動을 전개한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古文運動은 문체 복고의 목적 이외에도 정치개혁과 문풍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유교 윤리 강화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 또한 駢儷文보다 쉬운 형식과 제재를 바탕으로 하여 서민문화와의 교류를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古文運動과 사회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古文運動은 官職의 진입로인 과거 제도를 변형시킴으로 문풍의 변화를 유도하여 문인들의 문학적 기호를 변화시켰으며 古文의 儒學적 성질을 강조하여 儒學이 부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古文運動의 성공으로 인해 儒學적 사상이 고취되어 新儒學이 부흥할 수 있었으며 종교인 불교로 하여금 儒學과의 융합을 시도하게 하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古文運動이 문학의 영역 이외에 정치, 사회와 사상, 종교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古文運動이 文學運動을 넘어선 文化運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目 次

論文概要

|                                |    |
|--------------------------------|----|
| I. 序論 .....                    | 1  |
| 1. 연구동기 .....                  | 1  |
| 2. 연구현황과 방법 .....              | 2  |
| II. 古文運動이라는 용어와 古文運動의 성격 ..... | 8  |
| III. 古文運動의 배경 .....            | 13 |
| 1. 사회적 배경 .....                | 13 |
| 1) 토지제도와 조세제도의 변화 .....        | 14 |
| 2) 인구의 증가와 농업의 장려 .....        | 16 |
| 3) 상품경제의 발전과 도시의 형성 .....      | 18 |
| 4) 과거의 개방과 독서인 층의 확대 .....     | 20 |
| 3. 문학적 배경 .....                | 23 |
| 1) 駢儷文과 西崑體의 유행 .....          | 23 |
| 2) 太學體의 발생 .....               | 26 |
| 3) 散文의 정치 효용성 증가 .....         | 29 |
| IV. 歐陽修 古文運動의 전개 .....         | 32 |
| 1. 歐陽修 이전의 北宋古文運動家 .....       | 32 |
| 1) 柳開 (947년-1000년) .....       | 32 |
| 2) 王禹偁 (954년-1001년) .....      | 35 |
| 3) 穆修 (979년-1032년) .....       | 38 |

|                                    |            |
|------------------------------------|------------|
| 4) 石介 (1005년-1045년) .....          | 40         |
| 2. 歐陽修의 古文運動 전개 .....              | 41         |
| 1) 문학이론의 확립 .....                  | 42         |
| ① 현실 중시적 文道觀 제시 - 事信言文과 窮而後功 ..... | 42         |
| ② 새로운 창작론 확립- 簡而有法과 平易自然 .....     | 57         |
| 2) 문체의 혁신과 실천 .....                | 66         |
| 3) 문학 집단의 형성과 후진 양성 .....          | 71         |
| 4) 과거제도 개혁을 통한 古文 제창 .....         | 76         |
| <b>V. 歐陽修의 古文運動과 新文化 추구 .....</b>  | <b>79</b>  |
| 1. 문체 개혁을 통한 정치·사회의 혁신 추구 .....    | 79         |
| 2. 雄建하고 건설적인 文風 건립 .....           | 89         |
| 3. 儒學 중심의 사회질서 정립 .....            | 93         |
| 4. 서민계급과의 소통 추구 .....              | 96         |
| <b>VI. 歐陽修 古文運動의 사회적 영향 .....</b>  | <b>100</b> |
| 1. 과거제도에 대한 영향 .....               | 100        |
| 2. 新儒學에 대한 영향 .....                | 103        |
| 3. 佛敎에 대한 영향 .....                 | 106        |
| <b>VII. 결론 .....</b>               | <b>112</b> |

참 고 문 헌

ABSTRACT

# I. 서론

## 1. 연구동기

唐代 安史의 亂 이후의 혼란과 五代十國의 혼란을 거치면서 태어난 宋나라는 무엇보다 唐末, 五代시기에 크게 파괴된 도덕과 정치, 사회질서를 재건해야만 했다. 北宋은 이 방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고 후대의 왕조들도 北宋 때 건립된 文官治國의 원칙과 유학 숭상의 방침, 그리고 고도의 중앙 집권적 전체정치를 줄곧 계승하였다.<sup>1)</sup> 北宋이 정치와 사회의 혼란을 마무리하고 안정을 찾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歐陽修의 공은 적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北宋 中期의 사람인 歐陽修(1007년-1072년)는 뛰어난 政治家이며 文學家로 字는 永叔, 號는 醉翁 또는 六一居士이다. 歐陽修는 政治家이며 文學家인 동시에 史學과 經學 등에도 조예가 깊어서 많은 업적과 저서를 남겼기 때문에 北宋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연구할 때 항상 거론되는 인물이며 文學에서도 詩, 詞, 散文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작품을 많이 남겼다.

문학사상 歐陽修의 가장 큰 업적을 들자면 北宋의 古文運動을 들 수 있다. 古文運動은 그 당시 유행하던 駢儷文인 西崑體와 古文의 변체인 太學體에 반대하여 古文을 사용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古文運動을 일차적으로 살펴보면 문체의 복고지만 古文運動 안에 담긴 의미와 그 영향이 문학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北宋의 古文運動은 歐陽修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歐陽修 이전의 古文家들이 古文運動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古文은 그 당시까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西崑體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처럼 초기 古文家들

---

1) 金諍 著(김효민 옮김), 『중국과거문화사』, 동아시아, 2003년, p151 참조.

의 古文運動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한 이유는 北宋 초기 古文家들의 古文이 重道에 치우친 나머지 문학의 예술적인 면을 간과한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唐 이후에 형식주의와 유미주의 문학이 극에 달하면서 문학의 예술적인 면에 심취하여 이미 문학적 심미안이 높아진 사람들에게 초기 古文家들의 작품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歐陽修는 초기 古文家들이 하지 못한 문학의 예술성을 충족시키면서 유미주의와 형식주의 문풍을 일소하고 北宋의 古文運動을 완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歐陽修의 古文運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古文運動이 文學運動을 넘어서 北宋의 사회와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봄으로써 歐陽修의 古文運動의 의의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 2. 연구현황과 방법

지금까지 국내에 발표된 歐陽修의 산문에 관한 학위논문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sup>

| 논문제목                | 저자  | 학교                   | 발표<br>년도 |
|---------------------|-----|----------------------|----------|
| 「歸田錄」校釋             | 강민경 | 연세대학교 대학원<br>석사학위논문  | 2007     |
| 歐陽修의 생애와 작품연구       | 한지희 | 성균관대 교육대학원<br>석사학위논문 | 2007     |
| 歐陽修 序跋文 연구          | 고도욱 | 전북대 교육대학원<br>석사학위논문  | 2004     |
| 歐陽修 「居士集」의 散文 文體 연구 | 이승신 | 고려대학교 대학원<br>박사학위논문  | 2003     |
| 歐陽修 記類 散文 연구        | 박형수 | 전남대학교 대학원<br>석사학위논문  | 2000     |
| 歐陽修 辭賦 연구           | 유재운 | 전남대학교 대학원<br>박사학위논문  | 1996     |

|                |     |                        |      |
|----------------|-----|------------------------|------|
| 歐陽修 散文의 분석적 연구 | 노장시 | 영남대학교 대학원<br>박사학위논문    | 1995 |
| 歐陽修 古文연구       | 박경숙 | 국민대학교 대학원<br>석사학위논문    | 1994 |
| 歐陽修 抒情散文 연구    | 황일권 | 계명대학교 대학원<br>석사학위논문    | 1992 |
| 歐陽修 散文연구       | 곽노봉 | 한국의국어대학교<br>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91 |
| 歐陽修 記文연구       | 김난영 | 영남대학교 대학원<br>석사학위논문    | 1989 |
| 歐文의 修辭 연구      | 곽노봉 | 한국의국어대학교<br>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83 |
| 歐陽修 연구         | 장수열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br>석사학위논문   | 1982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연구는 歐陽修 散文의 문학적인 면에 집중되어 있다. 歐陽修의 古文運動에 관한 연구도 위의 논문들 속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었으며 문학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연구되어 온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古文運動과 宋代의 사회, 문화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歐陽修의 산문에 대해 국내에서 발표된 소논문의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3)

| 논문제목                             | 저자  | 발행기관         | 발표<br>년도 |
|----------------------------------|-----|--------------|----------|
| 歐陽修 문장에서 보여지는 정치적 성격 검토          | 이승신 | 중국어학 논총 제21집 | 2008     |
| 「論尹師魯墓誌銘」을 통해 본 歐陽修의 碑誌文의 창작이론   | 노장시 | 중국어문학 Vol.47 | 2006     |
| 韓愈의 ‘不平則鳴’說과 歐陽修의 ‘窮而後工’說에 관한 再論 | 노장시 | 中國文學, Vol.47 | 2006     |

2) 2009년 4월 국회도서관 자료 기준.

3) 국회도서관자료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9년 4월 자료 기준.

|   |     |                      |      |
|---|-----|----------------------|------|
| 司馬遷과 歐陽修의 문장의 異同<br>-傳記文學을 중심으로                                     | 이승신 | 中國語文學誌,<br>제17집      | 2005 |
| 歐陽修의 韓愈 수용 연구   | 고광민 | 중국어문학논집<br>Vol.30    | 2005 |
| 歐陽修 散文에 나타난 현실의식  | 박경실 | 중국어문논역총간<br>Vol.14   | 2005 |
| 歐陽修의 政論散文 연구-‘時弊改革’에<br>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 노장시 | 中國學報, Vol.49         | 2004 |
| 歐陽修의 「與民同樂」에 대한 소고<br>- 「醉翁亭記」, 「豐樂亭記」를<br>중심으로                     | 노장시 | 중국어문학, Vol.43        | 2004 |
| 韓愈·歐陽修 兩人的 排佛論 소고<br>: 「原道論」 「佛骨表」와 「本論」을<br>중심으로                   | 노장시 | 중어중문학Vol.34          | 2004 |
| 「六一詩話」에 나타난 歐陽修의 문학관  | 노장시 | 中國學報, Vol.48 No      | 2003 |
| 歐陽修 祭文 小考   | 이승신 | 중국어문논역총간<br>Vol.7    | 2001 |
| 歐陽修 문장에 반영된 시대특징<br>: 「豐樂亭記」 「醉翁亭記」와 「採桑子」<br>에 공유하고 있는 치세 특징을 중심으로 | 홍병혜 | 중국산문논총 Vol.2         | 2001 |
| 歐陽修 記文의 표현기교 연구   | 노장시 | 서라벌대학논문집,<br>Vol.18  | 2000 |
| 歐陽修文章初探   | 이승신 | 中國語文學誌 Vol.8<br>No.1 | 2000 |
| 試論歐陽修散文的藝術特色  | 이승신 | 중국산문논총 Vol.1         | 2000 |
| 歐陽修 序文 初探   | 이승신 | 중국어문논총 Vol.19        | 2000 |
| 韓愈의 ‘不平則鳴’說과 歐陽修의<br>‘窮而後工’說에 대한 小考                                 | 노장시 | 서라벌대학논문집,<br>Vol.15  | 1999 |

|  |     |                       |      |
|--|-----|-----------------------|------|
| 「六一詩話」小考                                       | 노장시 | 慶州專門大學<br>論文集, Vol.12 | 1997 |
| 歐陽修의 古文 創作論                                    | 노장시 | 慶州專門大學<br>論文集, Vol.10 | 1996 |
| 歐陽修의 文學理論;<br>文 · 道 關係를 중심으로                   | 노장시 | 慶州專門大學<br>論文集, Vol.9  | 1995 |
| 歐陽修의 記 試探                                      | 오수형 | 中國文學, Vol.21<br>No.1  | 1993 |
| 歐陽修의 記 考察                                      | 유재윤 | 호남학연구, Vol.-          | 1993 |
| 貶謫시기의 歐陽修散文                                    | 곽노봉 | 中國學報, Vol.31<br>No.1  | 1991 |
| 歐陽修 碑誌文 분석을 통해 본<br>‘簡而有法’                     | 김용표 | 中國學研究, Vol.5<br>No.1  | 1990 |
| 歐陽修의 ‘窮而後工’에 관한 연구                             | 곽노봉 | 中國研究, Vol.12          | 1990 |
| 歐陽修 산문의 연원 및 문론                                | 장수열 | 학술연구논문, Vol.8         | 1990 |
| 柳宗元 「永州八記」와<br>歐陽修 「醉翁亭記」의 創作心境 및<br>主題 · 風格比較 | 김용표 | 중국어문논집, Vol.4         | 1988 |
| 歐陽修의 文論과 그 實踐                                  | 유종목 | 人文藝術論叢, Vol.5         | 1987 |
| 歐陽修 散文研究                                       | 곽노봉 | 中國學研究, Vol.3<br>No.1  | 1986 |
| 北宋詩文革新運動과 歐陽修                                  | 이영주 | 中國文學, Vol.12          | 1984 |
| 宋代古文運動의 理論과 批評                                 | 차상원 | 論文集, Vol.13           | 1967 |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보면 소논문의 연구도 2000년 이전에는 주로 歐陽修 散文 작품을 중심으로 한 문학이론이나 문체, 수사, 풍격 등 문학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연구되고 있었다면 2000년 이후에야 비로소 歐陽修의 산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들 중 古文運動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서술한 것은 1984년 중국문학에 발표된 李永朱의 「北宋詩文革新運動과 歐陽修」이다. 이 논문에서는 古文運動의 시대 적 배경과 전개방향, 歐陽修의 문학 이론 등을 서술하였지만 그 외의 더 많은 부분은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歐陽修의 古文運動은 문체의 복고를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문화운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中國과 臺灣에서는 이미 古文運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古文運動의 여러 가지 배경과 과정, 결과 등을 다루어 문학과 문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何寄澎의 『北宋古文運動』을 들 수 있다. 이 책의 서문을 쓴 柯慶明은 ‘古文運動은 그 중요성과 영향이 크다는 데 있어서 문학의 혁명일 뿐 아니라 글 쓰는 언어의 혁명이요, 더 나아가서는 일종의 문화의 혁명이라는 것’이라고 하였는데<sup>4)</sup> 이것은 문학이 문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한 말이라 할 수 있다.

歐陽修의 古文運動은 당시 北宋 士大夫의 문풍을 바꿈으로써 관료사회에 진입하는 관문인 과거에 영향을 미침으로 詩賦에 밀려있던 散文의 위치를 끌어 올렸고 이후에 宋學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古文運動의 이면에는 진보적 사상으로 무장한 신진사대부들과 구 귀족 관료간의 정치 개혁을 위한 투쟁이 있었으며, 儒學의 道를 바탕으로 사회 질서를 확립하여 왕조를 유지하려는 뜻이 있었고, 경제의 발전과 함께 거대해진 서민계층과의 소통을 시도하고자 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문학운동이 문학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문화운동으로 확대되어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歐陽修의 古文運動을 연구함으로써 문학운동과 문화와의 연관성과 의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첫 번째 장에서는 古文運動이라는 용어와 성격에 대해 고찰해

---

4) “古文運動與白話文學運動所以重要, 所以影響廣大, 因爲它們都不僅是文學的革命, 也是書寫語言的革命, 更是一種文化的革命.” 何寄澎, 『北宋古文運動』, 幼獅文化事業公司, 1992년, p2 참조.

보고 두 번째 장에서는 歐陽修가 古文運動을 주도했을 당시의 상황을 사회적 배경과 문학적 배경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 장에서는 歐陽修 이전의 초기 古文家들의 공헌을 알아보고 歐陽修가 古文運動을 전개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北宋의 古文運動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歐陽修가 어떻게 古文運動을 완성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네 번째 장에서는 이러한 변혁의 시기에 古文運動을 전개하게 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사회와 연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歐陽修의 古文運動과 宋代 관료사회의 진입로였던 과거제도, 그리고 宋代에 발흥하여 정신적 기틀이 되었던 新儒學과 종교인 佛敎의 관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古文運動과 문화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앞에서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文學史에서 歐陽修 古文運動이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고 문학운동과 문화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 II. 古文運動이라는 용어와 성격

古文運動에서 ‘運動’이라는 용어는 五四運動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단지 문학현상에 대해서는 ‘上官體’, ‘西崑體’, ‘江西詩派’, ‘桐城派’ 등의 ‘體’나 ‘派’를 사용하였다. 1918년판 謝無量的 『中國大文學史』에서는 唐代의 古文運動에 대해 ‘韓柳古文派’라고 칭하였다.<sup>5)</sup>

古文運動에서 ‘運動’이라는 말은 五四運動 이후 현대적 의미에서 새로운 의미로 부여된 것이다. 古文運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羅聯添의 「論唐代古文運動」을 참고해 보면 아래와 같다.

“古文運動이라는 명칭은 清代 이전에는 일찍이 없었다. 소위 운동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느 한 단체가 계획한 모종의 활동, 예를 들면 문학이나 구호 선전 등을 말한다. 唐代 古文가들은 古文에 대해 어떠한 다른 제창 따위는 없었으며 소수의 사람들만이 여기에 부합하였기에 실제로는 어떠한 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 古文運動은 근대의 사람들이 당시의 사조의 영향으로 만들어낸 말인 것이다.

중국문학사상에서 운동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1928년 출판된 胡適의 『白話文學史』이다. 그 예로 그는 天寶 이전의 시인들을 말할 때 ‘단지 그 신운동에서의 몇 명의 이름 없는 영웅이 될 수 있었을 뿐이다’라고 하였는데 白居易와 元稹 모두 의식적으로 문학혁신운동을 한 사람들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예는 매우 많은데 하나하나 다 거론할 수는 없다. 3년 후 1931년에 胡雲翼의 『中國文學史』 제12장의 표제는 ‘唐代의 문학운동’이었는데 ‘古文運動은 韓愈와 柳宗元의 노력으로 최고의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썼다. 1932년 鄭振鐸의 『中國文學史』 제28장에서는 ‘古文運動’을 제목으로 하여 唐代 古文運動의 발전과 성취에 대해 토론하였고 그 후에 古文運動이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sup>6)</sup>

---

5) 李淑芳, 「古文運動의 社會背景」, 湖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3년, p4참조.

위의 예를 보면 胡適이 직접적으로 古文運動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다. 그러나 蔡世明의 「韓·歐古文摭論」에서 胡適이 古文運動이라는 말을 직접 인용하였다고 하며 그 증거를 제시하였는데 아래와 같다.

“나는 (백화문학사) 상권을 唐末五代에서 끝맺으려 하였으나 오백페이지를 쓴 지금 어쩔 수 없이 唐代를 두 편으로 나누어 상편엔 韻文에 편중하여 쓰고 하편에선 古文運動을 시작으로 散文의 변화에 치중해 쓰려 한다. (『백화문학사』自序 10p )

韓愈는 古文을 제창하고, 六朝이래의 형식적이고 화려하기만 한 문체에 반대하였다. 이 古文運動은 하편에서 장을 바꾸어 쓰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한다.”  
(『백화문학사』 354p)<sup>7)</sup>

이 두 가지 예로 胡適이 古文運動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韓愈와 歐陽修의 문체의 복고가 古文運動이라고 칭해진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 예로 일본의 학자인 東英壽(Higashi Hidetoshi)는 그의 논문 「歐陽修的科擧改革與古文復興」에서 古文

- 
- 6) “至‘古文運動’名稱，清代以前不曾有。所謂運動，必有一個團體作有計劃的種種活動，如文字、口頭宣傳等。唐代古文家對古文只是個別倡導而已，頂多有若干人響應附和，實在不成爲什麼運動。‘古文運動’是近代人受時風潮流的影響而產生的名詞。中國文學史上，最先用‘運動’這個名詞的是民國十七年出版的胡適『白話文學史』。例如他稱天寶以前詩人：“只能做那個新運動里的幾個個無名英雄而已”，認爲“白居易與元稹都是有意作文學革新運動的人”。類此甚多，不一一舉。三年後，到民國二十年(1931) 胡雲翼『中國文學史』第十一章標題是‘唐代的文學運動’，稱“古文運動有韓柳二氏的努力而達於最高的發展”。到民國二十一年(1932)鄭振鐸『中國文學史』第二十八章以‘古文運動’爲題，討論唐代‘古文運動’的發展與成就，此後‘古文運動’成爲一個普遍使用的名稱。”，蔡世明的「韓·歐文摭論」，劉文源編，『廬陵文章耀千古』，白花洲文藝出版社，1999年， p183 재 인용.
- 7) “我本想把上卷寫到唐末五代才結束的，現在已寫了五百頁，沒有法子，只好把唐代一代分作兩篇，上篇偏重韻文，下篇從古文運動說起，側重散文方面的演變。(『白話文學史·自序』 p10. 按：此序寫於民國十七年六月五日)”，“韓愈提倡古文，反對六朝以來的駢儷浮華的文體。這一個古文運動，下篇另有專章，我在此且不討論。” (『白話文學史』， p354.) 蔡世明, 상계서, pp183-184에서 재 인용.

運動이라는 용어는 唐代나 宋代 당시에 없었던 용어로 宋代에 古文이 부흥하였다는 사실을 古文運動이라는 용어로 대충 포장해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古文運動에 대해 좀더 많은 고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古文運動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sup>8)</sup> 그러나 현대인이 생각하는 문학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唐·宋의 古文改革이 문학운동으로 불릴만한 조건에는 어긋나지만 古文的 영향이 후대에 매우 크게 미치기 때문에 문학운동의 효과에 이르러 古文運動이라는 용어로 韓愈와 歐陽修의 문체개혁을 이야기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보았다.<sup>9)</sup> 이러한 견해는 중국문학사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古文運動은 이와 달리 사회 전반의 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영향 또한 크기에 古文運動이라고 칭해지는 것이다.<sup>10)</sup>

그럼 羅聯添이 제시한 현대적인 문학운동의 개념 즉 ‘어느 한 단체가 계획한 모종의 활동, 예를 들면 문학이나 구호 선전 등을 말한다.’는 관점에서 歐陽修의 古文운동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인이 말하는 文學運動에 타당한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歐陽修는 문체개혁이 혼자서는 어렵다는 것을 고찰하고 다수의 문인들과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후배들을 양성하는 데 공력을 들여 후진을 양성하였고 방법상 젊은이들에게 서신을 통해 駢儷文과 古文을 쓴 心得과 文과 道의 관계, 문장을 쓰는 방법, 비평하는 기준, 문장 구성의 得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도하였다.<sup>11)</sup>

또한 「記舊本韓文後」에서 歐陽修는

“진사에 급제하여 낙양에서 벼슬을 살게 되었고, 尹師魯의 사람들과 모두 함께 서로 古文을 짓게 되었다.”<sup>12)</sup>

8) 東英壽, 「歐陽修的科舉改革與復興」, 『復古與創新』, 上海古籍出版社, 2005년, pp110-111 참조.

9) 劉文源編, 『廬陵文章耀千古』, 蔡世明의 「韓·歐古文摭論」 p184 참조.

10) 李淑芳, 『古文運動的社會背景』, 湖南師範大學校碩士學位論文, 2003년, p4 참조.

11) 이승신, 『歐陽修「居士集」의 散文 문체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3년, p32 참조.

12) “舉進士及第, 官於洛陽, 而尹師魯之徒皆在, 遂相與作爲古文.”, 歐陽修, 「記舊本韓文後」, 『歐陽修全集』 卷七十三, 中華書局, 2001년, p1056.

라고 하였는데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함께 창작활동을 했다는 데에서 현대적인 문학단체와의 근접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학을 양성하고 방법적으로 서신을 통하여 구체적인 古文지도를 한 것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현대적 문학운동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歐陽修의 서간문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구절이 있다.

“선생의 뜻을 찾으니 어찌 세상의 병폐와 속됨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옛날의 밝은 道를 공부하여 옛날의 道를 다시 오늘날에 취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화려하고 번잡한 지금의 문단을 힘써 없애고 다시 바르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후에 선생의 좋은 학문을 알고 더하니 그 뜻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三皇太古의 道를 서술함에 가까이 있는 것을 버리고 멀리 있는 것을 취하여, 언사를 꾸미는 것에만 힘쓰고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소홀히 하시니, 이것이 작은 과오라 하겠습니다.”<sup>13)</sup>

“선생의 문장은 호방하고도 기세가 세차서 가히 좋은 글이라고 할 만하며, 또한 道를 구하는 것에 뜻을 세우셨는데도 오히려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십니다. 만일 이처럼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孟子와 荀子の 경지에 이르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sup>14)</sup>

이처럼 사람들에게 서신으로 문장의 과오를 지적하고 가르침을 준 것은 문학 활동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唐·宋 당시에 직접적으로 古文運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그 방법이나 영향 면에서 현대적 의미의 문학운동의 성

---

13) “尋足下之意，豈非閔世病俗，究古明道，欲援今以復之古，而翦剝齊整凡今之紛駁冗者歟？然後益知足下之好學，甚有志者也。然而述三皇太古之道，捨近取遠，務高言而鮮事實，此少過也。”，歐陽修，「與張秀才第二書」，『歐陽修全集』卷六十七，p978.

14) “先輩之文浩乎霏然，可謂善矣，而又志於爲道，猶自以爲未廣。若不止焉，孟、荀可至而不難也。”，「答吳克秀才書」，『歐陽修全集』卷四十七，p664.

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古文運動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Ⅲ 古文運動의 배경

문학은 스스로 발전과 쇠퇴를 반복하며 변화해 나간다. 그래서 어떠한 문학의 형태가 극에 이르면 점점 쇠하여지고 다른 문학의 형태가 다시 태동하여 극을 이루고 다시 쇠하여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문학의 내용과 형식도 변화해간다. 특히 사회의 구조나 전제정치 하에서의 지배자의 요구는 작가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문학의 흐름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sup>15)</sup>

宋代는 前代의 왕조들보다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고, 발전했으며 이전보다 완비되고 강화된 중앙집권제를 이룬 시기였다. 또한 통치자의 문관우대정책으로 문학이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 시기이며 상호간의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때문에 古文運動이 문학의 영역에서만 머무를 수 없었으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歐陽修의 古文運動이 일어난 北宋 초기부터 중기까지의 사회적 배경과 문학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 1. 사회적 배경

宋代에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사회와 경제가 새로운 변화와 발달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宋代에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고 唐末과 五代를 거쳐 宋代에 들어온 것이지만 그것을 발달시키고 정착시킨 것은 宋代라고 할 수 있다. 宋代에는 비약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이전과 다른 토지 정책, 조세정책을 실시했고,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경제의 발전에 따라 사회구조에도 변화가 왔는데 이러한 변화들이 宋代 古文運動

---

15) 楊慶存, 『宋代散文研究』, 人民文學出版社, 2002년, p68 참조.

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를 네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한다.

## 1) 토지제도와 조세제도의 변화

宋代의 토지제도가 唐代와 다른 점은 바로 均田制의 붕괴에 있다. 均田制는 北魏 孝文帝 太和9년 (485년)에 처음 실시된 제도이며 唐代에는 府兵制와 함께 실시되었는데, 토지를 국민에게 공평히 분배하고, 그 토지를 지급받은 백성에게 병역과 부역을 부과하였으며, 본인이 사망하면 국가에 토지를 반환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토지국유화였기 때문에 토지의 사유화나 겸병, 매매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安史의 亂 이후에 均田制는 점점 무너져갔고, 권문세족에게 나눠주는 토지가 늘어나면서 국유지가 줄어들었으며, 부호들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겸병하면서 집 없는 백성들이 늘어나는 폐단이 생겨 唐 德宗 때에 이르러 완전히 폐지되었다. 均田制가 무너진 이후 조세법이 府兵制 대신 兩稅法으로 바뀌었는데, 兩稅法은 토지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이전에는 평민만 납세를 하였지만 兩稅法은 客戶 및 상인 등 전답 소유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납부하였다. 兩稅法은 唐代보다 宋代에 더 발전하여 토지의 매매가 성행하였고 토지의 겸병이 늘어났다. 均田制의 붕괴와 兩稅法은 토지소유제의 발전과 함께 상품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게 되었다.<sup>16)</sup> 특히 세금을 전부 돈(錢)으로 납부하는 조세의 錢納化는 화폐의 발달을 가져와서 宋代에는 이미 동전에 의한 통화제도의 통일을 이루었으며, 지폐의 발행, 유가증권의 보급이 실시되었는데 화폐의 원활한 유통 역시 상품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토지소유제의 발전과 함께 농업기술도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五代의 梁 나라가 江南과의 교통에 유리한 黃河와 運河와의 교차점인 開封에 수도를 정

---

16) 李淑芳, 「古文運動의 社會背景」, 湖南師範大學校碩士學位論文, 2003년, pp5-7 참조.

한 후, 開封은 北宋代까지 수도가 되었는데, 이런 이유로 중심이 강남지역으로 옮겨지면서 水田農業이 발달하였다. 또한 인구가 증가하여 강남 지역 개발이 촉진되었다. 인구의 증가와 농업기술의 발달은 생산의 증대를 가져왔으며, 쓰고 남은 잉여생산물은 상품이 되어 매매를 함으로써 상품경제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고, 토지는 이윤이 남는 투자대상이 되어 토지소유제의 발달을 더욱 부추겼다. 국가에서도 토지소유제는 稅收의 안정된 확보라는 측면에서 유리하였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였다. 17)

그러나 이러한 토지 소유제의 이면에는 지주들의 토지 겸병으로 땅을 잃은 流民들이 늘어났으며 지주들의 착취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층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과중한 세금과 부역으로 농토를 버리고 도망가는 농민들도 있었다. 歐陽修는 「原弊」에서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였다.

“옛날 사람들은 식구 수를 세어서 밭을 받았기에 집집이 넉넉하고 사람들이 풍족하였다. 정전제가 이미 무너진 후 겸병이 이에 일어나니, 지금은 대부분 한 호의 밭이 백경으로, 객호 수십을 만들어낸다. 그중 주인의 소로 자신의 일을 하거나 자신의 소로 주인 밭의 일을 하여 이득을 나누는 자는 십여 호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세를 내고 임시로 거하는 사람들로 떠돌이 객호라고 하는데 새로 개간한 땅을 경작한다. 이러한 수십 집은 본래 풍족하거나 저축을 하는 집이 아닌데 봄가을 제사나 혼인, 장사 등의 준비와 또 불행히 흉년을 만나거나 관청의 일을 하게 되어 궁핍한 때를 당하면 주인에게 빚을 내고 후에 그것을 갚는데 이자는 두 배 아니면 세 배이다. 수확기에 종자와 세금을 빼고 남은 것을 나누는데 세 배의 이자를 내거나면 소득한 것이 다하거나 혹은 부족할 수도 있다. 탈곡한 일이 아침에 끝나도 저녁이면 먹을 것이 궁핍하니 또 그것을 빌려야 한다. 때문에 봄가을에 식량을 빌리고 여름에 보리로 그것을 갚기를 바라지만 보리마저 갚는데 다 써 버린다. 여름과 가을에는 겨울에 쌀로 갚기를 바라게 된다. 이러한 수십의 집은 항상 먹는 데 세 배가 들고 한 집은 항상 백경의 이익을 모두 취한다.

---

17)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소, 『講座中國史 3』, 지식산업사, 1989년, pp128-136 참조.

…… 관청에 일이 많을 때에는 노역이 많고 적을 때에는 노역이 적으니, 그 노역을 이기지 못하면 그 밭을 싸게 팔아버리고 도망을 가거나 떠나버린다.”<sup>18)</sup>

이러한 현실은 歐陽修처럼 새로 정치에 입문한 신진사대부들이 더 잘 느낄 수 있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과거를 통하여 관직에 등용된 庶族출신으로 그 출신이 한미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으며 ‘經世致用’의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에 개혁을 위해 구 관료들과의 정치적 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古文運動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문학적 도구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 2) 인구의 증가와 농업의 장려

토지소유제의 발전과 더불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중요한 요인은 인구의 증가를 들 수 있다. 唐末에서 北宋대의 인구는 750년과 1100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하였다. 742년엔 2세기와 동일한 수치인 5천만 명이였지만 300여 년 동안 중앙 및 남부에서 벼 재배가 확장되면서 식량공급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인구 역시 증가하여 1100년에는 1억 명에 이르렀다.<sup>19)</sup>

인구의 증가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황무지를 개간하고 水利田을 개발하여 경작지를 늘리게 되었으며, 적극적으로 농업을 장려하여 농업기술의 발달을 가져왔다. 특히 조정에서도 농업을 적극적으로 장려

---

18) “古者計口而受田，家給而人足。井田既壞，而兼併乃興。今大率一戶之田及百頃者，養客數十家。其間用主牛而已力者，用己牛而事主田以分利者，不過十餘戶；其餘皆出產租而僑居者曰浮客，而有畚田。夫此數十家者，素非富而蓄積之家也，其春秋社婚死葬之具，又不幸遇凶荒與公家之事，當其乏時，嘗舉債於主人，而後償之，息不兩倍則三倍。及其成也，出種與稅而後分之，償三倍之息，盡其所得，或不能足。其場攻朝畢而暮乏食，則又舉之。故冬春舉食則指麥於夏而償；麥償盡矣，夏秋則指禾於冬而償也。似此數十家者，常食三倍之物，而一戶常盡取百頃之利也……而公役之多者爲大役，少者爲小役，至不勝，則賤賣其田或逃而去。” 「原弊」，『歐陽修全集』卷六十，p871.

19) 패트리샤버클리에브리,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공사, 2001년, pp155-156 참조.

하였으며, 仁宗 慶曆4년(1044년)에는 지방관의 功課法이 정해져서 水利, 種藝, 農田, 戶口등 농정상황에 관하여 관리가 의거해야만 하는 지침이 하달되었는데 이것은 국가가 농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歐陽修 역시 농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原弊」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孟子는 살아있을 때 잘 봉양하고 죽어서는 장사를 잘 지내는 것이 왕도의 근본이라고 하였으며 管仲은 창고가 가득 차면 예절을 안다고 하였으니, 곧 농사를 짓는 사람은 천하의 근본이며 왕도정치가 여기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옛날의 위정자들은 일찍이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관리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세금장부나 뒤적이고 송사나 재판하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농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곧 서로 비웃고 천하다 말 합니다. 무릇 세금이나 비용을 거둬들이는 것은 급한 것으로 알지만 농사에 힘써야 하는 것은 모르고 있으니 정치의 근본과 끝을 모르는 것이며 농사에 힘써야 하는 것은 알아도 비용을 절약하여 농민을 아껴야 함은 모르니 이것은 농사에 힘쓰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sup>20)</sup>

또한 「通進司上書」에서는 아래와 같이 농업을 장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수도인 개봉에서 서쪽에 이르기까지 주인 없는 토지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토지가 황폐하여 버린 것이 아니라, 농사에 전념하지 못하고 부역이 너무 무거워서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농사짓지 않은 땅은 그 수가 농사짓는 땅의 배나 됩니다. 만일 지금 부지런히 농사짓도록 독려하고 그 부역을 면해준다면 농사를 지으려는

---

20) “孟子曰：養生送死，王道之本。管子曰：倉廩實而知禮節。故農者，天下之本也，而王政所由起也，古之爲國者未嘗敢忽。而今之爲吏者不然，簿書聽斷而已矣，聞有道農之事，則相與笑之曰鄙。夫知賦斂移用之爲急，不知務農爲先者，是未原爲政之本末也。知務農而不知節用以愛農，是未盡務農之方也。”，歐陽修，「原弊」，『歐陽修全集』卷六十 p869.

자가 많아질 것입니다.”<sup>21)</sup>

황무지 개발과 적극적인 농업의 장려, 농업 기술의 발달로 농산물의 생산이 늘어나게 되었고, 소비하고 남는 잉여농산물이 생겨났으며 이러한 잉여농산물들은 도시로 이동하여 상품이 되었다. 물론 상품만으로 경제가 발전할 수는 없다. 그것을 소비할 소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宋代에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宋代 인구의 대부분은 농민이었지만 그 외에도 100만 명이 넘는 有給상비군 및 그 가족, 2-4만 여명의 상급관리, 다수의 하급관리, 그 외의 商工인구, 부호, 지주 및 승려, 서비스업종사자 등 방대한 규모의 순수한 소비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22)</sup> 이러한 소비 집단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조달할 경로를 필요로 하였으며 그 필요성은 상품경제 발달의 또 다른 원동력이 되었고 거대한 도시가 형성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 3) 상품경제의 발전과 도시의 형성

唐 중기 이전의 경제 형태는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생산력이 곧 경제력이었다. 그러나 唐 중기 이후 특히 宋代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변하였다. 농업기술의 발달 및 황무지 개발, 인구의 증가로 생산이 증가하여 잉여농산물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잉여농산물은 상품이 되어 판매가 가능하였으며 조정에서도 상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상당히 용인하는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또 농산품 및 여러 산업의 상품생산을 일정 한도에서 허용하였으며, 조정에서도 세금을 돈(錢)으로 받아 대량으로 소비하는 官物을 시장에서 구매하였기 때문에 상품경제의 발전에 자극이 된 것도 무시할 수 없다.<sup>23)</sup>

21) “自京以西土之不闢者，不知其數，非土之瘠而棄也，蓋人不勤農，與夫役重而逃爾。久廢之地，其利數倍於營田，今若督之使勤，與免其役，則願耕者衆矣。”，歐陽修，「通進司上書」，『歐陽修全集』卷四十五，p641.

22)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소, 상계서, pp130 참조.

농민들의 이주의 자유 역시 상품경제에 도움이 되었다. 前代에는 농민들이 토지에 예속되어 납세를 하여야 했으므로 이주의 자유가 없었지만 宋代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제약은 상당히 느슨해졌다. 토지소유제 이후 토지 겸병으로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농사지을 땅이 없어 떠도는 客戶들도 늘어났다. 이러한 客戶들은 이주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로 흘러들어 小商人이나 수공업자로 변신하였고,<sup>24)</sup> 이들은 상인, 혹은 수공업자로 성공하여 중소 지주계급으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宋代에는 수공업 역시 발전하였는데 광업, 조선, 도자기, 제지, 인쇄술 등이 모두 前代에 비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견직은 주로 官의 주도하에 생산되었지만 소규모 가족단위 생산도 드물지 않았다. 도자기도 작업장 단위로 번창하였고 책, 문서, 화폐, 포장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종이 생산업자들도 번창하였고 중공업 부분에서는 철 생산이 눈부시게 증가하였다.<sup>25)</sup> 이러한 수공업의 발달은 상업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게 되었다.

또 한 가지 주지할 것은 상인들의 지위가 향상된 것을 들 수 있다. 宋代에는 이전에 천대받던 중소 상공업자들이 호적에 등록되었으며 과거에도 응시가 가능하여 그 지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sup>26)</sup> 宋 仁宗은 茶商의 딸을 황후로 맞아들이기도 했다.<sup>27)</sup>

이처럼 농업, 상업, 수공업의 발달은 도시의 성장을 촉진하였다. 宋代의 도시는 市制와 坊制<sup>28)</sup>가 붕괴하여 거주민들의 출입이 자유로워졌으며 도시 내외의 편리한 장소나 큰길가 등에 자유로이 상점이나 수공업 작업장을 개설할 수 있

23)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실, 상계서, pp167-172 참조.

24) 李淑芳, 상계서, pp9-10 참조.

25) 페트리샤버클리예브리, 상계서, pp158 참조.

26) 寥瀛艇, 『宋代文化史』, 河南大學出版社, 1992년 pp7-8 참조.

27)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실, 상계서, p171 참조.

寥瀛艇, 상계서, p13 참조.

28) 市制는 도시 내에 官設의 상업구역인 市를 설치하여 그 내부에서만 상업을 허용하여 국가가 통제하는 제도이며 坊制는 도시 내부를 가로에 의하여 구획하여 도시민을 폐쇄적인 坊에 의해 규제하는 제도임.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실, 상계서, pp179 참조.

었다. 또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드는 객호의 증가로 도시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수도인 개봉은 시장을 24시간 개방하였다.<sup>29)</sup>

경제의 발전과 함께 형성된 도시에서의 삶은 농촌과는 다른 양상을 띠었다. 도시의 시민들은 농민들과는 다르게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전 시대는 제한된 생산력에 부과되는 조세의 부담으로 민간계층이 상부의 권위와 압박에 시달려야 했지만, 宋代에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다른 계층과의 제휴관계, 혹은 의존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각 요소가 각각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유지되는 사회였다.<sup>30)</sup> 때문에 민간계층은 이전처럼 단순히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계층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지배계급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 4) 과거의 개방과 독서인 층의 확대

宋代에 독서인 층이 확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科擧의 개방<sup>31)</sup>에서 찾을 수 있다. 宋代의 신분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신분간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웠다는 것인데 科擧를 통해서 얼마든지 신분상승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唐代까지 유지되던 문벌귀족의 신분 및 경제력의 세습이 宋代에는 불가능

---

29) 패트리샤버클리에브리, 상계서, pp159 참조.

30) 서경호, 『중국문학의 발생과 그 변화의 궤적』, 문학과 지성사, 2003, pp442-443 참조.

31) 唐代의 과거제도 역시 이론적으로는 가문과 재산을 막론하고 모두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사실상 通榜(사회의 명사나 문단의 거두, 귀족관료의 추천이나 칭찬 등으로 擧자의 재덕과 명망을 조사하여 선발에 참고하는 제도)으로 인재를 선발하였기 때문에 권세가의 자제들에게 매우 유리하였으며 합격자 정원이 적고 귀족자제들이 합격자 정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과거의 문이 넓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宋代에 들어서서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彌封(糊名이라고도 하며 수험생의 이름과 관직, 가문 등의 기록을 가려 붙여 사사로이 급제시키는 것을 막음)과 騰錄(수험생의 답안지를 전달자가 옮겨 쓴 후 심사관이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수험생의 필적을 알아보고 사사로이 급제시키는 폐해를 막고자 실시함) 및 鎖院(知貢擧가 조령을 받으면 시험장으로 가서 문을 걸어 나오지 않아 청탁을 받는 것을 피하는 방법)제도 등의 실시로 과거가 비교적 공정하게 실시되어 많은 사람들이 가문에 상관없이 등용될 수 있었다. 金諍 著, 상계서, pp 116-158참조, 寥瀛艇, 상계서, pp 110-111 참조.

하였다. 宋代에도 門蔭이라는 제도를 통해 관직에 등용될 수는 있었지만 하급 관리직에 불과하였고 높은 관직에 오르려면 과거를 통해야만 했기 때문에 門蔭의 혜택을 버리고 과거를 보는 이들도 많았다.<sup>32)</sup> 또한 宋代의 科擧는 그 문이 여러 계층에게 열려 있어서, 귀족 출신 뿐 아니라 한미한 庶族이나, 자경농, 상공업자들에게도 열려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과거를 통해서 신분상승을 꿈꿀 수 있었다.<sup>33)</sup>

독서인 층이 확대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원인은 교육시설의 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 宋代에는 중앙의 官學으로 國子學, 太學, 四門學, 律學, 武學, 醫學 등의 6개의 교육기관이 있었고 지방에도 地方州縣學를 설립하였다. 또한 官學 이외에도 私學과 書院이 발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조정에서도 학문을 적극 권장하였는데 宋 眞宗은 「勸學文」에서 “집을 부유하게 함에 있어 좋은 밭을 살 필요가 없나니, 책 가운데 자연히 천종의 곡식이 있으며, 안거에 고당을 가설할 필요가 없나니, 책 가운데 자연 황금옥이 있도다.”<sup>34)</sup> 라고 하였다. 歐陽修도 「吉州學記」에서 “아아! 학교는 왕도정치의 근본으로 옛사람의 다스림의 성쇠를 그 학문의 흥하고 폐함에서 본다.”<sup>35)</sup>라고 하였다. 이처럼 적극적인 勸學풍조는 독서인 층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宋代에 발달한 인쇄술도 독서인 층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인쇄술의 발달로 이전보다 서책이 풍부해졌으며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할 수가 있었다. 통치계급에서도 적극적으로 서적을 발간하고 수집하였으며, 宋代의 官學인 ‘國子監’은 교육기관이었을 뿐 아니라 서적의 발행도 담당하였다. 서책이 풍부해지면서 개인의 장서풍조가 유행하였는데 歐陽修도 「六一居士傳」에서 ‘吾

32) 이근명, 『중국역사·하권』, 신서원, 2002, pp101-102

33) 寥瀛艇, 상계서, p9 참조.

34) “富家不用買良田, 書中自有千種粟, 安居不用架高堂, 書中自有黃金屋,” 노태준, 『古文珍寶』, 홍신문화사, 1982, pp20-21.

35) “嗚呼盛矣, 學校王政之本也, 古者政治之盛衰, 視其學之興廢.”, 歐陽修, 「吉州學記」, 『歐陽修全集』 卷三十九, p572.

家藏書一萬卷’이라고 하였다. 또한 인쇄술이 발달하여 대량의 서적을 찍어내기 쉬웠으며 官에서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책을 인쇄하여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었으므로 독서인 층이 확대될 수 있었다.

독서인 층이 확대되면서 사대부의 구성원 역시 다양화 되었는데 사대부관료들도 상업행위에 수시로 참여하기도 하였고 과거에 실패한 가난한 사대부들은 생업을 위해 농업은 물론 상공업에 뛰어들기도 하였으며 봉급이 적은 하급관료들이 관직을 버리고 상공업을 하기도 하는 예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sup>36)</sup> 이처럼 경제구조가 복잡해지고 경제력이 중요해짐과 동시에 계층간의 벽이 느슨해지면서 문인들도 사회의 여러 방면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歐陽修의 道에 대한 새로운 제시라고 할 수 있다. 歐陽修는 「答吳克秀才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상의 학자들은 종종 이 문제에 탐닉하곤 하여 우연히도 한 부분에서 고매함을 얻으면 곧 말하기를 : ‘나의 학문은 만족할 만하다!’하며, 심한 사람은 심지어 (문사 이외의) 모든 일들(百事)에 일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 ‘나는 문인이니 글을 짓는 것이 나의 일일 뿐이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기 때문에 도를 구하지만 도에 이르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sup>37)</sup>

이와 같이 歐陽修는 道를 百事라고 하여 세상일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여 ‘經世致用’적인 사상을 나타냈다. 때문에 학문에만 치중하는 것으로는 道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宋代의 관리나 학자들은 다방면의 지식이 풍부하였는데 歐陽修 역시 문학 이외에도 經學, 史學, 金石學 등에도 조예가 깊었고 경제방면에서도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제시하였다.<sup>38)</sup>

36) 양종국, 『宋代士大夫社會研究』, 삼지원, 1996년, pp126-132.

37) “世之學者往往溺之, 一有工焉, 則曰; “吾學足矣!” 甚者至棄百事不關於心, 曰: “吾文士也, 職於文而已”. 此其所以至之鮮也.”, 歐陽修, 「答吳克秀才書」, 『歐陽修全集』卷四十七. p664.

38) 歐陽修는 「通進司上書」를 통하여 通漕運, 盡地利, 勸商賈라는 경제정책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漕運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경제가 발달하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신 관료들은 복잡한 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치할 방법을 찾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 관료들은 이러한 상황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前代의 전통과 제도를 답습하려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유미주의 문학의 추구에서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형식에만 치중하였으며 그 제재 또한 궁중생활에 대한 것이 주로 많아 서민들의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진사대부 출신인 신 관료들은 출신 배경 상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느낄 수 있었고 변화에 대처할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經世致用’의 사상으로 무장한 이들은 문학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古文運動을 추진함으로써 말 빠르게 변화된 사회에 대응하고자 했던 것이다.

## 2. 문학적 배경

宋代 초기에는 唐末 五代에 유행하던 유미주의와 형식주의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宋代는 경제와 사회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유미주의 보다는 실용주의가 사람들에게 더 필요하였기에 유미주의의 대표적인 문풍이라고 할 수 있는 駢儷文이 古文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문학적 배경에서는 宋初에 성행하였던 駢儷文인 西崑體와, 韓愈의 古文을 추구하여 한때 유행하였던 太學體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古文운동을 펼칠 당시의 문단상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 1) 駢儷文과 西崑體의 유행

---

으로 상품의 유통을 편리하게 할 것과 토지자원을 개발하여 농업생산을 발전시킬 것, 상업을 장려하여 재정수입을 늘이고 국가와 상인이 공동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劉德清, 『歐陽修論稿』,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1년, pp116-121.

宋初에 유행했던 문체인 西崑體는 駢儷文으로 글을 쓰는 것이다. 때문에 먼저 駢儷文의 특징을 알아보려고 한다. 駢儷文이라는 명칭은 唐代 柳宗元의 「乞巧文」에서 ‘駢四驪六, 錦心繡口’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기원은 秦·漢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魏·晉시대에 형성되어 六朝시대에 흥성하였다.<sup>39)</sup>

駢儷文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글자수로 4자와 6자를 활용하여 사용하였기에 四六文이라고도 한다. 魏·晉 시대에는 글자 수에 엄격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점점 틀이 갖추어지면서 齊·梁 시대에 四六文의 격식이 완전히 형성되어 唐·宋이후에 정형화 되었다. 두 번째는 對偶이다. 駢儷文의 駢은 말이 나란히 달리는 것을 뜻하며 儷는 두 사람이 같이 짝을 이루는 것으로 서로 상대되는 것을 나타낸다. 對偶는 비유적 설법과 평행이 되는 두 구를 서로 짝지어 전체 문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句와 句의 구성이 서로 對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對偶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기교가 나타나서 규칙이 더욱 엄격해졌기에 내용은 점점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었다. 세 번째는 平仄으로 平仄의 조화는 四六의 對偶와 관계가 있다. 平과 仄이 대우를 이루는 것은 문장의 리듬과 운율의 조화를 꾀하는 것으로 문장에 음악성을 가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수식과 典故사용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말로 문장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며 典故의 사용은 역사적 사실과 고인의 작품 속에서 인용하는 것이다.<sup>40)</sup>

駢儷文은 한자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린 문장으로, 문학에 음악성까지 가미하여 중국문학의 예술적 기교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중하여 문사수식에만 전념하고, 알 수 없는 전고를 사용하기도 하며, 심하게는 문자유희로 변질되기도 하였다.

古文運動이 일어날 무렵 문단의 중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西崑體라고 불린

39) 錢冬父, 『唐宋古文運動』, 上海古籍出版社, 1991년, pp1-2 참조.

40) 殷茂一, 「駢儷文의 特性과 興衰」, 『원광한문학·Vol 2』, 원광한문학회, 1985년, pp373-391 참조.

駢儷文이었다. 西崑體의 ‘西崑’은 ‘西方崑崙山’에서 온 말로 그 곳은 옥황상제가 서책을 비치하여 둔 곳이라고 한다. 宋太宗은 崇文院 안에 秘閣을 짓고 서적을 비치하였는데 楊億은 당시 책을 다루는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宋朝의 秘閣을 西崑에 비유하여 자신들의 문집을 『西崑酬唱集』이라고 명명하였다.<sup>41)</sup> 『西崑酬唱集』에 글을 남긴 사람들 중 대표적인 사람들은 眞宗 때에 한림학사를 지낸 楊億, 劉筠, 錢惟演인데 이들은 唐末·五代를 거쳐 宋代로 유입된 귀족출신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며 생활이 부유하였기에 글쓰기는 일종의 취미생활이자 자신의 詩作 능력을 보여주는 수단일 뿐이었다. 西崑體는 앞에서 설명한 駢儷文으로 글을 쓰는 것으로 晚唐의 李商隱을 모방하여 성물과 대우의 형식을 엄격하게 지키고 문사수식과 전고에만 힘을 써, 내용에 진실성이 없고 자신들의 궁정생활과 관련지어 北宋 왕조의 태평성대를 장식하고 미화한 작품들을 주로 썼다. 이러한 작품 경향은 초기 宋王朝가 적극적으로 펴던 崇文정책과도 관련이 있는데 당시의 宋王朝는 관료들이 글로써 宋의 太平聖代 를 찬양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이었다.<sup>42)</sup> 또한 과거에서 詩賦로 관료를 선발함으로써 詩를 散文보다 우위에 두었기 때문에 駢儷文인 西崑體가 더욱 유행하게 되었다. 때문에 歐陽修 역시 時文이라고 불리던 西崑體를 공부하였으며 「記舊本韓文後」에서 당시의 그러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당시에 세상의 학문을 하는 자는 楊億과 劉筠의 글을 공부하였는데 그것을 時文이라고 하였다. 時文을 잘 하는 사람은 과거에 급제하여 명성을 떨치고, 세상의 칭찬을 받았고 韓愈의 문장을 공부한다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나 또한 진사과거에 뜻을 두어 예부에서 규정한 시부를 공부하였다.”<sup>43)</sup>

41) 송용준, 「북송 초기 서곤체 시 연구」, 『중국어문학·Vol 26, No 1』, 영남중국어문학회, 1995년 p52 참조.

42) 楊慶存, 『宋代散文研究』, 人民文學出版社, 2002. p111 참조.

43) “是時天下學者楊、劉之作, 號爲時文, 能者取科第, 擅名聲, 以誇榮當世, 未嘗有道韓文者. 予亦方舉進士, 以禮部詩賦爲事.”, 歐陽修, 「記舊本韓文後」, 『歐陽修全集』卷七十三, p1056.

이처럼 당시에는 西崑體를 잘해야만 명성을 얻고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 만큼 西崑體의 駢儷文이 유행하였으며 古文은 西崑體에 밀려 있었다.

그러나 ‘經世致用’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신진사대부들은 형식에 치중하여 문사의 조탁에만 힘쓰는 西崑體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蘇軾은 「答謝民師書」에서 ‘만일 바로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sup>44)</sup>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古文을 추구하는 신진사대부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時文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진보적인 학자들은 당시 仁宗의 부엄한 글을 금지하는 詔書에 힘입어<sup>45)</sup> 古文運動을 서서히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歐陽修는 과거에 급제한 후에는 時文을 다시는 짓지 않았다<sup>46)</sup>고 할 정도로 西崑體를 배척하였으며 慶曆新政을 추진할 때에도 강력하게 문체의 개혁을 주장하여 과거에 반영하였고 이후 西崑體의 駢儷文은 그 세력이 서서히 몰락하였다. 그러나 西崑體의 쇠퇴 이후 괴벽한 古文을 추구하던 일부 古文家들에 의하여 太學體가 유행하게 되었다.

## 2) 太學體의 발생

西崑體의 문풍이 잦아들 무렵 太學을 중심으로 太學體가 유행하였다. 太學體는 당시 太學에서 直講하던 孫復, 石介, 胡瑗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들은 西崑體를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古文을 장려하였다. 특히 石介는 道統의 계승자

---

44) “若正言之, 則人人知之矣.”, 錢冬父, 상계서, p82에서 재인용.

45) “朕試天下之士, 以言觀其趣向. 而比來流風之弊, 至於薈萃小說, 磔裂前言, 競爲浮誇靡曼之文, 無益治道, 非所以望於諸生也. 禮部其中飭學者, 務明先聖之道, 以稱朕意焉.”(짐이 천하의 선비들을 시험할 때는 글로써 그 취향을 살핀다. 유행하는 글의 폐단이 계속되어 사소한 말이나 모음에 전대의 훌륭한 말들이 파괴됨에 이르고, 허황되고 아름다운 문사만을 다투어 경쟁하니 정치에 이로움이 없어, 여러 유생들에게 바라는 바가 아니다. 예부는 이로써 학생들을 훈계하여 성현들의 도를 밝히는데 힘쓰도록 하는 것이 짐의 뜻이니라.) 『續資治通鑒長編』 卷一一三.

46) “少爲進士時不免作之, 自及第, 遂棄不復作.”, 歐陽修, 「答陝西安撫使范龍圖辭辟命書」, 『歐陽修全集』, 卷四十七, p662.

를 자처하며 古文의 괴이함을 추구하였고, 孫復은 ‘迂闊矯激之士’로 실제로 정사에 어두웠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복고를 주장하였다.<sup>47)</sup> 이들은 太學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石介의 제자들이 太學體로 과거에 급제하면서 명성을 날리자 크게 유행하였다. 이들을 太學派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특징은 새로운 이론을 세우길 좋아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이론을 주고받으며 기이하고 난잡한 문장을 추구하였으며 내용도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sup>48)</sup> 이러한 특징들은 그 당시 실용주의를 선호하는 분위기와도 맞지 않았으며 西崑體가 가지고 있는 폐단이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형식주의의 변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폐단 때문에 慶曆6년에 知貢舉인 張方平이 太學體를 배척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으나 太學體의 문풍은 사라지지 않았다. 張方平은 「貢院請誠勵天下舉人文章奏」에서 太學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 賦는 팔백 자 이상이며 모든 글귀마다 십육 자에서 십팔 자이며, 論은 천이백 자 이상이다. 策의 주제에 대하여 망령되게 가슴 속의 감정을 풀어놓거나 결가지로 다른 일에 대하여 늘어놓는다.”<sup>49)</sup>

이처럼 太學體는 쓸데없이 말을 어렵게 하고 字數를 늘이며 허황된 논리를 펴기도 하였다. 歐陽修가 石介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러한 것을 비판하였다.

“아! 어찌 괴이함이 이리 심하신가요! 이것을 가지고 다른 이에게 물어보니 대답하길, ‘불가능하다고 하였는가?(是不能乎書者邪?)’는 ‘불가능하지 않다.(非不能也)’이며, ‘합당하다고 하였는가?(書之法當爾邪?)’는 ‘아니다.(非也)’라고 하였습니다. ‘옛말에 그러한 것이 있었는가?(古有之乎?)’는 ‘없다.(無)’이

47) 葛曉音, 『唐宋散文』, 上海古籍出版社, 1992년, p88참조.

48) 樣慶存, 『宋代散文研究』, 人民文學出版社, 2002년, p146참조.

49) “其賦至八百字以上, 而每句有十六八字者, 論有一千二百字以上, 策有置所問而妄肆胸臆、條陳他事者.”, 張方平, 「貢院請誠勵天下舉人文章奏」, 東英壽, 상계서, p137에서 재인용.

고, ‘지금은 그러한 것이 있었는가?(今有之乎)’ 역시 ‘없다.(無)’라고 하였으며, ‘그런즉 어찌 말하는 것이 세간의 것과 같을 것인가.(然則何謂而若是)’는 ‘특히 세간의 것과 다른 것을 하고자 할 뿐이다.(特欲與世異而已)’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듣기로 군자가 배우는 것은 바르게 할 따름이지 괴이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학문을 좋아함이 揚雄에 뒤지지 않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어찌 이와 같은지요.”<sup>50)</sup>

歐陽修는 이처럼 太學體가 불필요하게 괴이함을 추구하고 글자수를 늘이는 것에 대해 비판하였으며 知貢舉가 된 후 철저하게 太學體를 배척하였다. 때문에 太學體로 글을 지은 사람은 모두 불합격시키고 古文으로 글을 지은 사람들을 합격시켰는데 이때 합격한 蘇軾의 문장과 太學體를 쓴 사람의 글자 수는 무려 두 배의 차이가 있었다.<sup>51)</sup> 이처럼 歐陽修의 노력 하에 太學體의 문풍이 사라지게 되었고, 온전히 古文運動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四朝國史本傳』에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알 수 있다.

“그 당시 학인들은 險怪奇澀한 문장을 짓기를 숭상하였는데 그것을 太學體라고 불렀다. 歐陽修는 그것을 통렬히 배척하였으니 무릇 그런 글을 지은 자는 즉각 불합격시켰다. 시험이 끝나면 歐陽修를 향해 욕을 하고 무시하던 자들이 歐陽修가 나오길 기다렸다가 말머리에 모여서는 떠들어 댔는데 나졸들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험장의 풍습은 이로부터 드디어 변하게 되었다.”<sup>52)</sup>

이처럼 古文運動을 추진하던 시기에 宋代의 문학은 형식주의적인 문풍이 문

50) “吁，何怪之甚也！既而持以問人，曰：「是不能乎書者邪？」曰：「非不能也。」「書之法當爾邪？」曰：「非也。」「古有之乎？」曰：「無。」「今有之乎？」亦曰：「無也。」「然則何謂而若是。」曰：「特欲與世異而已。」修聞君子之於學，是而已，不聞爲異也，好學莫如揚雄，亦曰如此”，歐陽修，「與石推官第一書」，『歐陽修全集』卷六十八，pp991-992.

51) 東英壽, 상계서, p138 참조.

52) “時士子尙爲險怪奇澀之文，號太學體，修痛排抑之，凡如是者輒黜，畢事，向之囂薄者伺修出，聚譏於馬首，街邏不能制，然場室之習，從是遂變”『四朝國史本傳』，李永朱，『북송시문혁신운동과 歐陽修』，pp10-11에서 재인용

단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는 경제나 사회적 분위기가 실용주의를 필요로 하던 시기였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문학방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古文運動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 3) 散文의 정치 효용성 증가

宋代에 들어서면서 散文과 정치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는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文治주의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宋은 맹세코 사대부를 죽이지 않는다는 문신우대정책을 실시하였으며 황제들은 신하들에게 적극적으로 학문을 하도록 권하였다. 宋의 眞宗은 손수 「崇儒術論」을 지어 國子監에 새기기도 하면서 학문을 적극 권장하였는데,<sup>53)</sup> 이처럼 宋의 제왕들은 적극적인 崇文정책을 펴고 동시에 언로를 개방하여 신하들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당시의 문인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글로써 나타내게 되었다. 특히 宋代에는 황제의 결정권이 이전 시대보다 커졌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주장이 황제에게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하여 매우 논리적인 정론문들이 많이 탄생하였다. 또한 황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상소를 올렸으며 펴적이 된 후에도 정치적 사명감이나 懷才不遇한 자신의 처지를 문장에 실어 표현하였는데 王禹偁의 「黃岡竹樓記」나 范仲淹의 「岳陽樓記」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歐陽修 역시 많은 정론문에서 그의 정치적 주장을 나타내었는데 대표적으로 「準詔言事上書」, 「朋黨論」, 「原弊」 등을 들 수가 있다.

---

53) “太祖太宗, 丕變弊俗, 崇尚斯文. 朕獲紹先業, 謹導聖訓, 禮樂交舉, 儒術化成, 實二後垂裕之所至也.” (태조와 태종에 이르러 퇴폐한 풍속이 크게 변하여 문을 숭상하게 되었다. 짐은 선조들의 帝業을 이어서 성현들의 교훈을 따라 예악이 서로 일어서고 유가의 학설로 교화하여 이룸으로써 실로 두 제왕들의 명성에 이르고자 한다.) 宋 眞宗, 「崇儒術論」楊慶存, 『宋代散文研究』, 人民文學出版社, 2002년, p70에서 재인용.

두 번째로 宋代에는 비교적 공평한 과거제도가 정착이 되고 策論이 과거의 주 시험 과목이 되면서 散文과 정치의 관계가 긴밀해졌다고 할 수 있다. 慶曆新政 이전까지는 과거에서 주 시험 과목이 詩賦였으나 慶曆新政시 과거를 개혁하면서 주 시험과목을 策論으로 바꾸었으며 策論의 문제를 儒學의 경전의 내용과 정치를 연결하여 냈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할 수가 없었다. 비록 慶曆新政 실패 후 詩賦가 주 시험 과목으로 되돌아갔지만 策論의 중요성은 이미 인식되었고 이후 策論이 과거의 주 시험과목이 되었다. 때문에 舉子들은 儒學을 공부하면서 그 내용을 현실의 정치와 연결하여 자신의 주장을 펴야 했으며 그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된 이후에도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상소에 담아 황제에게 올렸기 때문에 정치와 산문의 관계가 긴밀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정한 과거의 시행으로 과거를 공부하는 舉子들이 늘어남에 따라 문인들의 수도 증가하였는데 蘇轍은 이에 대해 「上皇帝書」에서 “오늘날 인재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책을 외우고 과정만 익히면 벼슬을 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고, 얻으면 매우 즐거우니 너도나도 그것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農工商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옛일을 버리고 士人이 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sup>54)</sup> 이는 당시의 문인 층의 확대에 대한 설명으로 문인 층의 확대는 散文의 발전과 작품 수의 확대를 가져왔으니 唐五代에는 2만여 편에 이르던 散文의 수가 宋代에는 10만여 편에 이르러 그 수가 다섯 배로 늘었다.<sup>55)</sup> 이처럼 과거의 공정한 시행으로 인한 문인 층의 확대와 策論의 중시는 散文과 정치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였다.

세 번째로 宋代에는 散文과 정치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문인들이 어느 한 방면에 치우치지 않는 전인적인 수양을 하게 되었다. 宋代의 문인들은 문학에만 치중하여 수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학, 경학, 사학, 정치 등 다방면의 학

54) 金諍 著, 상계서, p161에서 재인용.

55) 楊慶存, 상계서, p57 참조.

문을 수양하였기 때문에<sup>56)</sup> 문인의 정치적 이상이 문학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歐陽修는 「薛簡肅公文集序」에서 “군자의 학문은 사업에서 시행되거나 혹은 문장에서 나타나는데 항상 두 가지를 겸하기가 어려움을 근심한다. 때를 만난 선비는 조정에서 공이 현저하게 드러나, 이름과 명예가 대나무와 비단에 새겨져 빛을 발하기 때문에 문장은 항상 마지막 일로 보았으며, 또한 여가가 없어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sup>57)</sup>라고 하였는데 이처럼 宋代의 학자들에게 정치는 우선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폄적을 당하더라도 끊임없이 정치적 주장을 글로써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주장은 직접적으로 정론문으로 표현되었지만 그 외의 다른 문장에서도 우회하여 언급되었다. 柳開는 「代王昭君謝漢王疏」에서는 王昭君의 입을 빌어서 굴욕외교를 하는 朝廷의 대신들에게 일침을 가하였고<sup>58)</sup> 范仲淹은 「岳陽樓記」에서 “천하의 사람들이 근심하기 전에 먼저 근심하고, 천하의 사람들이 즐거운 뒤에 즐긴다.”<sup>59)</sup>라고 하여 위정자의 자세를 나타냈으며, 歐陽修는 「醉翁亭記」에서 “사람들은 태수를 좇아 노는 즐거움을 알 뿐 태수가 그것(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기는 것을 모른다.”<sup>60)</sup>라고 하여 우회적으로 與民同樂하는 爲政者의 자세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宋代의 문학은 제왕들의 文官우대와 언로의 개방, 공정한 과거제도 시행으로 인한 문인 층의 확대 및 문인들의 정치와 학술의 전인적 수양 및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자세로 인해 그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고 할 수 있다.

56) 楊慶存은 宋 이전에는 종종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文에서는 뛰어나지 못하거나 학술이 뛰어나면 문장에서 뒤지기도 했고 문학에 뛰어난 사람들도 대부분 시나 혹은 문장의 한 부분에서만 뛰어났을 뿐 두 가지를 모두 겸하여 잘 하는 사람은 드물었으나 宋代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학술, 정치, 문학을 겸하는 전인적인 의식이 강하여 다방면에서 능력을 발휘하였으며 특히 학술적인 면에서 철학, 사학, 문학, 금석학, 경학, 서예, 회화 등등의 다방면에서 새로운 풍모를 나타냈다고 설명하였다. 楊慶存, 상계서, p74 참조.

57) “君子之學，或施之事業，或見於文章，而常患於難兼也。蓋遭時之士，功烈顯於朝廷，名譽光於竹帛，故其常視文章爲末事，而又有不暇與不能者焉。” 歐陽修，「薛簡肅公文集序」，『歐陽修全集』卷四十三，p618.

58) 洪本健評點『宋代散文評點』廣西教育出版社，2001년，pp6-8 참조.

59) “先天下之憂而憂，後天下之樂而樂”，范仲淹，「岳陽樓記」，『范文正公集』，『古文觀止今譯』，齊魯書社，p791에서 재인용.

60) “人知從太守遊而樂，而不知太守之樂其樂也。” 歐陽修，「醉翁亭記」，『歐陽修全集』卷三十九，p577.

## IV. 歐陽修 古文運動의 전개

이 장에서는 歐陽修의 古文運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歐陽修 이전의 古文家들의 古文運動과 그들의 문학적 성취를 알아본 후 歐陽修가 古文運動을 어떻게 전개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1. 歐陽修 이전의 古文運動家

北宋의 古文運動은 歐陽修에 이르러 그 완성을 보게 되었으나 이전부터 그 기운은 짙어지고 있었다. 歐陽修 이전에 이미 柳開와 王禹偁, 穆修, 石介 등이 韓愈의 古文을 제창하고 학습하였으며 이러한 선구자들의 노력에 대해 歐陽修도 「論尹師魯墓誌銘」<sup>61)</sup>에서 밝힌 바가 있다. 그들의 노력이 완벽하게 빛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歐陽修의 古文運動으로 이어져 올 수 있었기에 古文運動에 대한 그들의 공헌을 간과할 수는 없다. 때문에 먼저 북송 초 古文家들의 성취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歐陽修 이전의 古文運動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柳開 (947년-1000년)

柳開는 宋 초기에 古文을 제창한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柳開는 天水趙生이라는 유학자에게서 韓愈의 문장을 얻어 읽은 후 韓愈를 문장의 宗主로 삼았고

---

61) “若作古文自師魯始，則前有穆修、鄭絛輩，及有大宋先達甚多，不敢斷自師魯始也”，歐陽修，「論尹師魯墓誌銘」，『歐陽修全集』，卷七十二，p1046. “만약 古文을 짓는 것이 師魯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면，그 전에 앞서 있었던 穆修，鄭絛 등의 사람들도 있었고 宋나라의 선배들도 많이 있는데 감히 師魯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고 하여 歐陽修는 古文이 宋初부터 이미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韓愈의 뜻을 어깨에 진다는 의미로 이름을 肩愈라고 바꾸었으며 柳宗元의 뒤를 잇는다는 의미로 字를 紹元(혹은 紹先)이라고 하였다.<sup>62)</sup>

柳開의 古文運動 상의 큰 업적은 肩愈라는 이름에서 보여지듯 韓愈를 宗主로 삼음으로 北宋의 古文運動의 나아갈 바를 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應責」에서 “나의 도는 孔子、孟軻、揚雄、韓愈의 道이며 나의 문장은 孔子、孟軻、揚雄、韓愈의 문장이다.”<sup>63)</sup>라고 하여 韓愈의 古文을 표방하였으며 스스로 韓愈의 文統을 자임하였다. 이는 柳開가 宋代 古文運動의 선구자로서 古文運動의 儒學적 성질을 처음으로 전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64)</sup> 이러한 면은 다음의 글을 보면 잘 나타나는데 儒學의 도덕과 인의로 사람들을 교화해야 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

“지금의 세상과 옛날의 세상이 같고, 지금 사람들이나 옛날의 사람들이 역시 같다. 옛날 백성들을 가르칠 때는 도덕과 인의로 하였으며 지금 백성을 가르치는 것 역시 도덕과 인의로써 해야 하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찌 다름이 있겠는가? 옛날 백성을 가르치던 사람이 지위를 얻으면 말로써 교화를 하였으며 그 말을 얻으면 무리들은 이를 좇았다. 지위를 얻지 못하면 글로써 남겨 사람들에게 전하여 성인의 도를 알아 쉽게 행하도록 하였으니, 임금을 존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자식에게 자애롭게 하는 것이다. 크도다. 이 도여! 나 혼자 사사로이 할 것이 아니요, 천하가 모두 여기에 이르러야 할 공동의 것이다.”<sup>65)</sup>

62) 吳曾의 『能改齋漫錄』 卷十, 「議論」·「古文自柳開始」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本朝承五季之陋, 文尙麗偶, 自柳開首變其風. 始天水趙生, 老儒也, 持韓文數十篇授開, 開嘆曰:‘唐有斯文哉!’ 因謂文章宜以韓爲宗, 遂名肩愈, 字紹元, 亦有意於子厚耳. 故張景謂 ‘韓道大行, 自開始也.’”, 何寄澎, 상계서, pp168-169 재인용.

63) “吾之道, 孔子、孟軻、揚雄、韓愈之道, 吾之文, 孔子、孟軻、揚雄、韓愈之文.”, 柳開, 「應責」, 顧易生·蔣凡·劉明金, 『宋金元文學批評史·上』, 上海古籍出版社, 1996, p26에서 재인용.

64) 何寄澎, 상계서, p171 참조

65) “今之世與古之世同矣, 今之人與古之人亦同矣. 古之教民以道德仁義, 今之教民亦以道德仁義, 是今與古胡有異哉! 古之教民者, 得其位則以言化之, 是得其言也, 衆從之矣. 不得其位則以書於後, 傳授其人, 俾知聖人之道易行, 尊君敬長, 孝乎父, 慈乎子. 大哉斯道也, 非吾一人之私者也. 天下之至公者也.”, 柳開, 「應責」, 顧易生·蔣凡·劉明金, 상계서, pp25-26 재인용

이처럼 柳開는 儒學의 道를 강조함으로써 초기 古文運動이 유학적 성격을 내포하게 되었지만 그 道를 道德과 仁義로 한정함으로써 한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道의 강조를 위하여 重道輕文하는 입장을 취하였는데 아래의 글은 그러한 그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문장은 도를 전하기 위한 통발과 같은 것이다. 통발을 함부로 만들 수 있는가? 통발이 좋지 못하면, 잘못된 것을 얻게 된다. 여자는 용모가 덕보다 뛰어난 것을 좋아하지 않으나 덕이 용모보다 뛰어난 것은 싫어하지 않는다. 문장은 문사의 화려함이 이치보다 앞서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이치의 화려함이 문사보다 앞선다면 이는 해로울 것이 없다.”<sup>66)</sup>

“古文이라는 것은 언사가 난삽하고 말이 곱끄러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읽고 배우기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치는 옛 것에 있고 그 뜻은 높은 곳에 있으며, 말의 길고 짧음이 고인의 사적에 따라 변하는 것이 古文이다.”<sup>67)</sup>

이 두 문장은 柳開의 古文에 대한 생각을 잘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의 글은 문장의 내용에 도를 실는 것이 문사의 화려함에 우선한다는 것을 강조 하였으며 아래의 글은 사실에 따라 문장의 길고 짧음이 변하는 것이라 하여 형식면에서 駢儷文보다 쉽고 자유로운 형식을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道에 치중하여 文의 역할을 폄하한 그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작품을 써내지 못하였으며 당시 사람들이 “柳開의 글 일천 두루마리가 張景의 글 한 권만 못하다”<sup>68)</sup>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의 글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음

66) “文章爲道之筌也，筌可妄作乎？筌之不良，獲斯失矣，女惡容之厚於德，不惡德之厚於容也。文惡辭之華於理，不惡理之華於辭也。”，柳開，「上王學士第三書」，顧易生，蔣凡，劉明今，상계서，p27에서 재인용.

67) “古文者非在辭澀言苦，使人難讀誦之。在於古其理，高其意，隨言短長，應變作制，同古人之行事，是謂古文也。”郭預衡，「中國散文簡史」，北京師範大學出版社，2001，pp363-364에서 재인용.

68) 夢溪筆談에 “柳開少好任氣，大言凌物，應舉時，以文章投主司於簾前，凡千軸，載以獨輪車，引試日衣襪自擁車以入，欲以此駭衆取名。時張景能文，有名，惟袖一書簾前獻之，主司大稱賞，擢景優等，時人爲之語曰‘柳開千軸不如張景一書’。”이라는 고사가 적혀있다. 張景은 柳開의 門下로 柳開보다 文才는 뛰어났지만 柳

을 알 수 있다. 특히 古文이라는 것은 언사가 난잡하고 말이 곱끄러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읽고 배우기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자신의 말과는 모순이 되게 柳開 자신의 문장은 매우 奇澀하여 淸의 王士禎은 『池北偶談』에서 柳開의 글을 “언사로는 표현할 수 있으나, 실행할 수는 없는 것”<sup>69)</sup>이라고까지 평가하였다. 그의 奇澀한 풍격은 石介로 이어져 훗날 太學體로까지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奇澀한 풍격은 당시 駢儷文으로 자신의 文才를 나타내던 풍조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柳開가 문장으로 古文을 정착시키지는 못하였지만 古文運動의 유학적 성격을 처음으로 전개하였다는 것은 古文運動에 대한 가장 큰 공헌이라 할 수 있다.

## 2) 王禹偁 (954년-1001년)

王禹偁은 柳開와 비슷한 시기에 古文을 제창하였는데 그의 글 「答張扶書」에는 그의 古文에 대한 자세가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근세에 古文의 주가 되는 사람은 韓吏部(韓愈)뿐이다. 내가 韓愈의 문장을 살펴보니 문장에서 도를 어렵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뜻에서 어렵게 깨닫는 것이 아니었다. … 때문에 韓愈가 말하길 ‘나는 현재를 배우지 아니하고, 옛 것을 배우지 아니하고, 어려운 것을 배우지 아니하고, 쉬운 것을 배우지 아니하고, 많은 것을 배우지 아니하고, 적은 것을 배우지 아니하니 오직 바른 것(道)을 배울 뿐이다’라고 하였다. … 만일 멀리 六經에서 배우고, 가까이는 韓愈를 배우면, 문장은 말하기 쉽고, 뜻은 쉽게 깨닫는다. 또 학문으로 보충하고, 그 기세로써 도우면 나는 장차 그대의 글이 명성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sup>70)</sup>

開와 마찬가지로 奇澀한 문체로 당시 문풍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何寄澎, 상계서, p173 참조.

69) “能言之而不能行也.” 郭預衡, 『中國古代文學史』, 上海古籍出版社, 1998년, p40 참조.

70) “近世爲古文之主者, 韓吏部而已. 吾觀吏部之文, 未始句之難道也, 未始義之難曉也, ……古吏部曰‘吾不師

“무릇 문장이라 함은 도를 전하여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옛날의 성인들도 어쩔 수 없어서, 글을 남겼다. 또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면 도에 이를 수 있고, 수신하면 허물이 없으며, 임금을 섬김에 공을 이룰 수 있다. 지위가 없으면 마음의 품은 바를 밖으로 나타낼 수 없어 후세에 전할 수 없을까 두려워하여 말을 남기는 것이다. 또한 말이 쉽게 없어질까 두려워하여 문장으로 남기는 것이다.”<sup>71)</sup>

위의 글에서도 나타나지만 王禹偁 역시 柳開와 같이 韓愈의 古文을 표방하고 있다. 또한 ‘傳道而明心’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道를 전하여 마음을 밝히는 것이 문장이라고 하여 ‘文以明道’의 사상을 강조하였다. 그는 같은 글에서 揚雄의 예를 들면서 揚雄처럼 난삽한 표현은 잘못 된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六經의 글은 도를 쉽게 밝힌 것이 대부분이라는 견해를 밝혀 문장을 쉽게 하여 쉽게 깨닫게 하는 것이 古文이라는 의견을 밝혔다.<sup>72)</sup> 이는 당시의 부염하고 화려하기만 한 문장도 반대한 것이지만 崎險하고 難澁한 표현의 문장도 반대하여 平易한 문장을 주장하였고, 이것이 柳開의 奇澁한 古文과는 완전히 다른 점이며, 이러한 平易한 古文은 歐陽修에게로까지 이어졌으니 王禹偁이야말로 실제적인 歐陽修의 古文運動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王禹偁의 또 다른 업적은 道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王禹偁은 대대로 농사를 짓던 집안 출신으로 백성들의 疾苦를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때문에 그는 글을 통해 백성들의 疾苦를 위로 전달하고자 했으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道에 충실한 것이라고 하였다.

---

今、不師古、不師難、不師易、不師多、不師少、惟師是爾.’……若能遠師六經，近師吏部，使句之易道，義之易曉。又輔之以學，助之以氣，吾將見子之文顯於時也。”王禹偁，「答張扶書」，何寄澎，상계서，p175-176 재인용.

71) “夫文，傳道而明心也，古聖人不得已而爲之也。且人能一乎心至乎道，修身則無咎，事君則有立。及其無位也，懼乎心之所有，不得明乎外，道之所言，不得傳乎後，於是乎有言焉；又懼乎言之易泯也，於是乎有文焉。”，王禹偁，「答張扶書」，王運熙·顧易生，『中國文學批評史·中冊』，上海古籍出版社，1981년，p20 재인용

72) 진영희，「북송古文가들의 도와 문에 대한 견해 소고」，『중국어문학』 15집，p83 참조.

“옛 군자를 배우는 것은 많은 녹봉을 받는 자리에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며, 道와 義에 있는 것이다. 그것(군자가 배운 것)을 이용하여 정치에 종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從政而惠民)이며, 그렇지 않으면 수신한 후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다.”<sup>73)</sup>

글에서도 나타나듯이 道를 충실하게 하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에 있으며 정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여, 道라는 것을 仁義道德에 국한한 柳開와 달리 정치와 실생활로 넓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歐陽修의 道에 대한 관점인 百事에 관심을 갖는 것과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배우는 것은 녹봉을 많이 받는 자리에 그 뜻을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당시 높은 벼슬에 있는 위정자들에게 일침을 가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당시 높은 벼슬에 있는 관리들은 글쓰기를 일종의 취미나 자신의 재주를 과시하는 것으로만 여긴 데에 대한 비난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王禹偁은 많은 정론문을 통해 정치의 개혁을 이야기하고 관리들의 부패를 논하였는데 이러한 정신은 후에 范仲淹과 歐陽修 등의 개혁정치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sup>74)</sup>

또한 王禹偁은 적극적으로 후진을 양성하였다. 그러나 그의 후진들은 사람들의 명성을 얻지 못하였으며 그의 문하생인 丁謂는 간사한 소인배로 취급되기도 하였다. 王禹偁 역시 그의 강직한 성격 때문에 고위 관직들과 마찰이 많았고 결국은 귀향을 갈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서 정치적 입지가 좁았으므로 王禹偁의 古文運動은 성공할 수 없었다.<sup>75)</sup> 특히 王禹偁 사후에 『西崑酬唱集』이 나와 西崑體가 크게 유행하여 초기 古文家들의 古文運動은 더욱 어려움을

---

73) “古君子之爲學也，不在乎千祿位，而在乎道義而已，用之則從政而惠民，捨之則修身而垂教.”，王禹偁，「送譚堯叟書」，王運熙·顧易生，상계서，p21.에서 재인용.

74) 이승신，「政治와 文學의 관계로 본 北宋 初期 文章」，『중국어문논총』 32집，2007년，pp129-130 참조.

75) 何寄澎，상계서，pp 177-178 참조.

맞게 되었다.

### 3) 穆修 (979년 - 1032년)

王禹偁 死後에 駢儷文인 西崑體가 크게 유행을 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西崑體를 사용하여 詩와 文을 지었으며 과거에서도 駢儷文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점 기교에만 충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古文運動을 이어나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穆修라고 할 수 있다.

穆修가 쓴 「答喬適書」에는 당시에 古文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토로하고 있다.

“옛날의 도가 끊어지고 행하여지지 않았는데 그 시간이 이미 오래되었다. 지금 세상의 사대부라고 하는 자들은 가벼운 것만 배우길 좋아하고 성률과 대우의 문사를 쓰지 않은 문장은 듣고 보려고 하지 않는다. 결만 화려한 것들이 지나간 것에 따라 서로 그 흔적을 좇아 분주하고 다른 길은 있지 않은 듯 했다. 그 동안 홀로 감히 古文을 하는 사람은 괴상한 말을 하는 사람과 같이 여겨졌다. 사람들은 또한 그것을 배척하고 책망하며, 보려고 하지 않아 그 기세를 꺾어 버리니, 곧 손가락질 하여 미혹하게 한다 하고, 그것을 일컬어 ‘시대에 맞지 않아 명성에서 멀어지게 하고 부귀에서도 멀어지게 한다.’고 하였다.”<sup>76)</sup>

또한 같은 글에서

“옛 것을 배우는 사람은 뜻이 도에 있는 것이지만 지금의 것을 배우는 사람은 그 뜻이 명성을 얻는데 있다. 도라는 것은 仁義를 말하지만 명성이라

---

76) “蓋古道息絕不行，於時已久。今世士子，習尚淺近，非章句聲偶之辭，不置耳目。浮軌濫轍，相述而奔，靡有異途焉。其間獨敢以古文語者，則與語怪者同也。衆又排詬之，罪毀之，不目以爲迂，則指以爲惑，謂之背時遠名，闕於富貴。”，穆修，「答喬適書」，顧易生、蔣凡、劉明今，상계서，p60-61 재인용.

는 것은 벼슬과 녹봉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를 행하면 겸하여 명성을 얻을 수 있지만 명성을 얻은 자는 겸하여 도를 얻을 수는 없다.”<sup>77)</sup>

라고 하여 古文과 駢儷文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 지었다. 즉 古文을 하는 사람은 道에 뜻이 있지만 駢儷文을 하는 사람은 벼슬과 녹봉에만 뜻이 있으며 도를 터득한 사람은 명성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古文을 駢儷文보다 우위에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穆修는 韓愈와 柳宗元의 글을 좋아하여 「唐柳先生集後序」에서 韓愈와 柳宗元의 글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唐의 문장이 초기에는 周나라에서 隋나라 五代의 기풍에서 떠나지 못하였지만, 중간에 李白과 杜甫를 얻어 비로소 뛰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오로지 詩歌에서만 웅장한 기세가 있을 뿐이었고 道에서는 아직 완전함이 극에 달하지 못하였다. 韓愈와 柳宗元에 이르러 그 기운이 일어난 후에 옛 성인들의 문장이 크게 나타나니, 그 언사와 仁義는 서로 꽃피고 열매를 맺어 잡스럽지 않았다.”<sup>78)</sup>

때문에 韓愈와 柳宗元의 글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보급하였는데 이에 대해 南宋의 학자 朱熹는 “韓愈와 柳宗元의 글은 穆修로 인해 유행하게 되었다.”<sup>79)</sup>라고 하였다. 이러한 穆修의 노력으로 韓愈와 柳宗元의 글이 널리 유포되어 古文運動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穆修의 또 하나의 공적은 歐陽修의 古文運動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문인집단을 형성한데 있다. 穆修는 일찍이 尹源과 尹洙형제, 蘇舜元和 蘇舜欽 형제와 교류하였으며, 尹源과 尹洙에게 古文을 가르쳤다. 이들 집단은 후에 歐陽修와

77) “夫學乎古者所以爲道，學乎今者所以爲名。道者仁義之謂也，名者爵祿之謂也。然則行道者有以兼乎名，中名者無以兼乎道”，何寄澎, 상계서, p180에서 재인용.

78) “唐之文章，初未去周，隋五代之氣，中間稱得李、杜，其才始用爲勝，而號專雄歌詩，道未極其渾備。至韓、柳氏起，然後能大吐古人之文，其言與仁義相華實而不雜。”楊慶存, 상계서, p114 재인용.

79) “韓柳之文因伯長而後行”何寄澎 상계서, p182 재인용.

교유하며 서로 古文을 장려하였는데 특히 尹洙의 古文은 歐陽修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니 그 근원은 穆修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sup>80)</sup> 문인집단의 형성은 古文運動이 문학운동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歐陽修 역시 이들과의 교유를 통해 古文을 배우고, 古文運動을 추진하였으며, 적극적으로 후진을 양성하고 등용하게 되었다.

#### 4) 石介 (1005년-1045년)

古文運動에서 石介의 공은 西崑體를 가장 맹렬히 비판하여 그 기세를 꺾었다는 것이다. 그는 西崑體에 대해 그의 글 「怪說」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예전에 楊億은 문장으로써 천하의 종주가 되고자, 천하가 그의 도를 믿지 않을까 우려하여 천하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천하의 사람들의 귀를 멀게 하였다. 천하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 周公, 孔子, 孟子, 揚雄, 王通, 韓愈의 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천하의 사람들의 귀를 멀게 하여 周公, 孔子, 孟子, 揚雄, 王通, 韓愈의 도를 듣지 못하게 하였다.……지금 楊億은 문장의 걸모습만 치장하여 풍월이나 늘어놓고 화초나 희롱하며 음란하고 화려하기만 한 문사로 성인의 경전을 아로새기고 성인들의 말씀을 깨뜨리고 성인의 뜻을 흩어지게 하며 성인의 도를 좀먹어 상처내고 있다.”<sup>81)</sup>

여기에서 石介는 楊億의 글을 吟風弄月이나 하며 성인의 道를 해하여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몸에는 무소갑옷을 두르고, 머리에는 철로 만든 투구를 쓰고, 앞뒤로 십만 기병을 몰아, 기세는 웅장하고 열렬하여 무서울 것이 없다.”<sup>82)</sup>의 자세로 西崑體를 타도하였고 성공하였다. 이에

80) 何寄澎, 상계서, pp 180-181 참조.

81) “昔楊翰林欲以文章爲宗於天下, 憂天下未盡信己之道, 於是盲天下人目, 聾天下人耳. 使天下人目盲, 不見有周公、孔子、孟軻、揚雄、文中子、吏部之道. 使天下人耳聾, 不聞有周公、孔子、孟軻、揚雄、文中子、韓吏部之道. …… 今楊億之窮妍極態, 綴風月, 弄花草, 淫巧侈麗, 浮華纂組, 剗鏤聖人之經, 破碎聖人之言, 離析聖人之意, 蠹傷聖人之道” 「怪說」王運熙·顧易生, 상계서, pp26-27에서 재인용

朱子는 「五朝名臣言行錄」에서 「呂氏讀書記」를 인용하여 말하였다.

“楊億, 劉筠의 문체를 쓰는 사람을 石介가 더욱 미워하여 孔門의 大害라 여기고 「怪說」三篇을 지어 佛老와 楊億을 배척하였다. 이에 신진후학들이 감히 楊劉體를 쓰지 못하고 또한 佛老를 이야기 하지 못했다.”<sup>83)</sup>

石介는 문사만 화려하고 내용 없는 西崑體를 타도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지나치게 道를 강조하고 동시에 文의 역할에 대해서는 홀시하였으며 문장이 지나치게 難澁하여 ‘太學體’라는 형식주의 古文의 유행을 가져왔다. 石介는 柳開를 매우 흠모하였으며 「贈張績禹功」에서 “韓愈의 절개를 흠모하고, 柳開의 뜻을 어깨에 진다.”<sup>84)</sup> 라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石介는 특히 柳開를 흠모하였으며, 石介의 奇澁한 문체는 韓愈와 柳開의 奇澁한 문장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이러한 奇澁한 문체는 太學에서 學官을 지내면서 학생들에게 유행이 되었고 古文의 變體인 太學體로 발전하였는데 이것은 歐陽修의 古文運動의 平易함의 추구하고 맞지 않아 歐陽修의 배척을 받게 되었다.

石介의 문장이 奇澁하여 太學體로 발전하였지만 歐陽修와 함께 西崑體를 일소한 것은 古文運動에 미친 石介의 공헌이라 할 수 있다.

## 2. 歐陽修의 古文運動 전개

앞서 말한 古文家들은 古文運動의 선구자적 역할은 했지만 그것을 결정적으로 꽃피우지는 못했다. 때문에 여전히 駢儷文의 여풍이 남아있었으며 西崑體가 등장하여 古文이 위축되기도 하였고, 古文家들도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는 時

82) “體被犀甲, 頭戴鐵盔, 前後馳十萬騎, 膽氣雄烈, 無所畏恐.” 「上孫先生書」, 郭預衡, 『中國古代文學史·三』, 上海古籍出版社, 1998년, p50에서 재인용.

83) “其有爲楊劉體者, 守道尤嫉之, 以爲孔門之大害, 作怪說以排佛老及楊億. 於是 新進後學, 不散爲楊劉體, 亦不敢談佛老.” 문명숙, 「송초 시혁신운동 연구」, 『중국어문논총』 Vol 2, p106에서 재인용.

84) “有慕韓愈節, 有肩柳開志.”, 石介, 「贈張績禹功」, 王運熙·顧易生, 상계서, p26 재인용

文이라 불리던 駢儷文을 배워야 하였으며 太學體라는 古文의 變體도 등장하였다. 그러나 歐陽修의 등장은 古文運動에 큰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歐陽修의 노력에 의해 古文運動이 완성되어 古文은 駢儷文의 기세를 누르고 散文문체를 대표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歐陽修의 문학이론과 古文運動의 전개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古文運動이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 1) 문학이론의 확립

歐陽修는 古文을 창작함에 있어서 문학이론을 세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창작하고 후진을 발굴, 양성하였다. 歐陽修의 문학이론은 前人들이 이미 세워놓은 문학이론을 당시 현실에 맞게 받아들이고 변형한 것으로 歐陽修 스스로의 문학이론을 확립하여 古文運動을 주도하였는데 前人들의 문학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현실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한 것이 古文運動의 중요한 성공요인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歐陽修의 문학이론을 살펴봄으로써 歐陽修가 어떠한 문학관을 갖고 古文運動을 주도하였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 ① 현실 중시적 文道觀 제시 - 事信言文과 窮而後工

歐陽修는 尊韓의 기치 아래 스스로 문학이론을 확립하였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道와 文의 관계의 정립이다. 古文運動이 西崑體를 배척한 이유 중 하나는 西崑體가 文에 치중하여 문장에 道를 실지 않는 空文이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文과 道의 관계 설정이 古文運動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歐陽修 역시 스스로의 文道觀을 확립했는데 歐陽修의 文道觀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말이 「代人上王樞密求先集序書」에서 밝힌 ‘事信言文’이라고 할 수 있다. 歐陽修는 「代人上王樞密求先集序書」에서 “말에는 사실을 싣고 문장에는 언사가 있어야 하니, 사건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말에는 문사가

있어야만 그 표현이 후세에까지 나타날 수 있다.”<sup>85)</sup>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言以載事’란 곧 문장에는 허황된 내용이 아닌 사실적인 ‘道’를 실어야 한다는 것으로 실생활과 가까운 道를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중시적 시각에서 道와 실생활을 연결하여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歐陽修가 강조하는 실생활과 가까운 道란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歐陽修는 「答祖擇之書」에서 ‘경전을 스승으로 삼아 내면을 수양하고 道를 순정하게 할 것’<sup>86)</sup>을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儒學에서 말하는 道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歐陽修가 이야기 하는 儒學의 道는 仁義와 道德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歐陽修는 道의 범위를 추상적인 것에서 좀더 실질적인 것으로 넓혔는데 「答吳充秀才書」에서 이야기한 百事가 歐陽修가 이야기 하는 道라 할 수 있다. 百事란 실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與張秀才第二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 道는 周公, 孔子, 孟子的 무리들이 항상 실천하고 행하던 것이며, 그 문장은 육경에 실려 지금까지 전해져서 믿음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 道는 알기 쉽고 또 법이 될 만하고 그 언사는 알기 쉬우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孔子가 죽은 후에는 오직 孟子만이 그 道를 가장 잘 알았으니 그 말은 사람을 가르쳐서 뽕나무와 마를 심게 하고 닭과 돼지를 기르게 하는 것으로, 부모를 잘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잘 보내는 것으로써 왕도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sup>87)</sup>

이처럼 歐陽修가 강조하는 道는 쉽게 알 수 있는 道이며 농사짓고 가축을

85) “言以載事，而文以飾言，事信言文，乃能表現於後世.”，歐陽修，「代人上王樞密求先集序書」，『歐陽修全集』卷六十八 p984.

86) “夫世無師矣，學者當師經。師經必先求其意，意得則心定，心定則道純，道純則充於中者實，中充實則發爲文者輝光，施於事者果毅.”，歐陽修，「答祖擇之書」，『歐陽修全集』卷六十九，p1010.

87) “其道，周公孔子孟軻之徒常履而行之者是也，其文章，則六經所載至今而取信者是也。其道易知而可法，其言易明而可行。……孔子之後，惟孟軻最知道，然其言不過於教人樹桑麻，畜雞豚，以謂養生送死爲王道之本.”，歐陽修，「與張秀才第二書」，『歐陽修全集』卷六十七，p978.

기르고 부모를 잘 봉양하고 장사를 잘 지내는 것처럼 서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道라고 할 수 있다. 「答李翊第二書」에서

“六經에 있는 내용은 모두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절실한 것들이니, 그 말이 지극히 상세하다.”<sup>88)</sup>

라고 말한 것처럼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친 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을 道의 범위에 넣었기 때문에 당시의 학자들이 문사만 다듬으면서 ‘百事不關於心’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당시의 학자들은 곧 지배계층으로 정치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자의 소임은 문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여 사회와 정치에 대한 참여와 책임의식의 고취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歐陽修의 지식인의 사회와 정치 참여에 대한 견해는 「讀李翱文」에서도 볼 수 있다.

“무릇 옛날 李翱과 같은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성인의 도를 알고 문장을 쓸 줄 알았던 사람은 韓愈만한 사람이 없다고 여겼다. 韓愈가 일찍이 부를 지었는데 단지 두 마리 새의 영달을 부러워하며 자신은 한 끼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현실을 탄식하는 것이었다. 그 마음이 이러하니 부귀 영달하여 배불리 먹었다면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李翱과 같은 이만이 유독 그렇지 않으니 그 부(幽懷賦)에서 말하길 ‘많은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며 섞여 모여서 늙음을 탄식하고 벼슬이 낮은 것을 탄식하네. 내 마음을 돌아보니 그렇지 아니하여 성인의 도를 행함에 있어 모자랄까 염려하네.’

또 唐 高祖는 오백여명의 군대로 천하를 취하였는데 후세의 자손은 천하의 힘으로 河北도 취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걱정하였다. 아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늙고 벼슬이 낮은 것을 한탄하는 마음을 李翱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꾸었다면 唐나라가 어찌 그렇게 어지러워지고 망하였겠는가?

---

88) “六經之所載，皆人事之切於世者，是以言之甚詳.”，歐陽修，「答李翊第二書」，『歐陽修全集』卷四十七，p669.

그러나 李翱가 지금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지금 세상의 일을 보았다면 그 걱정하는 마음이 어찌 또한 깊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어찌 지금의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는가? 내가 천하를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 혹 李翱처럼 걱정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모두 그를 천하게 여기며 멀리 하였으니 李翱의 처지와 다르지 않았다.

그 외의 영광스럽고 배부른 자들은 세상을 걱정하는 말을 들으면 미치광이로 여기거나 아니면 바보백치로 여긴다. 나는 화내지 않고 웃어버린다. 아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스스로 걱정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걱정하는 것을 금하니 정말 한탄스럽다.”<sup>89)</sup>

이 글에서 歐陽修는 韓愈의 「感二鳥賦」와 李翱의 「幽懷賦」를 비교하면서 개인의 감회를 적은 「感二鳥賦」보다 세상을 걱정하는 「幽懷賦」를 우위에 두고 있다. 또한 李翱의 세상을 걱정하는 마음을 높이 평가하며 그 당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걱정하지 않음을 한탄하고 있다. 이것 역시 ‘百事不關於心’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학자는 마땅히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학자는 백성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道의 수양이 중요하였으며, 歐陽修는 그 道의 수양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또한 실생활에 관련된 道 역시 儒學의 道임을 설명하고, 孔子, 孟子 등의 예를 들어서 자신이 말하는 道가 허황되지 않은 것이며 이미 前人들이 실천하던 道라고 설명하여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歐陽修는 자신의 散文에서 이러한 점을 실천하고 있다. 歐陽修의 雜記類에는 「養魚記」, 「伐樹記」, 「洛陽牡丹記」처럼 이전 士大夫들이 좀처럼 사용하지 않던 제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실생활과 관련된 道를 강조함으로써 古文運動

89) “凡昔翱一時人，有道而能文者，莫若韓愈。愈嘗有賦矣，不過羨二鳥之光榮，歎一飽之無時爾。此其心使光榮而飽，則不復云矣。若翱獨不然，其賦曰：‘衆器器而雜處兮，感歎老而嗟卑。視予心之不然兮，慮行道之猶非。’又怪神堯以一旅取天下，後世子孫不能以天下取河北，以爲憂。嗚呼！使當時君子皆易其歎老嗟卑之心，爲翱所憂之心，則唐之天下豈有亂與亡哉！然翱幸不生今時，見今之事，則其憂又甚矣。奈何今之人不憂也？余行天下，見人多矣，脫有一人能如翱憂者，又皆賤遠，與翱無異。其餘光榮而飽者，一聞憂世之言，不以爲狂人，則以爲病癡。予不怒則笑之矣。嗚呼！在位而不肯自憂，又禁他人使皆不得憂，可歎也夫！”， 歐陽修，「讀李翱文」，『歐陽修全集』卷七十二，p1050.

이 文學의 영역을 넘어 사회와 문화에 두루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歐陽修는 이러한 실생활과 관련된 道를 반드시 문장에 실어야만 뛰어난 문장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宋初 古文運動의 선구자들의 경우에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지나치게 道에 치중하여 文의 역할을 경시하였는데 이것이 古文運動이 성공하지 못한 한 이유가 되었다. 韓愈는 文과 道의 관계에 있어서 道에 힘을 실는 ‘文以明道’로 문장을 도를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는 古文家 대부분이 계승하였다. 특히 柳開와 石介는 지나치게 道에 편중된 자세를 보여 文은 단지 道를 밝히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歐陽修 역시 韓愈의 ‘文以明道’를 계승하여 ‘道勝文至’로 발전시켜 문장에서 道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歐陽修는 여러 편의 산문에서 道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먼저 ‘道勝文至’를 이야기한 「答吳充秀才書」를 보면 아래와 같다.

“옛 성인의 글은 우리가 비록 미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대저 道의 경계가 높아지게 되면 글이 고매함에 이르게 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까닭에 孟子가 가르침을 펴기에 바빠서 저작할 시간이 없었고, 荀子도 만년에야 겨우 책을 지었을 뿐입니다. 揚雄, 王通과 같은 사람들은 옛날 성현들의 언사를 열심히 모방하여 저작을 하였으나 그 도는 孟子와 荀子の 넓고 깊으며 웅건한 경지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道가 부족한데 억지로 문사를 표현한 때문입니다. 후세에 이것에 미혹된 사람들이 전대의 문장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만을 보고서 학문을 하는 것이 문사를 다듬는 것이라고만 여깁니다. 그리하여 문사에 힘을 기울일수록 더욱 더 도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는 바로 선생이 말씀하신 바, 하루 종일 집에서 나가지 않고 글 짓기에 열중하나, 문장이 사방으로 뻗지 못하고 뜻한 바대로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도가 충분하게 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도가 충분하다면 천하의 어느 곳을 돌아다닌다 해도 최고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 바

가 없습니다.”<sup>90)</sup>

「答吳充秀才書」에서 歐陽修는 道가 높아지면 문장은 어렵지 않게 이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孟子와 荀子, 揚雄과 王通의 예를 들어 道가 文에 우선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때문에 孟子나 荀子は 저작이 없거나 늙어서 지었지만 오래도록 전하여졌으며 반대로 揚雄과 王通은 문사만을 모방하였기 때문에 道가 이른 것이 孟子나 荀子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면서 당시의 학자들이 문사를 다듬는 것에 힘을 기울여 道에 이르지 못한 것을 비판하였다. 때문에 문장에만 치중하는 것보다 道를 갖추는 것이 먼저임을 강조하였다.

또 「答祖擇之書」에서도 道의 수양이 문장보다 먼저임을 강조하였다.

“제가 듣기로 옛날의 학자는 반드시 그 선생을 존경하였다고 합니다. 선생을 존경한 후에 도를 높이고, 도를 높인 후에 심후하고 높아지며, 심후하고 높아진 후에 자신의 뜻을 고수할 수 있으며, 자신의 뜻을 고수한 후에야 과감하게 쓸 수 있고 과감하게 쓴 후에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삼대가 쇠락하고 학교가 폐해진 후 양한에 이르러서도 선생과 도는 여전히 존재하였기에 그 배우는 사람은 각기 그 경전을 지키고 스스로 운용하였는데, 한나라의 정치와 문장과 그 당시의 일들을 후세에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그것의 근원이 깊기 때문입니다. 후세에 선생에 대한 법도가 무너지며, 지금은 없어졌고 배우는 자들도 존경하지 않기에 스스로 그 도를 가볍게 여깁니다. 도를 가볍이 여기니 도에 이를 수 없고, 도에 이를 수 없으니 돈독하게 믿을 수 없어지고, 돈독하게 믿을 수 없기에 지킬 방법을 모르는 것이고, 견고히 지킬 수 없으니 두려워하는 바가 있게 되어 상황에 따라 동요하게 됩니다. 때문에 배우는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세속에 비굴하게 복종하여 녹봉과 이익을 급한 것으로 여기고, 근본을 잊어버리고 끝을 향해

---

90) “聖人之文雖不可及，然大抵道勝者文不難而自至也。故孟子皇皇不暇著書，荀卿蓋亦晚而有作。若子雲、仲淹，方勉焉以模言語，此道未足而彊言者也。後之惑者，徒見前世之文傳，以爲學者文而已，故愈力愈勤而愈不至，此足下所謂終日不出於軒序。不能縱橫高下皆如意者，道未足也。若道之充焉，雖行乎天地，入於淵泉，無不之也。”，歐陽修，「答吳充秀才書」，『歐陽修全集』卷四十七，p664.

나아가니 세속에 물들어 정도를 잊어버립니다. 무릇 믿지도 못하고 견고하지도 않은 마음으로, 도에 닿지 않은 학문을 지킨다면, 비록 과감하게 쓰고자 하여도 그것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며, 또한 하물며 봉록과 이익의 유혹과 형벌의 두려움이 그것을 변하게 하니, 이것이 수재께서 말하는 바, 옛 것에 뜻을 두고 도를 아는 선비가 세상에 적거나,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직 없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 무릇 세상에 스승이 없으면, 배우는 자는 당연히 경전을 스승으로 삼아야 하며, 경전을 스승으로 삼으면 반드시 먼저 그 뜻을 구해야 합니다. 뜻을 얻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면 도가 순정해집니다. 도가 순정해지면 내면이 충실해지고, 내면이 충실해지면 문장으로 발휘되어 빛이 나게 되며, 사업에 시행함에 과감해집니다.”<sup>91)</sup>

歐陽修는 당시의 학자들이 道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道에 이를 수 없고 世俗에 물들고 이익과 봉록에 급급하여 세속에서 물든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道에 이룬 선비가 적다고 설명하고 스승이 없다면 경전을 스승으로 삼아 道에 이를 수 있게 하여야 하고 道에 이르면 내면이 충실해져서 문장으로 발휘된다고 설명하면서 내면을 수양하여 道에 이르는 것이 문사를 다듬는 것보다 먼저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세상에 스승이 없는 경우 (世無師矣)를 이야기함으로써 당시 문단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학자들 대부분이 문사에만 힘쓰는 현실 속에 올바른 스승을 찾기 어려우면 경전을 스승으로 삼아 道에 이르기 위해 수양해야 함을 강조하여 문체의 복고와 함께 옛 儒學의 道를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與樂秀才第一書」에서도 前人을 모범삼아 내면을 충실하게 하여야 함을 강

91) “某聞古之學者必嚴其師，師嚴然後道尊，道尊然後篤敬，篤敬然後能自守，能自守然後果於用，果於用然後不畏而不遷。三代之衰，學校廢。至兩漢，師道尚存，故其學者各守其經以自用。是以漢之政理文章與其當時之事，後世莫及者，其所從來深矣。後世師法漸壞，而今世無，則學者不尊嚴，故自輕其道。輕之則不能至，不至則不能篤信，信不篤則不知所守，守不固則有所畏而物可移。是故學者惟俯仰時，以希祿利爲急，至於忘本趨末，流而不返。夫以不信不固之心，守不至之學，雖欲果於自用，莫知其所以用之之道，又況有祿利之誘刑禍之懼以遷之哉！此足下所謂志古知道之士世所鮮而未有合者，由此也。 ……夫世無師矣，學者當師經。師經必先求其意，意得則心定，心定則道純，道純則充於中者實，中充實則發爲文者輝光，施於事者果毅。”，歐陽修，「答祖擇之書」，『歐陽修全集』卷六十九，pp1009-1010.

조하면서 문사에만 힘을 기울이는 것을 비판하였다.

“듣기로 옛사람의 학문은 깊이 연구하고 그 믿음이 도타웠습니다. 그 내면이 충실한 후에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매우 빛이 났습니다. 대저 금과 옥의 아름다운 광채가 갈고 장식하고 색을 들이고 닦아서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성질이 견실해서 그 광채가 자연스럽게 빛을 내는 것입니다. 『易』의 「大畜」에서 말하기를 ‘강건하고 독실하면 그 광채가 매일 새롭다.’고 하였습니다. 「畜」에서 말하는 것은 그 내실을 충실하게 하고 난 후에 그 빛이 더욱 빛나며 나날이 새로움을 더하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글에서 말하길, ‘군자는 前人들의 좋은 언행을 학습하여 자신의 품덕을 닦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 지금의 학자들은 혹 그렇지 아니하여 깊이 공부하지도 않고 믿는 것이 도탑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 언사만을 공교하게 하여 문장을 화려하게 하여 그 말을 위대하게 보이도록 꾸밈니다. 대저 문사에만 힘을 기울이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한계가 있는 것은 쉽게 바닥나기 마련입니다. 또한 그들이 짓는 문장은 옛 사람들의 모범적 문장을 본받지 않으니 세속이 좋아하는 바에 따라 태도가 변하게 되어 스스로의 풍격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내면의 충실함이 부족하여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sup>92)</sup>

또 「送徐無黨南歸序」에서도 옛날부터 언사만 다듬고 화려하기만 한 문장은 아무리 많아도 오래 전하지 못한 것을 예로 들면서 道는 없고 문사만 공교히 하는 당시의 학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내가 班固의 『藝文志』 와 唐의 『四庫書目』을 읽고 나니 그 속의 모든 사례가 삼대로부터 진, 한 이래로 글을 지은 사람들이 많은 자는 백여 편,

---

92) “聞古人之於學也, 講之深而信之篤, 其充於中者足, 而後發乎外者大以光. 譬夫金玉之有英華, 非由磨飾染濯之所爲, 而由其質性堅實, 而光輝之發自然也. 『易』之『大畜』曰: ‘剛健篤實, 輝光日新.’ 謂夫畜於其內者實, 而後發爲光輝者日益新而不竭也. 故其文曰 ‘君子多識前言往行, 以畜其德’, 此之謂也. …… 今之學者或不然, 不務深講而篤信之, 徒巧其詞以爲華, 張其言以爲大. 夫強爲則用力艱, 用力艱則有限, 有限則易竭. 又其爲辭不規模於前人, 則必屈曲變態以隨時俗之所好, 鮮克自立. 此其充於中者不足, 而莫自知其所守也.”, 歐陽修, 「與樂秀才第一書」, 『歐陽修全集』卷七十, p1024.

적은 자는 삼, 사십 편에 이르니, 그 사람들을 모두 수로써 셀 수는 없으나, 모든 저서가 흩어지거나, 없어져서 백분의 하나 둘만이 남아있다. 난 감히 그 사람들을 슬퍼하니, 문장은 아름답고 언사를 공교히 하였지만 초목의 영화가 바람 속에 사라지는 것 같으며 새와 짐승의 아름다운 울음이 귀를 스치는 것과 같을 뿐이다. 그 마음 씀과 노력이 凡人들의 사업과 무엇이 다른가? 그러나 홀연히 죽는 것이 비록 느린 가, 빠른 가 만 있을 뿐이며 죽은 다음엔 모두 없어지는 것이다. 무릇 언사란 믿을 만한 것이 못되니 대개 이와 같은 것이다. 오늘날의 학자라는 사람들은 옛 성현들의 불후함은 흠모하지 아니하고 일생을 문자를 다듬는데 힘을 다 쏟으니 모두 슬퍼할 만하다.”<sup>93)</sup>

위의 글들은 모두 道는 신지 않고 문사만 다듬고 공교히 한 문장들은 오래 전하여 지지 못하였음을 예로 들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문사를 다듬는데만 힘을 기울이는 당시의 학자들을 비판하고 애석해 하면서 문장에서 道를 신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일깨우고 개인의 수양이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歐陽修가 道의 수양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歐陽修는 道의 중요성만큼 文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이전 古文家들과 차별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의 古文家들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重道輕文하는 자세를 취했다고 할 수 있다. 北宋 古文運動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柳開의 경우는 文을 道를 전하는 통발(筌)로 비유하였으며 王禹偁은 ‘傳道以明心’의 견해를 밝혔으며 石介 역시 文보다는 道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고 심지어는 理學이 한창 흥성하였던 시기에는 ‘作文害道’로 까지 발전하였다.<sup>94)</sup>

93) “予讀班固『藝文志』、唐『四庫書目』，見其所列，自三代、秦、漢以來，著書之士多者至百餘篇，少者猶三四十篇，其人不可勝數，而散亡磨滅，百不一二存焉。予竊悲其人，文章麗矣，言語工矣，無異草木榮華之飄風，鳥獸好音之過耳也。方其用心與力之勞，亦何異衆人之汲汲營營？而忽焉以死者，雖有遲有速，而卒與三者同歸於泯滅。夫言之不可恃也蓋如此。今之學者，莫不慕古聖賢之不朽，而勤一世以盡心於文字間者，皆可悲也。”，歐陽修，「送徐無黨南歸序」，『歐陽修全集』卷四十四，p632.

94) “始於‘文以明道’的文道論，到了宋代理學家的手中，發生了本質的變化，從而走向了文、道絕對對立的極端。而從‘文以明道’到最終的‘作文害道’，其間經歷了一系列具體的轉折環節。”，馮仲平，「唐宋的文道論」，『東方叢刊』，1998년 제2집.

그러나 歐陽修는 이러한 重道輕文의 입장을 벗어나 道와 文을 함께 갖추어야 하는 文道并重의 입장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글 「代人上王樞密求先集序書」에서는 내용의 중요성과 함께 문사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제가 듣기로 傳에서 말하기를 ‘말에 문사가 없으면 그 행함이 멀리 가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는 군자의 배울 바로 말에는 사실을 싣고 문장에는 언사가 있어야 하니 사건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말에는 문사가 있어야만 후세에 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詩, 書 易, 春秋는 모두 사실을 잘 기재하고 또한 문사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 전한 것이 멀리까지 간 것입니다. … 그 다음으로 초나라에 대부(屈原)가 있었는데 그의 노래를 문사로 잘 나타내었기에 지금까지 전해졌습니다. 한나라가 태평성대일 때는 賈誼와 董仲舒, 司馬相如, 揚雄같이 문사에 능한 이들의 글이 전해졌습니다. 이후로는 성인과 멀어질수록 세상은 천박해지거나 쇠락하여, 아래로 周, 隋나라에 이르렀는데 그 시기에 때때로 문사에 뛰어나 말로써 전해지기도 했지만 모두 번잡하고 멀릴하여 순정치 못하여 믿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분의 일도 전하여지지 않았습니니다.”<sup>95)</sup>

歐陽修는 ‘言之無文, 行而不遠.’에 대한 것을 詩, 書 易, 春秋 및 屈原, 賈誼와 董仲舒, 司馬相如, 揚雄의 예를 들면서 말에는 반드시 문사를 갖추어야 한다는 ‘文以飾言’을 강조하였다. 문사에 뛰어난 이들의 글만이 후세에까지 전해졌음을 강조하여 글에는 마땅히 문사를 갖추어야함을 설명한 것으로 문장에서 文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문학의 예술미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장에 실용을 담는 공리주의 문학이라 하더라도 예술적인

---

95) “某聞『傳』曰：‘言之無文，行而不遠。’君子之所學也，言以載事，而文以飾言，事信言文，乃能表見於後世。『詩』、『書』、『易』、『春秋』，皆善載事而尤文者，故其傳尤遠。… 其次楚有大夫者，善文其謳歌以傳。漢之盛時，有賈宜、董仲舒、司馬相如、揚雄，能文其文辭以傳。由此以來，去聖益遠，世益薄或衰，下迄周，隋，其間亦時時有善文其言以傳者，然皆紛雜滅裂不純信，故百不傳一。” 歐陽修，「代人上王樞密求先集序書」，『歐陽修全集』卷六十八，pp984.

면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道를 강조한 글에서조차 文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다. 「答吳充秀才書」에서는 道의 경계가 높아지면 글이 고매하게 된다고 하여, 고매한 문장을 이야기 하였고, 「答祖擇之書」에서는 “내면이 충실해지면 문장으로 발휘되어 빛이 나게 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모두 문장이 道와 함께 필연적으로 문사를 갖추어야 함을 설명한 것으로 공리주의적인 면과 예술적인 면이 합치되어야만 뛰어난 문장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리주의와 예술적인 면의 결합은 『論語』에 나오는 ‘文質彬彬’이라는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文이란 文采의 수식, 즉 문학의 예술미를 말한다고 할 수 있고, 質은 문학의 내용적인 면, 즉 공리주의적인 면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두 가지는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동등한 가치인 것이다.<sup>96)</sup> 이러한 개념은 儒學에서 文章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歐陽修는 이러한 儒學에서의 文에 대한 개념을 적극 수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歐陽修는 文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학의 예술성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고대의 문학은 經學의 범위를 탈피하지 못하였지만 魏晉시기부터 점차 발전하여 문인들은 점차 문학성이 짙은 작품을 쓰기 시작하였고, ‘四聲八病’설이 나타나면서 문학적 기교가 발전하였으며, 이로 인한 駢儷文의 형성과 발전은 문학의 발전을 촉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97)</sup> 이것은 문학이 단지 뜻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美를 지닌 예술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宋代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의 문학에 대한 심미안이 이미 높아져 있었다고 할 수 있었기에 단지 내용에만 충실하고 문학적인 예술미를 외면한 난삽한 글들은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宋初의 古文家들의 글이

96) “在儒家的傳統文化中, “文指”文采、修飾, “質”指實質、內實, 從上述『春秋左氏傳』和『論語』的記述可以明白, “文”與“質”不可割裂, 具有同等的價值.”, 東英壽, 상계서, p145.

97) 李淑芳, 상계서, p32 참조.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는 穆修의 글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答喬適書」에서 당시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 동안 홀로 감히 古文을 하는 사람은 괴상한 말을 하는 사람과 같이 여겨졌다. 사람들은 또한 그것을 배척하고 책망하며, 보려고 하지 않아 그 기세를 꺾어버리니, 곧 손가락질하여 미혹하게 한다 하고, 그것을 일컬어 시대에 맞지 않아 명성에서 멀어지게 하고 부귀에서도 멀어지게 한다.”<sup>98)</sup>

이에 歐陽修는 前人들의 성과를 기초로 하여 자신만의 古文의 풍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時文이라 하여 당시 유행하던 駢儷文을 크게 비판하면서도 古文 안에 時文을 수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論尹師魯墓誌銘」에서

“駢體의 문장이 만약 이치에 합당하다면 반드시 배척할 필요는 없다.”<sup>99)</sup>

라고 하였으며 「與荊南樂秀才書」에서는 다음과 같이 駢儷文의 업적을 평가하였다.

“時文이 비록 내용이 없고 문사만 공교하다고 해도 그 공은 가벼운 것이 아니다.”<sup>100)</sup>

또한 「蘇氏四六」의 試筆에서는 蘇氏父子의 駢儷文을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하였다.

“지난 날 四六文을 지은 자들은 옛사람들의 언어와 고사를 광범위하게 사 용하여 그 박학함을 자랑하였으나, 사실을 기술하려 하지 않아 유창하지 못

---

98) “其間獨敢以古文語者，則與語怪者同也。衆又排詬之，罪毀之，不目以爲迂，則指以爲惑，謂之背時遠名，闕於富貴。”，穆修，「答喬適書」，顧易生·蔣凡·劉明今，상계서，p61에서 재인용.

99) “偶儷之文苟合於理，未必爲非”，歐陽修，「論尹師魯墓誌銘」，『歐陽修全集』卷七十二. p1046.

100) “夫時文雖曰浮巧，然其爲功，亦不易也.”，歐陽修，「與荊南樂秀才書」，『歐陽修全集』卷四十七. p661.

하였다. 근래의 時文으로 쓴 문장은 문체가 변하여, 蘇氏 부자 같은 이들이 四六文으로 쓴 것은 완곡하여 정밀하여 옛 사람들에 뒤지지 않는다. 학자들이 변격으로 글을 짓는 것이 근 30년에 이르러 비로소 이들과 같은 이들을 얻었다.”<sup>101)</sup>

歐陽修는 단지 문사에만 치중하고 내용이 없는 駢儷文은 배척하였으나 완곡하고 내용이 정밀한 駢儷文은 극찬하였다. 이것은 歐陽修가 내용과 문사가 뛰어난 駢儷文은 수용하였으며, 駢儷文의 문학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西崑體의 대가인 楊億에 대한 평가 역시 “진실로 일대의 문호로다”<sup>102)</sup>라고 하여 낮게 보지 않았으며 歐陽修 자신도 西崑體에서 취한 바가 있었다.<sup>103)</sup>

이처럼 歐陽修는 학자의 인격수양을 중시하였으며 문장에는 道를 실어야 한다는 重道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文의 역할까지 중시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文道并重의 입장을 취하였으며 이는 文의 예술적인 미를 인정하여 駢儷文까지 수용함으로써 古文運動의 문학적 가치를 더욱 높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歐陽修는 「梅聖俞詩集序」에서 ‘窮而後工’이라는 문학이론을 주장하였다. 梅聖俞는 본명이 梅堯臣으로 정치적으로 뜻을 얻지 못하여 미관말직에 머물렀으나, 詩壇에서는 北宋의 유명한 현실주의 시인으로 歐陽修와 함께 ‘歐梅’로 불렸다.<sup>104)</sup> 「梅聖俞詩集序」는 梅堯臣 死後에 쓰여진 글로, ‘窮而後工’은 梅堯臣이 정치적으로 불우했던 상황을 애석하게 여기면서 한 말이다.

“내가 듣기로 세상에서 말하길 시인은 영달한 사람이 적고 가난한 사람은

---

101) “往時作四六者多用古人語, 及廣引故事, 以銜博學, 而不思述事不暢. 近時文章變體, 如蘇氏父子以四六術敍, 委曲精盡, 不減古人. 自學者變格爲文, 迨今三十年, 始得斯人.”, 歐陽修, 「試筆·蘇氏四六」, 『歐陽修全集』卷一百三十, p1983.

102) “真一代之文豪也.”, 歐陽修, 「歸田錄」, 『歐陽修全集』卷一百二十六, p1923.

103) 명나라 사람 張綬는 「刊西崑體詩集序」에서 ‘歐陽修가 西崑體로부터 취한 것도 있다(六一翁……然亦未嘗不有取於崑體也)’고 서술하였다. 송용준·오탈석·이치수, 『宋詩史』, 역락, 2004, p183 참조.

104) 陳必祥, 『歐陽修散文選集』, 上海古籍出版社, 1997, p289 참조.

많다고 한다. 어찌 그리한가? 세상에 전해지는 시는 대부분 옛날부터 가난하여 뜻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글이다. 무릇 선비들이 수양해 온 것들이 세상에서 시행될 수 없을 때에, 대부분 산이나 물가 등으로 방랑을 하며 벌레나 물고기, 풀과 나무, 바람과 구름, 새와 짐승 등을 들여다보고 종종 그 괴함을 세심하게 탐구하여 묘사하기도 한다. 마음속에 맺혀 있는 울분이 원망과 풍자하는 마음을 만들어내어 외지에 편적된 신하나 과부의 비탄을 토로하여 말로 하기 어려운 사람의 감정을 써내려가니, 궁핍 할수록 더욱 공교해지는 것이다. 즉, 시가 사람을 궁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사람이 궁핍하게 된 후에야 시가 훌륭해지는 것이다.”<sup>105)</sup>

이러한 ‘窮而後工’의 관점은 司馬遷이 「太史公自序」에서 말한 ‘發憤著書’와 韓愈가 「送孟東野序」에서 언급한 ‘不平則鳴’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작가가 개인의 뜻을 펴지 못하여 울분이 쌓이면 글로써 나타낸다는 것으로 현실을 문학에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당시에 현실과 문학을 연결해야 한다는 歐陽修의 일관된 주장이기도 하였다. 특히 이미 詩名을 떨쳤으면서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梅堯臣의 처지를 누구보다 안타깝게 여겼으며 그의 뛰어난 재주를 알면서도 천거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의 재주가 늙어감을 아쉬워하였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으나 윗사람에게 천거하지 않았다. 옛날 王文康公이 일찍이 그의 시를 보고 감탄하여 말하길, ‘이백 년간 이런 작품은 없었다.’라고 그것을 깊이 감탄하였으나, 역시 추천하여 주지는 않았다. 만일 그가 다행히도 조정에서 쓰임을 받았다면, 「雅」와 「頌」을 지어 우리 大宋나라의 공덕을 노래하여 宋나라의 종묘에 바쳐져서 商, 周, 魯나라의 頌을 잇게 되었다면 어찌 위대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그로 하

105) “予聞世謂詩人少達而多窮。夫豈然哉? 蓋世所傳詩者, 多出於古窮人之辭也。凡士之蘊其所有而不得施於世者, 多喜自放於山巔水涯。外見蟲魚草木風雲鳥獸之狀類, 往往探其奇怪; 內有憂思感憤之鬱積, 其興於怨刺, 以道羈臣、寡婦之所歎, 而寫人情之難言; 蓋愈窮則愈工。然則非詩之能窮人, 殆窮者而後工也。” 歐陽修, 「梅聖俞詩集序」, 『歐陽修全集』, 卷四十三, p612.

여금 뜻을 얻지 못한 체 늙어가게 하여, 궁핍한 자의 시를 쓰게 하여, 곤충이나 물고기 따위를 좇아 떠도는 이의 우수나 감탄의 말을 하게 하는 것인가?”<sup>106)</sup>

한 가지 주지할 점은 이 글에서 “「雅」, 「頌」을 지어 우리 大宋나라의 공덕을 노래하여 宋나라의 종묘에 바쳐져서 商, 周, 魯나라의 頌을 잇게 되었다면 어찌 위대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한 부분이다. 歐陽修는 石介가 ‘雅頌功德’의 글을 짓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문장은 현실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作爲雅頌, 歌詠大宋之功德’이라는 부분은 歐陽修의 문학에 대한 태도의 모순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sup>107)</sup> 그러나 歐陽修가 이 글에서 말한 ‘作爲雅頌, 歌詠大宋之功德’은 그의 문학의 전반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뜻을 펴지 못한 벗의 文才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歐陽修는 「薛簡肅公文集序」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군자의 학문은 사업에서 시행되거나 혹은 문장에서 나타나는데 항상 두 가지를 겸하기가 어려움을 근심한다. … 뜻을 잃은 사람에 이르면 은거하여 곤궁하게 되고, 괴로운 마음과 위기에 대한 걱정으로 정밀한 생각이 극에 이른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감격과 울분이 세상에 시행될 곳이 없으니, 모두가 문사에 기탁된다. 이 때문에 말하길, ‘곤궁한 자의 말은 쉽게 훌륭해진다’고 하는 것이다.”<sup>108)</sup>

---

106) “世既知之矣, 而未有薦於上者. 昔王文康公嘗見而歎曰: ‘二百年無此作矣!’ 雖知之深, 亦不果薦也. 若使其幸得用於朝廷, 作爲雅頌, 以歌詠大宋之功德, 薦之清廟, 而追商、周、魯『頌』之作者, 豈不偉歟! 奈何使其老不得志, 而爲窮者之詩, 乃徒發於蟲魚物類、羈愁感歎之言.” 歐陽修, 「梅聖俞詩集序」, 『歐陽修全集』卷四十三, p612.

107) 顧易生·蔣凡·劉明今, 상계서, p83 참조.

108) “君子之學, 或施之事業, 或見於文章, 而常患於難兼也. …… 至於失志之人, 窮於隱約, 苦心危慮, 而極於精思, 與其有所感激發憤, 惟無所施於世者, 皆一寓於文辭. 故曰: 窮子之言易工也.” 歐陽修, 「薛簡肅公文集序」, 『歐陽修全集』卷四十三, p618.

이 글에서도 ‘窮而後工’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니 이러한 현실 속의 불만이나 비분을 글로 나타내는 것은 歐陽修의 문학의 현실참여라는 일관된 문학관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새로운 창작론 확립 - 簡而有法과 平易自然

‘簡易有法’은 歐陽修가 「論尹師魯墓誌銘」에서 제시한 문학 이론이다. 尹師魯의 이름은 尹洙이며 歐陽修와 정치상, 문학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歐陽修는 尹洙와 교우하기 이전부터 古文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진사 급제 칠년 후 尹洙와 교유하면서 古文창작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記舊本韓文後」에서도 밝히고 있으며<sup>109)</sup> 錢惟演의 막부에서 錢惟演의 명령으로 글을 짓게 된 尹洙와 歐陽修의 일화에서도 歐陽修가 尹洙로부터 古文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10)</sup> 때문에 歐陽修는 작품을 간결하게 하는 것을 작품의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歐陽修 古文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尹洙는 慶曆 7년에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은 후 가난하게 살다가 외롭게 죽었다. 2년 후 歐陽修는 죽은 친구를 애통해하며 「尹師魯墓誌銘」을 지었으나 尹洙의 가족들이 ‘글이 너무 간결하다’하여 韓琦에게 부탁하여 墓表를 짓기도 하였으므로 「論尹師魯墓誌銘」을 지어 자신이 글을 쓴 뜻을 밝혔다.<sup>111)</sup>

“「尹師魯墓誌銘」에서 말하길 師魯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모

109) “後七年，舉進士及第，官於洛陽，而尹師魯之徒皆在，遂相與作爲古文。” 歐陽修，「記舊本韓文後」，『歐陽修全集』卷七十三，p1056.

110) 錢惟演은 歐陽修와 尹洙에게 記文을 짓도록 명령을 내렸다. 歐陽修가 먼저 친여 자로 記文을 완성하였다. 尹洙가 말하길 단지 오백 자면 記文을 지을 수 있다 하고 記文을 지었다. 歐陽修가 그의 간결한 古文에 탄복하여 이로부터 古文을 짓기 시작하였다. “錢文僖公〔惟演〕……命永叔師魯作記。永叔文先成，凡千餘言。師魯曰……某止用五百字可記。及成，永叔服其簡古，永叔自此始爲古文。” 邵伯溫，「邵氏聞見錄」，卷八.

111) 陳必祥，상계서，p221 참조.

두 師魯의 학문과 의론과 재능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즉 학문의 뛰어남과 의론의 고매함, 재능이 뛰어난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또 나는 이것이 너무 간결할까봐 그 사실을 분석하여 뒤에 다시 이야기하였다. 그 글에서 서술하길 ‘간결하면서도 법도가 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孔子의 六經에서도 오로지 春秋에만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경전은 孔子 스스로 작성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법도가 있더라도 간결하지가 않다. 나는 師魯의 글을 박하게 평가한 것이 아니다. 세상의 식견이 없는 사람들이 문장의 경중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 말의 많고 적음만을 책망하여 師魯의 문장이 한 마디말로 평함이 적당치 않다고 말한다. …… 그의 큰 절개는 仁과 義를 도답게 하는 것이며,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출세를 하거나 화를 만나도 복을 만나도 옛사람에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 사실을 다 열거할 수 없기에 중요한 것 한두 가지의 일만을 기록하여 믿을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어 范仲淹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 스스로 같이 폄적되길 청한 것이나 죽음에 임하여서도 자신의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은 것이 그러하니 곧 평생 동안 충성하고 의로웠음을 알 수 있으며, 그가 가난하거나 출세하였거나 화복을 만나더라도 옛사람에 부끄러움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 春秋의 필법에 따르면 슬픔이 더 할수록 그 인사는 더욱 깊어진다고 하였으니, ‘자반이 죽다’라고 한 것이 그러하다. 시경을 쓴 사람의 뜻은 책망하면 할수록 그 인사는 더욱 완곡해진다고 했는데 ‘군자는 해로한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하늘에 외치고 엎드려 통곡한 후에라야만 師魯의 원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師魯에게 써준 비문이 ‘깊이깊이 묻고 견고하게 봉하였다. 들은 없어질지라도 비문은 없어지지 않으리.’이다. 그 뜻은 세상에 말로 다 알릴 수 없더라도 깊이 견고하게 이 묘지명을 묻어놓는다면 그것이 썩지 않으면 후세에 반드시 師魯를 알아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언사가 완곡할수록 그 의미는 더욱 절절한 것이 시를 쓴 작가의 뜻이다. …… 내가 보기에 韓愈가 孟郊와 연작시를 지을 때는 孟郊의 시처럼 하였으며 樊宗師의 뜻을 나타낼 때엔 樊宗師의 글처럼 하였다. 이 묘지명도 이와 같아서 師魯의 뜻처럼 뜻은 깊게 하고 인사는 간결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師魯의 문장이 간결하고 뜻이 깊었기 때문이다. 또 평소에 작문을 할 때에도 師魯에게 보여주면 설령 한 번에 여러 줄을 보더라도 내 뜻을 금방 이해하였기에 만일 죽은

師魯가 이 묘지명을 본다면 반드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죽은 친구를 위로할 뿐이지 어찌 세간의 소인배들의 의견에 구애받겠는가?”<sup>112)</sup>

「尹師魯墓誌銘」에서 歐陽修는 尹洙의 글을 평가하면서 “간결하면서도 법도가 있다”라고 평가하였으며 六經 중에서도 孔子가 직접 쓴 春秋와 같이 높이 평가하였다. 법도가 있어도 간결하지 않은 문장은 그 아래로 두었으니, 간결함은 歐陽修가 추구하는 최고의 문학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위의 글에서 간결함에 대해 설명한 글을 찾아본다면 ‘그 사실을 다 열거할 수 없기에 중요한 것 한두 가지의 일만을 기록하여 믿을 수 있게 하였다.(其事不可遍舉, 故舉其要者一兩事以取信)’ 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劉子健이 『歐陽修的治學與從政』에서 밝힌 바인 ‘大節만을 기록한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sup>113)</sup> 이것은 글에서 불필요한 말들을 없애고 간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尹師魯墓誌銘」에서도 尹洙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기 보다는 ‘옛 군자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無愧於古君子).’, ‘간결하면서 법도가 있다.(簡而有法)’, ‘고금에 통달하였다.(通知古今)’,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여 도리를 따짐에 온 힘을 다하였다.(是是非非, 務窮盡道理)’ 등의 말로 설명하고 있다.

---

112) “誌言天下之人識與不識, 皆知師魯文學、議論、材能. 則文學之長, 議論之高, 材能之美, 不言可知. 又恐太略, 故條析其事 再述於後. 述其文, 則曰簡而有法. 此一句, 在孔子六經惟『春秋』可當之, 其他經非孔子自作文章, 故雖有法而不簡也. 修於師魯之文不薄矣, 而世之無識者, 不考文之輕重, 但責言之多少, 云師魯文章不合祇著一句道了. ……其大節乃篤於仁義, 窮達禍福, 不愧古人. 其事不可徧舉, 故舉其要者一兩事以取信. 如上書論范公而自請同貶, 臨死而語不及私, 則平生忠義可知也, 其臨窮達禍福不愧古人又可知也. ……『春秋』之義, 痛之益至則其辭益深, “子般卒”是也. 詩人之意, 責之愈切則其言愈緩, “君子偕老”是也. 不必號天叫屈, 然後爲師魯稱冤也. 故於其銘文, 但云“藏之深, 固之密, 石可朽, 銘不滅”, 意謂舉世無可告語, 但深藏牢埋此銘, 使其不朽, 則後世必有知師魯者. 其語愈緩, 其意愈切, 詩人之義也. ……修見韓退之與孟郊聯句, 便似孟郊詩; 與樊宗師作誌, 便似樊文. 慕其如此, 故師魯之誌用意特深而語簡, 蓋爲師魯文簡而意深. 又思平生作文, 惟師魯一見, 展卷疾讀, 五行俱下, 便曉人深處. 因謂死者有知, 必受此文, 所以慰吾亡友爾, 豈恤小子輩哉!”, 歐陽修, 「論尹師魯墓誌銘」, 『歐陽修全集』卷七十二, pp1045-1046.

113) 劉子健은 『歐陽修的治學與從政』에서 簡而有法에 대하여 “1. 要著重大節. 2. 要有內容, 而內容要信實. 3. 要注意修辭.”라고 설명하였다. 劉子健, 상계서, p86 참조.

歐陽修的 간결함에 대한 추구는 다른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내가 옛날의 소위 현인군자와 공신열사의 명문이 후세에 잘 알려지게 된 까닭을 헤아려보니, 요컨대 그 문장이 간결했기 때문이다.”<sup>114)</sup>

“저는 문자는 간략하게 하고 큰 사건만을 적어야만 그 글이 오래 멀리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sup>115)</sup>

歐陽修는 또한 ‘簡而有法’은 春秋의 필법이라고 하였는데 「論尹師魯墓誌銘」에서 春秋필법에 대하여 ‘슬픔이 깊을수록 언사가 깊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언어의 선택에 신중함을 말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예로 ‘子般卒’을 들었다. 子般은 魯나라 莊公의 태자지만 임금으로 즉위하였다가 慶父가 보낸 사람에게 살해되었는데 이것을 기술했을 때 孔子는 子般이 즉위하였음에도 작위 대신 이름을 그대로 썼으며 殺대신 卒자를 씀으로 당시의 상황을 함축적으로 담았다고 할 수 있다.<sup>116)</sup> 이로 미루어 보면 歐陽修가 春秋필법이라고 한 것은 간결하면서도 함축적인 필법을 말한 것이라고 알 수 있다. 때문에 簡而有法 역시 이처럼 문장을 간결하게 하면서도 내용이 함축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詩經의 작가의 뜻을 빌어 ‘有法’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책망하면 할수록 그 언사는 더욱 완곡해진다.’, ‘언사가 완곡할수록 그 의미는 더욱 절절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詩經은 五經의 하나로 위의 글에서 春秋 이외의 글은 법도는 있으나 간결하지 않다고 한 것에 미루어 볼 때 문장에 내포된

114) “予考古所謂賢人、君子、功臣、烈士之所以銘見於後世者，其言簡而著。”，歐陽修，「內殿崇班薛君墓表」，『歐陽修 全集』卷二十四，p376.

115) “緣修文字簡略，止記大節，期於久遠。”，歐陽修，「與杜訢論祁公墓志書」，『歐陽修 全集』卷七十，p1020.

116) 노장시, 『「論尹師魯墓誌銘」을 통해 본 歐陽修의 碑誌文의 창작이론』, 중국어문학 제47집, 2006년, pp9-10 위의 논문에서 子般卒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주석을 인용하였는데 그 주석은 다음과 같다. ‘先君의 장례를 아직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작위를 칭하지 않았고, 殺자를 쓰지 않은 것은 殺자가 그의 이름인 般자와 글자모양이 비슷하여 피한 것이다. (先君未葬，故不稱爵；不書殺，諱之也)’

함축적 의미를 깊게 하는 것이 ‘有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何寄澎은 「歐陽修古文理論的核心-試論‘簡而有法’」에서 ‘簡而有法’은 일종의 특별하고 근엄한 行文방법으로 깊은 뜻을 글자 이외에 기탁하였기 때문에 필요 없는 글자를 없애서 글을 번잡하지 않게 하되 그 의미는 더 깊게 하는 것이 곧 ‘簡而有法’이라고 설명하였다.<sup>117)</sup> 歐陽修는 尹洙의 글에 대해 ‘文簡而意深’이라고도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간결하면서도 뜻은 함축적이고 깊어야 한다는 것으로 글로 드러내지 않는 함축된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歐陽修는 簡而有法에 대한 이론을 자신의 작품에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朱熹의 『朱子語類』에 「醉翁亭記」의 字句수정에 대한 일화가 실려 있다.

“歐陽修의 문장에는 또한 고쳐서 기묘하게 잘 된 곳이 많다. 근래 어떤 사람이 醉翁亭記의 원고를 사왔는데 처음에는 滁州 사면에 있는 산에 대해서 수십 자로 표현되었으나 마지막으로 수정한 것은 ‘環滁皆山也’라는 다섯 자 뿐이었다.”<sup>118)</sup>

이러한 일화로 미루어 봐도 歐陽修가 ‘簡而有法’이라는 원칙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알 수 있으며, 碑誌文뿐 아니라 전반적인 문학작품에도 적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平易自然’은 ‘簡而有法’과 함께 歐陽修 문학 작품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歐陽修의 ‘平易自然’의 풍격은 西崑體뿐 아니라 당시 古文의 문제점을 해결

117) “我們仔細閱讀論尹師魯墓誌銘一文，可知當時歐陽的作法、歐陽的深意都不爲人了解。歐陽不斷地說…「誌言：天下之人識與不識，皆知師魯文學、議論、材能。則文學之長，議論之高，材能之美，不言可知。」「如：上書論范公而自請同貶，臨死而語不及私，則平生忠義可知也，其臨窮達禍福不愧古人又可知也。」「今止直言所坐，自然知非罪也」可見歐陽確實以一種特殊嚴謹的行文方法，把意義都寄託在言外。因爲寄託在言外，所以不煩廢辭。” 何寄澎，「歐陽修古文理論的核心-試論‘簡而有法’」，『唐宋古文新探』大安出版社，1998年，p129참조.

118) “歐公文亦多是修改到妙處，頃有人買得他醉翁亭記藁，初說州四面有山，凡數十字，末後改定只曰，‘環滁皆山也’五字而已”，노장시 역주，『新譯 歐陽修 散文選』，명문당，2004년，pp353-354 재인용.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는 西崑體 뿐 아니라 太學體도 유행하였는데 西崑體가 형식에 치중한 駢儷文이었다면 太學體는 형식에 치중한 古文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古文이라도 어려운 글자를 나열하거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문장이 유행하였다. 앞서서도 밝힌 바와 같이 歐陽修는 내용이 없는 형식주의 문장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古文이라도 難澁하기만 한 太學體는 반대하였으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과 역지로 조탁을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문장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平易한 문장을 주장한 사람은 歐陽修가 처음은 아니었다. 古文運動의 선구자인 柳開는 “古文이라는 것은 언사가 난삽하고 말이 꺾끄러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읽고 배우기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다.”<sup>119)</sup>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즉 사람들이 읽고, 배우기 쉽게 하는 것이 古文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王禹偁 역시 “가까이는 韓愈를 배우면, 문장은 말하기 쉽고, 뜻은 쉽게 깨닫는다.”<sup>120)</sup>라고 하여 平易한 古文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柳開는 자신이 밝힌 바와는 다르게 괴벽한 글로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하였고 이러한 괴벽한 古文은 石介에 이르러 太學體로 발전하였으며, 평이한 문장을 추구하던 王禹偁은 뒤를 이어 평이한 古文을 발전시킨 後學이 없었기에 平易한 古文은 맥을 잇지 못하였다.

歐陽修는 柳開와 王禹偁의 문학적 주장을 발전시켜 문장의 자연스러움과 平易함을 주장하였는데, 「與張秀才第二書」에서 “도는 알기 쉽고 또 범도에도 어긋나지 않으며 그 언사는 알기 쉽고 행할 수 있는 것(其道易知而可法, 其言易明而可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문장 역시 平易해서 알기 쉬워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의 견해는 唐代古文的 難易문제를 해결하고 宋代古文的 새로운 출구를 모색했다고 할 수 있다.<sup>121)</sup>

119) 각주 67) 참조.

120) 각주 70) 참조.

121) 이에 대해 대만의 何寄澎은 雄奇와 平易중에서 雄奇는 천부적인 재능에 의지해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平易는 배워서 이를 수 있는 것이기에 전대의 경험을 통해서 歐陽修는 平易한 문장이 당시 古文에 필요한 부분임을 간파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歐陽修所以做這樣的主張, 原因自非一端, 但當其回顧前代文風, 文雖代變, 却不出雄奇、平易二類, 而雄奇賴天才爲多, 平易則可學而至..長期經驗的累積,

당시에는 문학을 향유하는 계층이 넓어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문장이 필요하였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한 것이 歐陽修의平易한 문장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平易에 대한 추구는 당시 공리주의적인 분위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익히기 쉽고 행하기 쉬운 문장을 씀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經世致用’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할 수 있다.

歐陽修의平易한 문장에 대해 朱熹는 쉬운 글자나 자주 사용하는 글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道理를 쉽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sup>122)</sup> 즉 歐陽修는 문장에 상용하는 글자들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누구나 쉽게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歐陽修는 문장에 어려운 글자나 옛 글자를 사용하는 것을 극도로 기피하였는데 이는 宋祁와의 일화에서도 알 수 있다. 宋祁는 歐陽修와 함께 『新唐書』를 편찬하였는데 宋祁가 어려운 옛 글자를 즐겨 쓰는 것을 풍자하여 宋祁의 집 벽에 ‘宵寐匪禎, 扎闕洪休’라는 대련을 붙였다. 宋祁가 글을 어렵게 쓴 것을 괴이 여기고 묻자 歐陽修는 宋祁가 당시 『新唐書』에 쓴 글도 이와 같이 어렵다고 하여 宋祁에게 깨달음을 주었다고 한다.<sup>123)</sup>

이처럼 쉬운 글자의 사용은 문장을平易하게 하였다. 또한平易함과 동시에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였는데 歐陽修는 “孟子와 韓愈의 문장이 비록 뛰어나지만 반드시 그것과 비슷하게 쓸 필요는 없으니, 그 문장의 자연스러움을 취해야 한다.”<sup>124)</sup>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문장의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

---

促使他看出平易正是古文所需要的那個可大可久、可依可循的道路.”, 何寄澎, 『北宋的古文運動』, p206 참조.

122) “歐公文章及三蘇文, 好處祇是平易說道理, 初不曾使差異底字, 換却那尋常底字.”, 『朱子語類』卷一百三十九, 黃一權, 『歐陽修散文研究』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3년, p153 재인용.

123) “宋景文修唐史, 好以艱深之辭, 文淺易之說. 歐公思所以諷之. 一日大書其壁曰:‘宵寐匪禎, 扎闕洪休’ 宋見之曰: ‘非夜夢不祥, 題門大吉耶?何必求異如此?’ 歐公曰:‘李靖傳云‘震霆無暇掩聽’,亦是類也.’ 宋慙而退” 黃一權, 상계서, p157에서 재인용, 吳小林, 『中國散文美學』, 里仁書局, 1995년, p171 참조.

124) “歐云: 孟、韓文雖高, 不必似之也, 取其自然耳”, 曾鞏, 「與王介甫第一書」, 吳小林, 상계서, p170에서 재인용.

다. 이외에도 歐陽修는 「與澗池徐宰」에서도 간결함과 함께 자연스러움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저작한 것이 진실로 번잡하니, 그것을 매일 손수 가려 뽑아서, 조금씩 번잡함을 제거하면, 곧 뛰어난 문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억지로 힘쓸 필요는 없으니, 그것을 간결하게 하는 데에만 힘을 쓴다면, 유창하게 되지 못하므로, 그것이 자연스러움에 이를 때를 기다려 따르면, 그것이 마치 항상 마음에 있는 것과 같이 됩니다.”<sup>125)</sup>

이처럼 歐陽修는 간결함과 더불어 자연스러움을 주장하면서 의도적으로 기이하게 하는 것을 반대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문학적 주장을 담은 글은 또 있다.

“元結은 기이함을 좋아한 선비로, 그가 거했던 자연에는 반드시 스스로 이름을 붙이면서 오직 기이하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그리고 문장을 짓는 의도 역시 그러하였는데, 문장의 기세가 부족하였기에 문장의 운치를 남기는 것이 부족하였다. 군자가 불후한 명성을 얻고자 하면, 그 내실을 충실하게 하여 밖으로 드러나게 해야 하며, 반드시 자연스러움을 얻어야만 한다. 顏回는 쓸쓸히 누추한 거처에서 생활하여, 사람들이 그가 행하는 바를 보지 못했지만 그의 명성은 영원히 높았으니, 이것이 소위 자연스러움을 얻은 것이라 하겠다. 元結은 후세에 이름을 남기기에 급급하였지만 역시 이미 수고로운 것이었다.”<sup>126)</sup>

이처럼 歐陽修는 의도적인 기이함을 비판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기 위해 글을 조탁하고 아름답게 꾸미거나 혹은 기이함으로 자신을 드러내

---

125) “然著撰苟多, 他日更自精擇, 少去其繁, 則峻潔矣. 然不必勉強, 勉強簡節之, 則不流暢, 順待自然之至, 其如常宜在心也.”, 歐陽修, 「與澗池徐宰」, 『歐陽修全集』 卷一百五十, p2472.

126) “元結好奇之士也, 其所居山水必自名之, 惟恐不奇. 而其文章用意亦然, 而氣力不足, 故少遺韻. 君子之欲著於不朽者, 有諸其內而見於外者, 必得於自然. 顏子蕭然臥於陋巷, 人莫見其所爲, 而名高萬世, 所謂得之自然也. 結之汲汲於後世之名, 亦已勞矣.”, 歐陽修, 「唐元結陽華巖銘」, 『歐陽修全集』 卷一百四十, p2239.

려고 하던 당시 세태를 비판하고 바로잡으려 한 것이다.

歐陽修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그의 문학적 주장을 그의 작품 전반에도 실천하였으며 이러한 그의 작품에 대해 韓琦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景祐초에 公(歐陽修)과 尹洙가 古文을 숭상하기에 전념하였는데, 公의 문장의 자연스러움은 배워서 이를 수 있는 바가 아니며, 초연히 홀로 달리는 듯한 기상은 보통 사람들이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비유해 보면 천지의 오묘한 이치로 만물을 생성해내는데 있어 동물이나 식물, 세밀한 것과 큰 것을 막론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저절로 그 공교로움을 다하는 것과 같다. 이에 문풍이 변하여 당시의 사람들이 다투어 모범으로 삼았다.”<sup>127)</sup>

이처럼 歐陽修는 자신의 주장을 작품으로 잘 드러내어 당시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답안을 제시함으로써 古文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고, 文風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산문풍격은 宋代 이후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明·清代까지 이어졌다.<sup>128)</sup>

歐陽修가 이처럼 평이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추구한 원인에 대해 黃一權은 『歐陽修散文研究』에서 자연스러움을 좋아하는 기질과 성격이 평이하고 자연스러운 문학풍격을 형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sup>129)</sup> 劉寧은 개인과 사회, 도덕과 현실간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관념이 평이한 풍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sup>130)</sup> 이러한 설명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

127) “景祐初, 公與尹師魯專以古文相尚, 而公得之自然, 非學所至, 超然獨驚, 衆莫能及. 譬夫天地之妙, 造化萬物, 動者植者, 無細與大, 不見痕迹, 自極其工. 於是文風一變, 時人競爲模範.” 韓琦, 「文忠歐陽公墓誌銘」, 『歐陽修全集』附錄二 p2704.

128) “在歐陽修的倡導下, 平易暢達的文風不但成爲北宋散文的共同特點, 并影響至明、清兩代, 一直被後人奉爲學習的典範. 明代歸有光的散文明白而率真, 清代桐城派散文雅潔而有義法, 追根溯源, 都與歐陽修散文一脉相承.” 徐劍凌, 「歐陽修與北宋古文運動」, 『攀枝花大學學報』第17卷 第四期, 2000년, p31 참조.

129) “歐陽修的性格氣質傾向於非常喜歡不修飾不雕琢的自然之美. 這種傾向在他的作品中不時顯現出來……歐陽修喜歡自然的性格氣質對他重視自然的爲文思想產生了很大的影響, 他將這樣的爲文思想實踐在散文創作中因此自然平易的風格成爲他所創作的散文的突出特點.” 黃一權, 상계서, pp158-159 참조.

130) “歐陽修因提倡平易文風而帶來的散文藝術新變, 都和他的思想特色密切相關. 他那種立足現實, 力求協調個人與社會、道德與現實之間的矛盾以臻於和諧的觀念, 對平易風格的形成起了十分重要的作用.” 劉寧, 『歐

은 歐陽修의 ‘平易自然’의 풍격이 歐陽修의 기질에서도 영향을 받았지만 사회적인 필요성에 의해서도 형성되었다는 것이며 이것이 古文運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또 다른 이유였다고 할 수 있다.

## 2) 문체의 혁신과 실천

宋代는 唐代에 비하여 散文의 體裁가 더욱 발달된 모습을 보였다. 형식면에서 더욱 자유로워졌으며 내용과 소재도 더욱 풍부해졌다. 또한 詩話와 筆記, 文賦 등의 등장으로 散文에서 새로운 영역이 개척되기도 하였다.

歐陽修는 자신의 文學理論을 확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문학이론에 근거하여 後代에 모범이 될 만한 문장들을 지어냄으로써 古文運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문체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많은 작품을 썼으며 스스로가 散文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도 하였다.

먼저 歐陽修의 대표작인 「醉翁亭記」는 亭臺閣記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歐陽修는 「醉翁亭記」에서 駢儷文과 古文을 적절히 조화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는데 예를 들면 ‘日出而林霏開，雲歸而巖穴暝.(해가 뜨면 숲 속의 안개가 걷히고, 구름이 돌아오면 바위동굴 어두워지네)’, ‘野芳發而幽香，佳木秀而繁陰.(들꽃이 피어나니 향기가 은은하고, 아름다운 나무들은 울창하게 자라 녹음이 짙네)’, ‘臨谿而漁，谿深而魚肥.(계곡에 들어가 고기를 낚으니, 물은 깊고 고기들은 살찌있네)’와 같은 구절을 들 수 있다. 또한 ‘而’와 ‘也’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운율의 조화를 피하여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相州畫錦堂記」에서는 韓琦의 치적을 칭송하였고, 「菱溪石記」, 「伐樹記」, 「養魚記」에서는 의론을 가미하였으며, 「洛陽牡丹記」에서는 모란을 애호하는 풍습을 담았다. 이처럼 歐陽修는 記類散文에서 제재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

---

陽修提倡平易文風的思想淵源和時代意義』北京大學學報 95年 2期, p87 참조.

고 스스로의 독특한 문체를 이루어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전에는 경관이나 기물, 사건이 위주로 서술되었으나 歐陽修에 이르러서는 제재는 같더라도 주제는 인물의 치적이나 愛民, 의론 등 그 중심이 인물이나 인물의 정서와 관련된 것으로 옮겨갔다고 할 수 있다.

贈序類의 대표작으로는 「送曾鞏秀才書」, 「送徐無黨南歸序」 등이 있는데 「送曾鞏秀才書」에서는 과거에서 낙방하고 귀향하는 曾鞏을 애석해 하면서 과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送徐無黨南歸序」에서는 문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또 書序에서도 「梅聖俞詩集序」, 「蘇氏文集序」, 「釋秘演詩集序」 등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내용은 불우한 작가의 삶에 대한 연민과 작품집에 대한 애정이 나타나 있다. 歐陽修의 贈序類에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담긴 작품이 많다. 특히 위에 나열한 작품들은 대부분 재능이 뛰어난 인재가 때를 만나지 못하여 불우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그러한 인재들이 제때에 등용되지 못하는 당시의 정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

題跋類는 歐陽修의 「集古錄跋尾」이 題跋類의 선구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跋은 序文과 같은 성격의 문체이지만 책이나 글의 뒤에 놓이는 것을 말한다. 題跋과 같은 성격의 문장은 원래 唐代에 생겨나긴 했지만 수량이 매우 적고 형식과 내용 또한 한계가 있는 등의 이유로 본격적인 題跋은 歐陽修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31)</sup> 歐陽修는 단순히 저술을 의론하는 것에만 치중했던 이전의 題跋類의 내용을 확대하여 회화와 서법까지 대상으로 삼았으며 매우 다양한 격식을 내세우며 題跋의 기능을 의론 뿐 아니라 說理, 抒情, 記事, 寫人, 學術討論 등으로까지 제고시켰다.<sup>132)</sup> 宋代에는 題跋類의 문장이 발달하여 그 수량이 매우 많아졌으며 형식이 자유롭고 내용이 풍부해졌다. 歐陽修 역시 많은 題跋類의 산문을 남기고 있는데 그 수는 454편에 이른다.<sup>133)</sup>

碑誌類로는 「祭石曼卿文」, 「瀧岡阡表」, 「尹師魯墓誌銘」 등이 있다. 「祭石

131) 이승신, 「복송초 산문 문체의 변화와 발전에 대하여」, 『중국어문학지』 제19집, 2005년, pp 149-150 참조.

132) 이승신, 「복송초 산문 문체의 변화와 발전에 대하여」, p151 참조.

133) 楊慶存, 상계서, p203 참조.

曼卿文」에서는 쓸쓸한 무덤의 정경을 묘사하면서 친구에 대한 깊은 애도와 슬픔과 그리움을 나타내었다. 특히 ‘嗚呼曼卿!’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비통함에 우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주었다. 「瀧岡阡表」는 부친의 묘 앞에 세운 비석에 새긴 글이다. 이 글에서는 歐陽修 자신은 직접 본 적이 없는 아버지에 대한 사적에 신뢰를 주기 위하여 어머니의 말을 인용하여 아버지의 사적을 기록하였으며 중간 중간에 대화체를 섞어서 실제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처럼 내용에 신뢰를 주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본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남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南陽縣郡謝氏墓誌銘」도 그러한 형식을 취하였다. 歐陽修의 碑誌類는 개인의 사적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懷才不遇한 인물에 대해서는 정치적 환경에 대한 비판도 드러내었다.

宋代에 나타난 새로운 산문영역으로는 文賦와 詩話, 筆記를 들 수 있다. 宋代에 나타난 文賦는 옛 賦의 형식을 참작하여 만든 새로운 형식으로,<sup>134)</sup>古文이 성행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文으로써 賦를 쓰는 ‘以文爲賦’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歐陽修는 이러한 文賦 창작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작으로는 유명한 「秋聲賦」 외에도 「述夢賦」, 「憎蒼蠅賦」 등이 있다. 「秋聲賦」는 문답방식을 통해 보이지 않는 가을의 소리를 잘 묘사하였으며 스산하고 적막한 가을의 모습을 통해서, 나고 자라고 사라지는 자연의 이치를 담았으며 그것을 인간의 일과 결부시켜 자아해탈의 모습을 담고 있다. 형식면에서도 곱고 낭랑한 음운과 변화무쌍한 리듬, 뛰어난 서술 등으로 賦體의 특징을 잘 지니고 있어,<sup>135)</sup> 宋代 文賦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述夢賦」에서는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었고, 「憎蒼蠅賦」는 파리를 통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소인배들을 비유하여 질책하였는데 이러한 현실비판적인 자세는 歐陽修 작품 전반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134) 楊慶存, 상계서, p207 참조.

135) 노장시, 『新譯歐陽修散文選』, p501 참조.

詩話는 歐陽修의 「六一詩話」가 詩話라 명명한 최초의 작품이다. 내용은 시가의 이론과 창작방법, 작품감상과 유파에 대한 설명, 작가의 개성과 풍격, 字句의 단련, 시의 병폐 등 다방면에서 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일정한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써나갔으며 이러한 詩話는 의론을 좋아하는 宋代의 분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宋代 문인들에게 談詩에 대한 새로운 경계를 마련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筆記는 수필 형식의 산문으로 그 내용과 제재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형식 또한 자유롭다. 筆記라는 명칭은 宋代의 宋祁가 처음 사용하였다. 歐陽修는 筆記에서도 작품을 남겼는데 「歸田錄」을 들 수 있다. 「歸田錄」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조정과 사대부들의 이야기 및 宋 前期의 인물의 사적과 官制 등을 비교적 짧은 편폭으로 기록하였으며 문장이 평이하고 내용이 풍부하여 宋代의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 역사적 가치도 높다. 또한 이야기 속에 우회적으로 의론을 싣고 있어 자신의 文道觀까지 실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歐陽修는 산문의 모든 문체에서 대표작을 남기고 있다. 특히 산문에서는 이상적인 위정자상이나 사물에 의론을 가미하여 현실을 비판하는 등 문체에 상관없이 자신의 이상을 담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歐陽修의 문학관이 작품 전체에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치개혁과 사회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산문에 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형식면에서도 일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駢儷文까지 융합하여 散文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후대에 모범적인 작품들을 써냈다. 또한 筆記와 詩話, 文賦 등의 새로운 문체를 시도하여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 때문에 歐陽修의 문장은 당시에 이미 평판이 매우 높았으며 선비들의 숭상하는 바가 되었다. 『重修 神宗實錄』에 의하면 ‘歐陽修의 문장이 한번 나오니, 천하의 선비들이 모두 동경하여, 오히려 그것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하였다.’<sup>136)</sup>라고 하였다. 이처럼 歐陽修는 작품 활동에서도 선배 古文家들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 선비들이 모범을 삼을 만 하였

기에 古文運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歐陽修의 문학적 성과에 대하여 葉夢得的 『避暑錄話』에서 ‘慶曆 이후 歐陽修는 문장으로 천하의 제일이었다’<sup>137)</sup>고 하였다.

歐陽修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平易한 문장과 쉬운 어휘선택 그리고 현실을 반영하는 文道觀의 실천으로 후학들의 모범이 될 만한 문장을 써냈기에 후학들이 古文을 학습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으며 문학성이 뛰어난 문장을 써내어 古文도 駢儷文처럼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을 써낼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 활동은 歐陽修의 재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歐陽修는 뛰어난 작품을 써내기 위해 끊임없이 수정을 가하고 노력을 하였다. 때문에 歐陽修가 작품을 수정한 일화는 여러 가지로 전해져 온다. 한 가지 예를 들면 歐陽修가 韓琦가 세운 晝錦堂을 위해 記文을 써주었는데, 韓琦는 그것을 즐겨 감상하였다. 며칠 후 歐陽修가 새로운 것을 주고 이전 것을 돌려주기를 청하였다. 韓琦는 새로 받은 것을 몇 번이고 다시 보았으나 달라진 것을 찾지 못하였는데, 단지 ‘而’한 글자가 더 붙어있을 뿐이었지만 글의 의미가 더욱 유창해졌다<sup>138)</sup>고 하는 고사가 있으며 歐陽修가 말년에 관직에서 은퇴하고 은거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여러 번 수정하였는데 부인이 문기를 ‘이 문장들은 모두 직접 쓴 것인데 어찌 자꾸 고치십니까? 혹시 선생의 책망을 들을 것을 걱정함입니까?’하니 歐陽修가 웃으며 말하기를 ‘선생의 책망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후학들의 비웃음을 살까 걱정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sup>139)</sup> 이러한 일화를

136) “修文一出，天下士皆嚮慕，爲之惟恐不及。”『重修神宗實錄』，何寄澎，『北宋的古文運動』，p200에서 재인용.

137) “慶曆後，歐陽文忠以文章擅天下。”，何寄澎，『北宋的古文運動』，p201에서 재인용.

138) “韓魏公在相爲晝錦堂，歐公記之‘任官至將相，富貴歸故鄉’，韓公得之愛賞。後數日，歐復遣介，別以本至，曰：‘前有未是，可換此本。’韓再三玩之，無異前者，但於‘任官’‘富貴’下各添一‘而’字，文義尤暢。”『過庭錄』，何寄澎，『北宋的古文運動』p202에서 재인용.

139) ① “据明人顧元慶說，歐陽修致任後自編『劇士集』，常數十遍竄定舊文，廢寢望餐。夫人勸他：這些文稿都是你自己所寫，還再三修改，難道畏先生責怪？歐陽修笑答：‘不畏先生嗔，却怕後生笑。’劉衍「從唐宋兩次古文運動看歐陽修革新傳統散文的理論貢獻」，『中國文學研究』，1998年 第3期 p5참조.

미루어 보더라도 歐陽修가 자신의 작품에 많은 수정을 가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歐陽修는 자신의 작품을 자신의 문학관에 맞게 몇 번이고 수정을 가하여 완벽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 當代 최고의 문장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며 후학들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歐陽修의 뛰어난 문장들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古文 역시 문학성을 지닌 작품을 쓸 수 있음을 충분히 일깨워주었고 선망의 대상이 되게 하여 古文運動을 완성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문학 집단의 형성과 후진 양성

歐陽修가 古文運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뜻을 같이 한 집단을 형성하였으며 자신의 古文運動을 이어갈 후학들을 양성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었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였다. 이에 歐陽修가 이러한 문학 집단을 형성하게 된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보려고 한다.

歐陽修가 문학 집단을 형성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이전의 古文家들의 경험을 토대로 古文運動은 개인의 힘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간파하였기 때문이다. 宋初에 여러 古文家들이 古文을 부흥시키려 노력하였지만 개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후학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여 古文運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한 것이다. 歐陽修는 이러한 점을 간파하였다고 할 수 있다. 歐陽修는 韓愈가 古文運動을 성공시킨 사례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唐太宗의 다스림에 이르러 삼대의 왕까지 태평성대를 누렸으나, 유독 문장만이 조금도 그 문체가 변하지 않았으니 어찌 그 이어져온 습관의 기세

---

② “歐公晩年，嘗自竄定平生所爲文，用思甚苦，其夫人止之曰：‘何自苦如此？尙畏先生嘖邪？’公笑曰：‘不畏先生嘖，卻怕後生笑。’何寄澎『北宋的古文運動』，p202 참조.

가 아직 내려오고 또한 멀리 가는가? 오래지 않아 무리를 지어 그것을 뛰어 넘는다면 곧 빠르게 바뀔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현명한 사람들이 떨치고 힘을 내어 힘써 없애고 뽑아버리니, 元和년간에 이르러 거칠어진 땅이 바르게 되어, 아름다운 벼와 수려한 풀들이 다투어 나타나고 꽃이 피어나 열매가 영글어 눈앞에 나타났다.”<sup>140)</sup>

글에서 나타난 것처럼 歐陽修는 문체의 폐단은 쉽게 고치기 어렵다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현명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그 폐단을 고쳐 나간 韓愈의 古文運動을 주시하였다. 歐陽修도 과거에 급제한 후 錢惟演의 휘하에서 古文을 짓던 사람들과 교우하면서 古文을 짓게 되었으며 그때 함께 古文을 짓던 사람들은 모두 歐陽修의 정치적 동반자이자 문학적 동반자가 되었다. 이들은 함께 慶曆新政을 주도하였으며 慶曆新政이 실패로 끝나자 함께 폄적 당하였다. 이처럼 뜻을 함께한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한 것에 대하여 歐陽修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朋黨論」을 들 수 있다.

“대저 군자와 군자는 같은 도덕규범으로써 봉당을 이루며, 소인과 소인은 공동의 이익으로써 봉당을 이루니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때문에 소인은 소인들에게는 봉당이 없으며, 오로지 군자에게만 봉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인들의 좋아하는 바는 녹봉과 이익이니, 탐하는 것은 바로 재화일 뿐입니다. 이익이 같을 때에는 잠시 무리를 끌어다가 봉당을 삼지만 이는 거짓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익을 보면 앞을 다투지만 그 이익이 다하면 사귄도 소원하여지며, 심지어는 서로 해치기도 하니 비록 형제, 친척이라 하더라도 서로를 지키지도 못합니다. 때문에 저는 소인에게 봉당이 없으며 잠시 봉당을 이루더라도 거짓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군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도덕과 의로움이며 행하려 하는 것은 충성과 믿음이며, 소중히 여기는 것은 명예와 절개입니다. 이

---

140) “以唐太宗之致治，幾乎三王之盛，獨於文章不能少變其體，豈其積習之勢，其來也遠，非久而衆勝之，則不可以驟革也？是以羣賢奮力，壘闢芟除，至於元和，然後蕪穢蕩平，嘉禾秀草爭出，而葩華萑實爛然在目矣。”，歐陽修，「隋太平寺碑」，『歐陽修全集』卷一百三十八，p2179.

것으로써 수신하니, 지향하는 도덕이 같아 서로 이로우며, 이로써 국가의 사업을 시행함에 같은 마음으로 같이 구제하니, 시작부터 끝까지 한결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자의 봉당입니다.”<sup>141)</sup>

이처럼 歐陽修는 군자의 봉당을 긍정하였으며 문풍의 변혁에도 이와 같이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간파하고 이들을 규합하여 함께 문풍의 변혁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歐陽修의 문학 집단은 서로 문장을 지도하는 가운데 뛰어난 문학작품들을 써내면서 문풍의 변화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대표적으로 尹洙와 蘇舜欽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歐陽修가 문학 집단을 형성하게 된 이유는 歐陽修 자신이 사람들과의 교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歐陽修가 사람들과의 교우를 좋아한 것에 대하여 「冷齋夜話」에는 다음과 기록되어 있다.

“歐陽文忠公은 선비들을 좋아하는 것이 천하에서 제일이었다. 일찍이 孔融의 ‘자리에는 손님이 가득하고 술통에는 술이 빌 때가 없다.’라는 글귀를 암송하길 좋아하였다.”<sup>142)</sup>

이처럼 歐陽修는 사람들과의 교우를 좋아하였기 때문에 뜻이 같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시에는 사람들이 서로 모임을 갖고 서로 詩로써 창화를 하는 것이 유행하였는데 西崑派의 『西崑酬唱集』도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선비들과의 교우를 좋아하던 歐陽修의 성격과 당시에 서로 모여 詩로써 창화하던 사회적 분위기가 합

---

141) “大凡君子與君子，以同道爲朋，小人與小人，以同利爲朋，此自然之理也。然臣謂小人無朋，惟君子則有之，其故何哉？小人所好者祿利也，所貪者財貨也。當其同利之時，暫相黨引以爲朋者，僞也。及其見利而爭先，或利盡而交疏，則反相賊害，雖其兄弟親戚不能相保。故臣謂小人無朋，其暫爲朋者，僞也。君子則不然，所守者道義，所行者忠信，所惜者名節。以之修身，則同道而相益；以之事國，則同心而共濟，終始如一。此君子之朋也”，歐陽修，「朋黨論」，『歐陽修全集』卷十七，p297.

142) “歐陽文忠喜士，爲天下第一，嘗好誦孔北海‘座上客常滿，樽中酒不空。’何寄澎，『北宋的古文運動』，p210에서 재인용.

쳐져서 자연스럽게 문학 집단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歐陽修는 인재를 추천하는 일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歐陽修의 휘하로 모여들게 되었다. 이에 대해 『神宗實錄』에서는 ‘현명한 선비들을 추천하길 좋아하였으며 자신은 그 아래 있기를 좋아하여, 그의 문하에서 당시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다.’<sup>143)</sup>라고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蘇氏 三父子와 王安石, 曾鞏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歐陽修의 추천을 받아 발탁이 되었으며 문학 방면에서도 뛰어난 작품들을 써내어 宋代 六大家가 될 수 있었다.

歐陽修는 후학을 지도하는데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뛰어난 후학들을 많이 배출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歐陽修의 古文運動은 歐陽修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歐陽修의 많은 書簡文은 문장에 대해 물어온 후학들에게 답장으로 쓴 것인데 몇 가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선생의 문장은 호방하고도 기세가 세차서 가히 좋은 글이라고 할 만하며, 또한 도를 구하는 것에 뜻을 세우셨는데도 오히려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십니다. 만일 이처럼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孟子와 荀子の 경지에 이르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sup>144)</sup>

“수재의 문장은 고결하여 뜻하는 바가 심원하여 좋습니다만 지키려는 바가 일정하지 못하고 의론이 자세하지 못하니, 이것이 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건데 수재의 친구들 중에서 수재를 칭찬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만 지금 모두 그것을 버리고 멀리 저에게 물어 오시니, 수재께서 자신의 부족한 것을 찾으려함을 알겠으며, 이는 옛날 군자의 마음 씀이니, 이에 감히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sup>145)</sup>

---

143) “喜推轂賢士而身下之，一時聞人，多出其門。”，何寄澎，『北宋의 古文運動』，p211 재인용.

144) “先輩之文，浩乎霏然，可謂善矣，而又志於爲道，猶自以爲未廣。若不止焉，孟、荀可至而不難也。”，歐陽修，「答吳充秀才書」，『歐陽修全集』卷四十七 p664.

“저는 선생의 높고 웅건한 문장을 읽고 그 뜻이 매우 굳세고 힘이 넘치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그 기질이 뛰어난 좋은 준마와 같음을 알았으며, 큰 수레를 모는 王良의 준마처럼 방울소리도 요란하게 거리를 달리는 것 같고 그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내실을 충실히 하고자 한다면 그 배움을 깊이 하여야 하고 또 깊이 해야 스스로 지킬 바를 알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모두 문장이 될 것입니다.”<sup>146)</sup>

이처럼 문장에 대해서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학관에 의거하여 올바른 문장을 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때문에 歐陽修의 문학론의 많은 부분이 그의 書簡文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歐陽修가 지향하는 문풍이 後代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처럼 후학들을 지도하는데 적극적이었기에 古文運動이 歐陽修에서 끝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으며 蘇氏 三父子와 曾鞏, 王安石처럼 뛰어난 후학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曾鞏과 蘇軾은 歐陽修의 문장을 가장 잘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曾鞏은 歐陽修 본인이 자신의 문장 풍격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로 꼽았으며 蘇軾은 嘉祐2년 진사 시험에 2등으로 합격하였는데 당시 知貢舉인 歐陽修가 蘇軾의 문장을 읽고 장원으로 급제시키고 싶었으나 자신의 제자인 曾鞏의 문장이 아닐까 의심이 들어 2등으로 내렸다고<sup>147)</sup> 할 정도로 歐陽修의 문장을 닮았다. 특히 蘇軾은 歐陽修의 文道并重의 입장과 현실생활에서의 道에 대한 이해, 西崑體의 배척 등 歐陽修의 문학관을 이어받아 古文運動의 완성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148)</sup>

145) “足下之言高趣遠，甚善，然所守未一而議論未精，此其病也。竊惟足下之交游，能爲足下稱才譽美者不少，今皆捨之，遠而見及，乃知足下是欲求其不至，此古君子之用心也，是以言之不敢隱。”，歐陽修，「答祖澤之書」，『歐陽修全集』卷六十九，p1010.

146) “竊讀足下之所爲高健，志甚壯而力有餘。譬夫良駿之馬，有其質矣，使駕大輅而王良馭之，節以和 鑾而行大道，不難也。夫欲充其中，由講之深，至其深，然後知自守。能如是矣，言出其口而皆文”，歐陽修，「與樂秀才一書」，『歐陽修全集』卷七十，p1022.

147) “歐公知舉，得東坡之文，驚喜，欲取爲第一人，又疑爲門人曾子固之文，恐招物議，抑爲第二。”，楊萬理，『誠齋詩話』，노장시，『新譯歐陽修散文選』，p444에서 재인용.

### 3) 과거제도 개혁을 통한 古文 제창

歐陽修 이전의 古文運動家들이 古文運動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古文家들이 정치적으로 뜻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駢儷文을 즐겨 사용하였으며 과거에서도 詩賦를 우선으로 하였기 때문에 古文은 그 중요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급제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駢儷文을 공부하였으며 歐陽修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러한 사실은 아래의 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내가 어렸을 때 외롭고 가난하여 봉록을 받아서 모친을 봉양하고자 하였고 성인들의 업적을 배움으로써 경전을 궁구하고 배울 여가가 없었다. 그리하여 책과 역사를 섭렵하여 잠시 세속에서 쓰는 소위 時文이라는 것을 따라 지었으니 모두 경전을 좀먹어 해치고, 이것을 옮겨 저기에 짝지음으로써, 부박하기 짝이 없었으나 오히려 세인들이 좋아하지 아니할까 걱정하였으니, 옛사람들처럼 탁월한 자신의 견해가 없었다.”<sup>149)</sup>

“공께서 진사 과거를 보실 때 사람들은 四六文이라고 하는 時文을 공부하였다. 공께서 그것을 보시고 말하길 ‘이 글은 매우 부족하다.’ 하였으나, 모친을 봉양하기 위해 時文을 열심히 공부하니, 사람들이 공에 미칠 수가 없었다.”<sup>150)</sup>

이처럼 歐陽修는 時文이라 불리는 駢儷文의 병폐를 알고 있었지만 과거에 급제하기 위하여 駢儷文을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관직에 임용된 후에는 古文을 공부하였으며 駢儷文의 병폐를 고치고자 하였다. 당시 駢儷文은

148) 김계태, 「北宋 古文運動 전개과정상 蘇軾의 지위」, 『중국어문학논집』 제28호, 2004년, p359-379 참조.

149) “僕少孤貧, 貪祿仕以養親, 不暇就師窮經, 以學聖人之遺業. 而涉獵書史, 姑隨世俗作所謂時文者, 皆穿蠹經傳, 移此儷彼, 以爲浮薄, 惟恐不悅於時人, 非有卓然自立之言如古人者.”, 歐陽修, 「與荊南樂秀才書」, 『歐陽修全集』 卷四十七, p660.

150) “公之舉進士, 學者方爲時文, 號四六. 公就視之, 曰 ‘此不足爲’, 然切於養, 勉爲之, 而人亦不能及.”, 吳充, 「行狀·一」, 『歐陽修全集』 附錄, p2693.

詩賦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나 그 형식은 散文의 영역에서도 사용되고 있었다. 때문에 慶曆新政 당시에 문체 개혁에 뜻을 두고, 科擧의 개혁안에서 策과 論을 省試의 세 차례 시험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으로 정하고 원래 첫 번째 시험이었던 詩賦를 마지막 시험으로 놓아 策論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통상 첫 번째 시험의 성적이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전체 성적은 석차만을 결정할 뿐<sup>151)</sup>이었기에 과거에서 과목의 우선순위는 중요한 것이었다. 策論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에 駢儷文보다 古文이 더욱 유리함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으며, 비록 慶曆新政 실패 후 다시 詩賦가 첫 번째 시험으로 돌아왔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 古文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처럼 古文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가운데 石介가 太學에서 강의를 한 이후부터 괴벽한 古文인 太學體가 유행하게 되었다. 太學體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古文의 변체로 또 다른 형식주의 문풍이라고 할 수 있었기에 歐陽修가 추구하는 古文과 차이가 있었다. 歐陽修는 石介에게 ‘특이한 것을 좋아해서 높은 경지로 삼는다.’<sup>152)</sup>는 괴벽한 古文의 추구를 완곡하게 비평하여 “지금 급히 멈추지 않는다면, 후학들이 괴벽한 문풍을 좋아하게 되는 책임을 그대가 질 것이 두렵습니다.”<sup>153)</sup> 라고 충고하였다. 그러나 石介의 太學體는 크게 유행하게 되었고 이에 歐陽修는 古文의 문풍을 바로잡기 위해 그의 智貢擧라는 관직을 이용하여 문풍의 변화를 꾀하였다.

嘉祐 2년 歐陽修는 知貢擧가 되어 과거를 주관하면서 괴벽한 글은 탈락시키고 經世議論을 중시한 참신한 古文의 문장을 합격시켰다. 이 때문에 擧子들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祭歐陽修文’을 써서 歐陽修의 집에 던지기도 하였다.<sup>154)</sup> 그러나 이러한 반발 속에서 曾鞏과 蘇軾과 蘇轍형제를 급제시켜

151) 金諍 著(김효민역), 상계서, p193 참조.

152) “好異以取高”, 歐陽修, 「與石推官第一書」, 『歐陽修全集』卷六十八, p992.

153) “今不急止, 懼他日有責後生之好怪者”, 歐陽修, 「與石推官第一書」, 『歐陽修全集』卷六十八, p992.

154) 劉子健, 상계서, p90 참조.

실제로 古文에 뛰어난 인재를 얻게 되었다. 당시에는 劉幾라는 사람이 太學體의 고수였으나 歐陽修는 그의 글을 탈락시켰다. 몇 년 후에 歐陽修가 다시 과거의 심사관이 되어 劉晝라는 사람의 글을 합격시켰는데 嘉祐 2년에 탈락시켰던 劉幾라는 사람이 이름을 바꿔 응시한 것이었으니<sup>155)</sup> 이러한 일화는 歐陽修가 嘉祐2년의 과거를 통해 문풍의 변화에 성공하였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嘉祐2년의 과거에 대해 蘇軾은 “嘉祐 연간부터는 古文을 중시하여 策論이 세상에 성행하고, 詩賦는 침체하게 되었다”<sup>156)</sup>고 말하였으며, 歐陽修의 아들인 歐陽發은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嘉祐2년, 先公(歐陽修)께서 知貢舉가 되시었다. 그 당시에 배우는 사람들은 기험한 글을 숭상하여 문체가 크게 어그러졌다. 공께서 그 폐단을 크게 개혁하고자 하여, 당시에 괴벽한 글로 이름이 높은 자들을 모두 탈락시켰다. 蘇軾, 蘇轍형제가 四川에서 와서, 사람들이 그들을 몰랐으나, 빼어난 재주로 인해 높은 등수로 급제하였다. 榜이 붙자 시험을 본 자들이 소란을 피우며 놀라고 화가 나서 원망하는 비방을 하였다. 그 후에 점차 믿고 굴복하였다. 이에 오류년간 문의 격조가 변하여, 古文으로 돌아갔으니, 모두가 공의 노력이었다.”<sup>157)</sup>

이처럼 歐陽修는 문체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관직을 이용하였으며, 당시 공부를 하던 사람들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과거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古文을 적용시킴으로써 문풍을 바로잡고, 뛰어난 인재들을 배출하여 古文運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55) 金諍 著(김효민역), 상계서, pp194-197 참조.

156) “自嘉祐以來, 以古文爲貴, 則策論盛行於世, 而詩賦幾至於熄” 「擬進士對御試策」, 『蘇軾文集』卷九.

157) “嘉祐二年, 先公知貢舉. 時學者爲文以新奇相尚, 文體大壞. 公深革其弊, 一時以怪僻知名在高等者, 黜落幾盡. 二蘇出於四川, 人無知者, 一旦拔在高等, 榜出, 士人紛然, 驚怒怨謗. 其後, 稍稍信服. 而五六年間, 文格遂變而復古, 公之力也.”, 歐陽發, 「先公事迹·一」, 『歐陽修全集』附錄卷二, p2636-2637.

## V. 歐陽修의 古文運動과 新文化 추구

歐陽修의 古文運動은 문학에서 문체복고를 제창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문체복고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문화를 추구하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宋代는 이전 시대보다 사회구조가 훨씬 복잡해졌으며 서민계급의 성장으로 서민계층과 지배층의 벽이 낮아졌다. 때문에 이전 시대와는 다른 신문화를 건설할 필요가 있었으며 古文運動은 신문화 정립의 도구적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장에서는 古文運動과 新文化의 추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1. 문체 개혁을 통한 정치·사회의 혁신 추구

宋代는 이전 시대와는 달리 文人들의 정치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이다.<sup>158)</sup> 그 사실은 그 前代와 宋代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 詩로 이름 높은 李白과 杜甫를 배출한 唐代라 하더라도 과거의 문은 좁았고 관직은 문벌귀족들의 차지였기에 李白이나 杜甫는 높은 관직에 등용되지 못하였으며, 뛰어난 文人들이 높은 관직에 등용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宋代에 와서 文人 士大夫들의 정치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관직에 등용되는 길인 과거가 文才를 기준으로 하였기에 뛰어난 문인들은 과거를 통하여 관직에 등용되고 조정의 중요한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되었으니, 그 좋은 예가 慶曆新政을 주도했던 范仲淹과 歐陽修를 들 수 있으며 新法의 시행으로 新舊당쟁을 낳은 王安石 역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文人들의 문체복고운동인 古文運動은 宋代의 정치상황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宋왕조는 唐나라의 혼란과 멸망 그리고 五代의 단명한 왕조들에 이어 탄생

---

158) 서경호, 『중국문학의 발생과 그 변화의 궤적』, 문학과 지성사, 2003년, p490참조.

한 왕조이다. 五代시기에는 수많은 왕조들이 일어나고 쇠퇴하였는데 그 이유는 唐末 安史의 난 이후 왕권이 약해진 틈을 타고 절도사들이 난립하여 唐이 망하게 되고 무인들의 힘에 의한 잦은 왕권교체로 왕권이 위협을 받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宋의 태조 趙匡胤 역시 後周의 절도사로 부하들의 옹립과 後周의 禪讓으로 황제가 된 인물이다. 때문에 그와 그의 동생 太宗은 절도사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중앙집권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병권을 통일시켜 무장들의 역량을 약화시키려 했고 지방의 재정권을 중앙에 귀속하고 사법대권을 황제가 직속으로 관장하며 모든 지방관을 일률적으로 중앙에서 파견하였다. 또한 병권을 장악하기 위해 문관을 우대하는 정책과 아울러 문관이 무관직을 대리하고 모든 명령은 황제직속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었다.<sup>159)</sup> 이처럼 강력한 중앙집권 하에서 사회질서는 빠르게 안정되어갔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발전을 거듭하여 농업, 수공업, 국내외 무역과 문화 교육 및 과학기술까지 발전하였다. 특히 仁宗이 재위하던 시기는 최고의 발전을 이루었는데 歐陽修도 그의 글 「本論」에서 이 시기를 아래와 같이 조명하였다.

“지금의 송나라는 개국한지 80여년이 되었으며 밖으로는 왕이라 칭하며 할거하던 혼란한 국면을 평정하였으며 더 이상 조정에 대항하는 나라가 없고 안으로는 변진이 약화되어 강력하게 모반하는 신하가 없습니다. 천하는 통일이 되어 전국이 평안합니다.”<sup>160)</sup>

그러나 이미 이 전부터 용병(冗兵), 용관(冗官), 용비(冗費)<sup>161)</sup>의 폐단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귀족관료들보다 새로 정치에 나선 신

159) 장현근, 「宋代 理學의 성립배경에 관한 사상사적 고찰」, 『용인대학교논문집』 제16집, 1998년, p30참조.

160) “今宋之爲宋, 八十年矣, 外平僭亂, 無抗敵之國; 內削方鎮, 無強叛之臣. 天下爲一, 海內晏然.”, 歐陽修, 「本論 上」, 『歐陽修全集』卷六十, p862.

161) ‘冗兵·冗官·冗費’란 병사가 과하게 많은 것, 관료가 지나치게 많은 것, 중과 도사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중과 도사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르켜 冗費라 함은 불사를 증진하고 譯經사업을 지나치게 크게 벌여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였기 때문이다.

진관료들이 먼저 느끼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으로 王禹偁을 들 수 있다. 王禹偁은 「端拱箴」에서 가난한 백성의 생활에 대해 “집에는 담도 없는 백성을 생각해야 하고”, “송곳을 세울 만큼의 땅조차 없는 유민을 생각해야 합니다”<sup>162)</sup>라고 비참한 현실을 폭로하였으며 병사가 너무 많은 것과 관리가 너무 많은 것에 대한 폐단에 대해 상소를 올리며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참한 현실은 위로 잘 전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태평성대를 가장하기까지 하였고 이러한 통치자의 입맛에 맞추어 공덕을 노래하는 아름답고 화려한 문풍이 유행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西崑體이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문풍이 통치에 이롭지 못함을 깨달은 통치자들은 조서를 내려 문풍의 개혁을 시도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sup>163)</sup>

歐陽修가 정치활동을 시작한 仁宗 때에는 그동안 누적된 정치적 위기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게 되었으며 용병, 용관, 용비의 폐단은 더욱 악화되었다. 歐陽修와 같은 시기의 정치가인 宋祁는 仁宗 寶元 元年(1038)에 국가의 우환을 ‘三冗’로 규정하여 상소를 올렸는데 “천하의 관원의 수가 한없이 많으니 이것이 첫 번째로 쓸데없이 많은 것이요, 천하의 주둔군이 전쟁을 담당하지도 않으면서 입고 먹는 것을 소비하니 이는 두 번째로 쓸데없이 많은 것이며, 중과 도사가 나날이 많아져 그 수가 끝없으니 이것이 세 번째로 쓸데없이 많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법도에 맞지 않으며 나라를 위해서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sup>164)</sup>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군사와 관리와 왕실의 비용을 줄일 것을 건의한 내용이었다.<sup>165)</sup> 歐陽修 역시 그의 글 「原弊」에서 이런 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62) “無侈乘輿，無奢宮宇，當念貧民，室無環堵，無崇台榭，無廣陂池，當念流民，地無立錐。” 이승신, 「정치와 문학의 관계로 본 북송 초기 문장」, 『중국어문논총』 제32집, p127에서 재인용.

163) 李淑芳, 상계서, pp20-21 참조.

164) “天下有定官無限員，一冗也；天下廂軍不任戰而耗衣食，二冗也；僧尼道士日益多而無定數，三冗也。三冗不法，不可爲國。” 宋祁, 「上三冗三費疏」, 『景文集』卷二十六.

165) 劉德清, 『歐陽修論稿』,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1년, pp3~7참조.

“흉년을 만나면 주군의 관리들은 척도로 백성들의 키가 큰 것을 재어보고, 또 긴장함을 시험해본 후 금군으로 소집하여 가버리고 그 다음으로 척도에 못 미치는 작고 겁이 많거나 나약한 사람은 주둔군에 적을 올린다. 관리들은 병사를 많이 모으는 것으로 상을 받고 백성들은 곤궁한 때를 만나면 다투어 군에 투신하기 때문에 한 번 흉년이 들면 밭에 남는 사람은 늙고 나약한 사람들뿐이다. 그런데 관리들은 말하길 : 병사로 거둬들이지 않으면 도둑이 될까 두려워서라고 한다. 아! 진실로 한때의 도둑이 되지 않음을 알뿐 죽도록 교만하고 게으르며 밥을 훔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옛날의 장대하고 건장한 사람들은 농사에 임하였고, 노약자들은 게으름을 부리며 놀았는데 지금의 장대하고 건장한 사람들은 게으름을 부리며 놀고 오히려 노약자들이 밭에 남아 농사를 짓는다. 어찌 상반됨이 이리 심한가! 그리하여 백성들은 농사에 전력을 다해도 개, 돼지들이 먹는 밥을 면하지 못하지만, 한번 중이나 병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편안하고 풍성하여 아랫배가 살찌는 것을 누리게 되니, 농사를 짓는 백성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sup>166)</sup>

“무엇을 일러, 백성들의 힘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가? 지금 국가에서 사용하는 것을 백성으로부터 얻는데 백성들의 능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비용을 제정한다.……지금은 국가의 비용을 먼저 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서 취한다. 때문에 支移賦, 和糴粟, 入中粟, 和買絹, 雜料物<sup>167)</sup> 등이 있게 되고 차나 소금과 산과 늪에서 나는 이득도 모두 전매를 하

166) “一遇凶歲，則州郡吏以尺度量民之長大而試其壯健者，招之去爲禁兵，其次不及尺度而稍怯弱者，籍之以爲廂兵。吏招人多有賞，而民方窮時爭投之，故一經凶荒，則所留在南畝者，惟老弱也。而吏方曰：不收爲兵，則恐爲盜。噫！苟知一時之不爲盜，而不知其終身驕惰而竊食也。古之長大壯健者任耕，而老弱者游惰；今之長大壯健者游惰，而老弱者留耕也。何相反之甚邪！然民盡力乎南畝者，或不免乎狗彘之食，而一去爲僧、兵，則終身安佚而享豐腴，則南畝之民不得不日減也。” 歐陽修, 「原弊」, 『歐陽修全集』卷六十, pp870-871.

167) ① 支移賦 : 납부해야 하는 식량을 현지가 아니라 식량이 부족한 다른 주나 현으로 납부하도록 농민들에게 명하는 것.

② 和糴粟 : 정식으로 부과된 세금 분 이외에 조정에서 강제로 예약 구입하는 식량.

③ 入中粟 : 『宋史·食貨誌』에는 ‘天聖 元년에 陝西河北入中芻糧見錢法을 실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 법은 ‘무릇 수도에 현금(錢)으로 납입한 상인들에게는 납방의 차를 주고, 변방에 말먹이와 식량으로 납입한 자에게는 경사 및 여러 주의 현금(錢)을 준다.(凡商賈入錢於京師者，給南方茶；入芻糧於邊者，給京師及諸州錢.)’는 것으로 조정의 재정을 충실히 하고 변방지역의 군수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실행하였지만, 후에 온갖 폐단이 발생하였

고 취하는 것이다. 비용을 정하였는데 부족하면, 또 예조에서 그 법을 바꿔서 조금의 이득이라도 다투게 된다. 이익을 다투는 것에 더욱 노력함에도 부족한 것은 더욱 늘어간다. 어찌 이러한가? 제도를 먼저 정하지 않고 끝없이 백성에게서 취하기 때문이다.”<sup>168)</sup>

특히 관리들의 부패는 정치에 어두운 그늘을 가져왔다. 아래의 글을 보면 당시의 관리들의 문제점이 잘 드러나 있다.

“조정에서는 세금을 담당한 현의 관리에게 조칙을 엄격히 집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관리들은 멀고 가까운 것을 따지지 않고 모두 조칙에 영합하여 백성들이 수해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모든 농지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겼으며 심한 사람은 불기를 쳐서 백성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수도 부근 백성들은 그 현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들어주지 않았기에 또 개봉부에 알렸지만 또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곧 함께 무리를 지어 선덕문 밖에 서서 재상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사방으로 파견하여 여러 현들을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상황을 살피고 온 관리는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기도 하였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관리가 열에 일곱 여덟이었습니다. 마치 막으로 살피고 돌아온 자가 사실은 백성들이 재난을 당했는데 관리들이 조칙을 두려워하여 구차하게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자하여 말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sup>169)</sup>

다.

④ 和買絹：宋 왕조는 매년 遼와 西夏에 대량의 비단을 보내야 했는데, 소위 和買라고 하는 것은 명의상으로는 관아에서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듬해에 비단으로 회수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싼 가격에 비단을 사들이기 위해 농민들에게 억지로 떠맡기는 것이었다.

⑤ 雜料物：명목상의 세수입 이외에 다른 물품을 더 거둬들이는 것으로, 『宋史·食貨誌』에는 難變이라고 하였다.

노장시 역주, 『新譯歐陽修散文選』, p62 참조.

168) “何謂不量民力以爲節? 方今量國用而取之民, 未嘗量民力而制國用也.…… 今不先制乎國用, 而一切臨民而取之. 故有支移之賦, 有和糴之粟, 有入中之粟, 有和買之絹, 有雜料之物, 茶鹽山澤之利有權有征. 制而不足, 則有司屢變其法, 以爭毫末之利. 用心益勞而益不足者, 何也? 制不先定, 而取之無量也.”, 歐陽修, 「原弊」, 『歐陽修全集』卷六十, p872.

169) “朝廷因舉田令, 約束州縣吏無遠近, 皆望風惡民言水旱, 一以農田敕限, 甚者笞而絕之. 畿之民訴其縣,

“그러나 재물은 조정에서 사용하기에도 충분치 않은데 백성들은 이미 피폐해져 있으며 병사들은 외적을 두렵게 하기도 부족한데 안으로 감히 교만해져 있고, 제도는 만대의 법도를 이루지도 못했는데 나날이 번잡하여 모든 것들이 그럭저럭 넘어가는 것이 오대시대와 다를 바가 없으니, 이는 깊이 통탄할 일입니다.”<sup>170)</sup>

“신이 옳드려 생각하건데 (서하와의)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천하의 관리나 백성 할 것 없이 궁핍해져있는 것은 아마도 이적의 우환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관리들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백성들을 착취하여 나라를 원망하도록 하였사오니 이는 주·현의 관리가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들을 얻지 못해서입니다. 때문에 신이 여러 차례 천하의 관리들을 바로잡고자 청한 것은 바로 나라의 폐단이 모두 여기에서 나옴을 알았기 때문입니다.”<sup>171)</sup>

이처럼 歐陽修는 관리들의 폐단을 신랄하게 비판하였고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다. 歐陽修와 함께 당시 개혁의 필요성을 토로한 사람들이 대부분 과거를 통해 관직으로 진출한 신진사대부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세력과의 충돌이 불가피하였다. 이때부터 서서히 保守派와 改革派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해 劉子健은 다음의 네 가지로 두 집단의 특징을 이야기 하였다.

#### 1) 長江 이남의 신 관료 집단과 黃河유역의 구 관료 집단의 마찰로 남인과

---

不聽；則訴於開封，又不聽；則相與聚立宣德門外，訴於宰相。於是遣吏四出視諸縣。視者還，而或言災，或言否，然言否者十七八。最後視者還，言民實災，而吏徒畏約束以苟自免爾。” 歐陽修，「送王聖紀赴扶風主簿序」，『歐陽修全集』卷六十六，p966.

170) “然而財不足用於上而下已弊，兵不足威於外而敢驕於內，制度不可爲萬世法而日益叢雜，一切苟且，不異五代之時，此甚可嘆也。” 歐陽修，「本論 上」，『歐陽修全集』卷六十，p863.

171) “臣伏思兵興以來，天下公私匱乏者，殆非夷狄爲患，全由官吏壞之。其誅剝疲民，爲國斂怨，蓋由郡縣之吏，不得其人。故臣前後累乞澄汰天下官吏者，蓋備見其弊如此也。” 「論乞止絕河北伐民桑柘筍子」，『歐陽修全集』，卷一百三，p1574.

북인의 마찰로 볼 수 있다.

- 2) 남방의 신 관료들은 대부분 중소지주 출신의 新進士大夫들이며 북방의 구 관료들은 대지주 출신의 門閥世族들로 집안끼리 혼인으로 인척을 형성하여 오랫동안 벼슬을 한 사람들로 자칭 세족이라 하였다.
- 3) 남방계 신 관료들은 정치적 참여의식이 높고 의론을 좋아하여 ‘慶曆正學’을 형성하였으며, 儒家정신을 발양하여 漢·唐을 넘어설 것을 주장하였으나 북방계 구 관료들은 前代와 北宋초기의 전통적 제도를 계승할 것을 주장하며 변혁에 반대하였다.
- 4) 정치적 투쟁방식은 諫官들이 권력을 독점한 行政官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1036년의 당쟁 이후엔 의론이 활발해져서 정치상황도 복잡해졌다.<sup>172)</sup>

위의 특징을 보면 북방의 門閥世族과 남방의 新進세력의 대립은 唐나라의 수도가 長安이었기 때문에 북쪽에 기반을 둔 門閥世族과 宋나라가 들어서면서 수도를 開封으로 옮긴 후 남방에 기반을 둔 新進士大夫들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唐代에는 門閥世族이 관직을 독점하였으며 門蔭 혹은 蔭補<sup>173)</sup>라는 제도를 통하여 관직에 나아갔기 때문에 과거제도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했었다. 그리고 五代時代를 거쳐 宋으로 유입된 門閥世族들은 초기에도 이러한 기득권을 상당부분 누리고 있었으며 정치적 특권과 함께 부역과 세금을 면제받는 경제적 특권까지 누리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백성들의 생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적었다. 그러나 남방에 기반을 둔 新進士大夫들은 과거를 통해 등용된 중소지주 출신이었다. 그들은 출신성분이 매우 다양하였는데 대표적으로 宋初 古文家

---

172) “(1)長江以南的新官僚羣逐漸抬頭, 和黃河流域的舊官僚羣發生摩擦, 即所謂南人北人之爭. (2)南人北人背後有經濟社會背景之不同. 南方新官僚多半出於中型地主的家庭, 一躍而爲職業的士大夫. 北方舊官僚多半出於大型地主的家庭. 家人姻親, 久於仕宦, 即所謂或自稱世族. (3)南人北人背後, 又有學術思想之不同, 好議論. 演成所謂「慶曆正學」主張發揚儒家精神, 勝過漢唐. 而北方舊官僚羣的學術思想, 一般而論, 守舊的. 承襲前代和北宋開國以來傳統的制度與解釋, 反對多所更張. (4) 1036年政爭的方式是言官名士攻擊在位掌勸的行政官. 北宋初期, 言官並不多說話. 而皇帝也往往專任宰輔, 所以朝政多半平靜, 較少風波. 自從1036黨爭之後, 議論之風景一發而不可遏, 政情便日趨複雜.”, 劉子健, 『歐陽修的治學與從政』, 新文豐出版公司, 1984년, p142 참조.

173) 蔭補제도는 아버지나 할아버지, 친족 및 친지의 恩蔭에 의하여 고위관의 자손과 일족들이 관직에 나아가는 제도를 말한다. 신채식, 『北宋의 蔭補제도 研究』, 『역사학보』 제42집, 1969년, p1참조.

인 王禹偁은 대대로 농사를 짓는 집안 출신이었으며, 范仲淹 역시 어머니는 개가를 하였고 晝夜로 쉴 수가 없었으며 끼니를 죽으로 떼울 정도의 가난을 견디어 냈고,<sup>174)</sup> 歐陽修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숙부의 집에 얹혀살면서 모래에 글을 써가며 공부를 하였다. 더군다나 이들은 이미 부흥하기 시작한 宋學의 영향을 받아 ‘經世致用’ 의식과 정치참여의식이 강하였기 때문에, 관리들의 개혁을 요구하던 改革派와 기득권을 누리던 보수파인 門閥世族과의 대립은 불가피하였던 것이다.

특히 이들은 문학적인 면에서도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두 그룹이 향유하던 문학의 형식과 문학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保守派의 門閥世族들은 당시 유행하던 西崑體를 즐겼는데 이는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중한 문학으로 극단적으로는 문자유희에 가까운 문학이었으며,<sup>175)</sup> 내용 또한 실용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經世致用’을 부르짖던 신진사대부들은 문학에 道를 신는 실용적인 古文을 선호하게 되었다. 劉子健이 지적한 네 가지 특징 중 마지막의 특징을 보면 諫官의 위상이 더욱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는데 歐陽修는 「上范司諫書」에서 諫官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하였다.

“사관이라는 직책은 칠품의 관리에 지나지 않아 이 벼슬을 받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제가 간절하게 축하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진실로 간관이라는 직책이 천하의 득실과 한 시대의 공적인 의견을 짚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 천하의 득실과 백성들의 이해관계, 사직의 대계 등에 대해 생각하고 보고 들을 수 있으며, 어느 관직에도 구속되지 않는 사람으로 오직 재상만이 그것을 행하고 간관만이 그것을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옛것을 배워 도를 가슴에 품은 사대부가 벼슬에 임할 때에는 재상이 되지 못한다면 반드시 간관이 되려고 합니다. 간관이 비록 낮은 직책이지만 재상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자가 불가하다 하면 재상이 가하다 하고, 천자

174) 이승신, 『歐陽修 居士集의 散文文體 研究』, p57 참조

175) 敏澤, 『中國文學理論批評史』, 人民文學出版社, 1981년, pp443-450 참조.

가 그렇다 하면 재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묘당의 윗자리에 앉아서 천자와 가하고 불가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재상입니다. 천자가 옳다고 하면 간관은 그르다 하고 천자가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고 하면 간관은 반드시 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궁궐의 계단 앞에서 천자와 시비를 쟁론하는 사람이 간관입니다. 재상은 존귀하여 그의 도를 행할 수 있지만 간관은 지위가 낮기에 그 말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말이 실행되면 도 역시 행하여진 것입니다. 九卿과 모든 관리, 군현의 벼슬아치들이 하나의 직책을 수호하고 그 직책의 책임만을 집니다. 재상과 간관은 천하의 일을 모두 꿰어지고 또한 천하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재상과 구경 아래의 각 관리들은 직무에 과실이 있으면 관계된 관리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만 간관이 직무에 과실이 있으면 군자의 나무람을 얻습니다. 관계된 관리의 법은 일시적으로 행하여지지만 군자의 나무람은 책으로 저술되어 환히 밝혀져서 백세에 걸쳐 드리우며 없어지지 않으니 매우 두려워할만 합니다. 무릇 칠품의 관리로써 천하의 책임을 지고 백세의 나무람을 두려워해야하니 어찌 중요한 직책이 아니겠습니까? 재능이 있고 현명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sup>176)</sup>

歐陽修는 이 글에서 諫官의 역할에 대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sup>177)</sup> 이것이야말로 신진사대부들이 정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문학이 정치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정치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駢儷文과 같이 형식에 치중하고 내용은 없는 글보다는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자유로운 古文을 필요로 하였기에 문체의 개혁은 정치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歐陽

176) “司諫，七品官爾，於執事得之不爲喜，而獨區區欲一賀者，誠以諫官者，天下之得失、一時之公議繫焉。……若天下之失得，生民之利害，社稷之大計，惟所見聞而不繫職司者，獨宰相可行之，諫官可言之爾。故士學古懷道者仕於時，不得爲宰相，必爲諫官。諫官雖卑，與宰相等。天子曰不可，宰相曰可；天子曰然，宰相曰不然：坐乎廟堂之上與天子上可否者，宰相也。天子曰是，諫官曰非，天子曰必行，諫官曰必不可行，立殿階之前與天子爭是非者，諫官也。宰相尊，行其道；諫官卑，行其言。言行，道亦行也。九卿、百司、郡縣之吏守一職者，任一職之責；宰相、諫官繫天下之事，亦任天下之責。然宰相、九卿而下失職者，受責於有司；諫官之失職也，取譏於君子。有司之法行乎一時，君子之譏著之簡冊而昭明，垂之百世而不泯，甚可懼也。夫七品之官，任天下之責，懼百世之譏，豈不重邪？非材且賢者，不能爲也。”，歐陽修，「上范司諫書」『歐陽修全集』卷六十七 pp973-974.

177) 노장시, 『新譯歐陽修散文選』, 상계서, p151 참조.

修와 개혁파는 문체의 개혁을 주도하였고 과거에까지 적용을 하였던 것이다.

또한 신진사대부들은 사회적 참여의식이 강하였다. 당시에는 新儒學이 흥기하기 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儒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儒學의 ‘經世致用’ 정신은 사대부들의 사회참여의식을 강하게 하였다. 또한 예전의 자급자족 형태의 사회는 점차 사라지고 이전보다 복잡한 도시가 들어서면서 서민 계층이 넓어졌기 때문에 지배 계층은 이러한 거대한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관리의 입장에서 더 많은 인재들을 필요로 했으며 인재를 평가하는 올바른 방법을 찾게 되었다. 이에 詩賦만으로 인재의 능력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하게 되었고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策論의 중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策論은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科擧에서도 詩賦보다 중요시 여기게 되었다.

이렇게 귀족계급과 신진 사대부들 간에 정치적 모순이 생기게 되자 충돌은 불가피하였으며, 정치적 개혁을 필요로 했던 당시의 상황에 발맞춰 신진사대부들은 古文을 무기로 기존 귀족 세력과 맞서게 되었던 것이며 문체의 개혁을 주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慶曆3년에 改革派의 인물들인 歐陽修, 蔡襄, 王素, 余靖이 諫官에 기용되고 范仲淹이 參知政事가 되면서 정치개혁을 목적으로 한 慶曆新政이 일어났다. 개혁의 내용은 관리에 관한 내용과 인재 배양, 농업생산을 중시할 것, 수도방위를 강화할 것 등이었다. 이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과거의 개혁이 있었다. 과거의 개혁은 이전에 과거에서 중시되던 詩賦取士에서 策論의 비중을 높이고 詩賦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었다. 때문에 策論이 중시되면서 문장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펼 수 있는 古文의 지위가 상승되었다. 비록 慶曆新政이 保守派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실패로 끝나고 과거제도도 이전으로 회귀하였지만 이때부터 서서히 古文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고,<sup>178)</sup> 결국은 문체의 개혁과 함께 형식주의 문풍이 사라지고 ‘經世致用’의 정치의식이 부족했던 귀족관료들도 정치무대에서 물러나야만 했으며

신진사대부들이 정치에 주도권을 쥐게 되었는데 이것이 문체개혁을 통해 정치를 개혁하려 했던 古文運動의 취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雄建하고 건설적인 文風 건립

宋은 사회와 경제의 발전으로 전체적으로 활력을 띠고 있었지만 외교 국방 면에서는 국력의 약화로 늘 북방 민족의 존재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사회, 정치, 문화 전반에 걸쳐 宋人들을 위기감에 시달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sup>179)</sup> 특히 개혁의지가 강한 사대부들은 개혁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sup>180)</sup>

이러한 외교적 환경은 강한 군대를 열망하는 의지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歐陽修는 「論尹師魯墓誌銘」에서 아래와 같이 밝힌 바가 있다.

“묘지명에서 말하길 師魯는 병력에 대해 논하길 좋아한다 하였으니 論兵이란 유학자에게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해가 될 것은 없다.”<sup>181)</sup>

위의 글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歐陽修가 쓴 「尹師魯墓誌銘」에서,

---

178) ① “自嘉祐以來，以古文爲貴，則策論盛行於世，而詩賦幾至於熄。(嘉祐연간부터는 古文을 중시하여 策論이 성행하고 詩賦는 침체하게 되었다.)”，蘇軾，「擬進士對御試策」，『蘇軾文集』卷九，林岩，『北宋科舉考試與文學』，上海古籍出版社，2006년，p64에서 재인용.

② “自嘉祐以來尙策論，而士各力於策論。(嘉祐연간 이래로 策論을 숭상하여 사대부들이 각자 策論에 힘을 다하였다.)”，晁說之，「元符三年應詔封事」，『景迂生集』卷一. 林岩，상계서，p64에서 재인용.

179) 오태석，『중국문학의 인식과 지평』，도서출판 역락，2001년，p516참조.

180) 范仲淹，歐陽修의 慶曆新政이나 王安石의 新法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81) “志云師魯喜論兵.論兵，儒者末事，言喜無害.喜非嬉戲之喜，喜者，好也，君子固有所好矣.孔子言回也好學，豈是薄顏回乎？後生小子，未經師友，苟恣所見，豈足聽哉.”，歐陽修，「論尹師魯墓誌銘」『歐陽修全集』卷七十二 p1046.

“師魯는 천하에 일이 없을 때에는 홀로 병사를 논하기 좋아하여 敍燕과 息戍의 두 편을 썼는데 세상에서 유행하였다.”<sup>182)</sup>

라고 한 구절이 구설수에 올랐기에 歐陽修가 변론을 한 것으로, 유학자가 병사를 논하는 것은 세인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릴 정도로 가볍게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宋의 文治우대와 武에 대한 천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실 때문에 개혁의지가 강한 사대부들은 강한 군대를 원하면서도 쉽게 걸으로 드러낼 수 없었을 것으로 짐작되어진다. 歐陽修의 ‘論兵이 해가 될 것은 없다’라는 말 역시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王彥章畫像記」에서도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지금 나라가 전쟁을 끝낸 지 40년이 되었는데 西夏가 하루아침에 전쟁을 일으키니 군대는 패하고 장수가 살해되는 일이 사오년 사이에 연달아 일어났으나 공격하고 방어하는 계책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못하였다. 나는 일찍이 적이 예상치 못할 때 공격할 것을 홀로 주장하였으나 변방의 장수들이 여러 차례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을 탄식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고 미쳤다고 비웃거나, 혹은 못들은 척 하였으며, 나 역시 의심스러워 자신할 수 없었다.”<sup>183)</sup>

이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바랐으나 걸으로 들어 낼 수 없었던 사대부들의 심리는 문학에서 雄建한 문풍의 선호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古文運動을 주도했던 古文家들에게서 雄建한 문풍의 선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는 강한 군사를 바라는 의지가 문학방면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82) “師魯當天下無事時獨喜論兵，爲『敍燕』、『息戍』二篇行於世。”「尹師魯墓誌銘銘」，『歐陽修全集』卷二十八，p433.

183) “今國家罷兵四十年，一旦元昊反，敗軍殺將，連四五年，而攻守之計至今未決。予嘗獨持用奇取勝之議，而歎邊將屢失其機，時人聞予說者，或笑以爲狂，或忽若不聞，雖予亦惑，不能自信。”，歐陽修，「王彥章畫像記」『歐陽修全集』卷三十九，p571.

그럼 雄建한 문풍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학자 副島一郎은 ‘雄’이라는 글자에 대하여 氣가 높고 힘차서 끊임없이 흐르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sup>184)</sup> 여기에서 氣란 唐代 이전에는 문장의 기세나 작가의 기질에 집중하였다면 唐중기 이후부터 宋代에 들어오면서 儒學의 道德까지를 포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85)</sup> 때문에 雄建한 문풍이라 함은 기세가 넘치면서도 학식과 수양이 넘치는 글이라고 할 수 있는데 宋代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문장을 최고의 문장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文風의 선호는 주로 古文家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古文家들은 이전 문벌귀족들에 비해 진취적이고 사회 참여적이었으며 강력하게 개혁을 열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유행하던 西崑體는 문사의 치중에 주력하고 雅頌功德을 주로 노래하여 기세가 약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좀더 雄建한 기세로의 전환이 필요하였기에 그 당시에 유행하던 浮薄한 문풍을 일소하고 진취적이며 기세가 세차고 근엄한 문풍으로의 변화를 시도했다고 할 수 있다.

古文運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歐陽修 역시 이러한 雄建한 문풍을 선호하였다. 그가 다른 사람의 글을 평가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次山은 開元과 天寶 연간에 홀로 古文으로 문장을 썼는데 그 필력이 웅건하고 의기가 특출나서 韓愈의 무리의 글에 비하여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다.”<sup>186)</sup>

184) “比如從這個時期，包括文學批評在內的各種批評中，‘氣’與‘雄’經常同時出現，而這正反映了‘雄’是表現‘氣’之高揚有力、流動不止這種狀態的最恰當的詞語。”，副島一郎，「唐宋古文中的氣論與雄建之風」，『氣餘土風—唐宋古文的進程與背景』，上海古籍出版社，2005년，pp137-138.

185) 副島一郎，상계서，pp128-134참조.

186) “次山當開元、天寶時，獨作古文，其筆力雄建，意氣超拔，不減韓之徒也。”「唐元次山銘」，『歐陽修全集』卷一百四十一，p2262.

“대체로 그들(楊億과 劉筠)은 문장이 웅건하고 박학하며 필력이 넉넉하였기에 무엇이든 시도하여도 불가할 것이 없었다.”<sup>187)</sup>

“그는 시에서 가장 호방하니, 분방함이 종횡으로 누비는구나! 현의 줄들이 음률을 배열하면, 금석이 차례로 울린다. 사이사이 기협한 구절로써, 갑자기 우레와 천둥소리를 울리니, 두 귀를 미처 막기도 전에 온갖 고질병이 깨어나는 듯하다. 언어도 놀랄 만하지만 필묵이 특히 더 정교하다.”<sup>188)</sup>

“이 시(梅堯臣의 「范饒州座中客語食河豚魚」)는 술자리에서 지어졌지만 필력이 웅대하고 넉넉하여, 잠깐 동안 쓰였는데도 마침내 절창이 되었다.”<sup>189)</sup>

위의 글에서 보면 그가 時文이라 부르며 개혁하려 했던 西崑體를 유행시킨 楊億과 劉筠에 대한 평가 역시 雄文博學한 부분에 대하여 칭찬을 하고 있다. 歐陽修는 웅건한 문풍의 문장을 좋아했을 뿐 아니라 자신도 문장을 지을 때에 雄建한 문장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石介는 이러한 歐陽修의 문장에 대하여 “永叔은 문장에서 호방하다.”<sup>190)</sup>라고 하여 歐陽修의 문장이 호방함을 칭찬하였다. 歐陽修의 시에 대한 『石林詩話』의 평가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아래와 같다.

“歐陽文忠公의 시는 ‘崑體’를 교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氣格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전환하였기에 그 언어는 매우 평이하고 유창하였다.”<sup>191)</sup>

周楚漢은 그의 논문 「歐陽修文章論」에서 歐陽修의 문장을 ‘著氣爲文’이라고 하였으며 歐陽修는 문장을 사람의 精氣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여겼다고 하였

187) “蓋其雄文博學，筆力有餘，故無施而不可。”「六一詩話」『歐陽修全集』卷一百二十八，p1955.

188) “其於詩最豪，奔放何縱橫！衆絃排律呂，金石次第鳴。間以險絕句，非時震雷霆。兩耳負及掩，百病爲之醒。語言既可駭，筆墨尤其精。”「答蘇子美離京見寄」，『歐陽修全集』卷五十二，p752.

189) “此詩作於尊俎之間，筆力雄贍，頃刻而成，遂爲絕唱。”「六一詩話」『歐陽修全集』卷一百二十八，p1950.

190) “永叔豪於辭。”石介，「三豪詩送杜默師雄」，洪本健編，『歐陽修資料彙編』，中華書局，1995년，p13.

191) “歐陽文忠公詩始矯‘崑體’，專以氣格爲主，故其言多平易疏暢。”『石林詩話』卷上，洪本健編，상계서，p172.

다.<sup>192)</sup> 또한 歐陽修의 ‘氣’는 孟子的 도덕방면의 내용과, 曹丕가 말하는 작가의 기질과 재능 및 문장풍격, 韓愈가 말하는 학식과 도덕의 양방면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하였다.<sup>193)</sup>

이처럼 歐陽修는 古文運動을 통해 浮薄한 문풍에서 雄建한 문풍으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雄建한 풍격은 宋代에 들어와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古文의 문학적 특징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宋代의 古文이 雄建한 문풍을 선호하게 된 것은 사상적인 면과 실무적인 면에서 필요한 것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94)</sup>

여기서 말하는 사상적인 면은 ‘經世致用’의 사상과 儒學의 道德적인 결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실무적인 것은 당시의 현실적인 문제를 타파할 개혁에 대한 의지와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기세 있는 문장의 필요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雄建한 문풍으로의 개혁은 당시 사대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古文運動이 이러한 문풍을 수용함으로써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3. 儒學 중심의 사회질서 정립

宋代는 唐왕조가 몰락하고 5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왕조의 교체를 겪은 후에 태어났다. 때문에 宋은 五代시기의 혼란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필요가 있었다. 歐陽修는 五代시기의 혼란에 대해 「本論」과 「王彥章畫像記」, 「新五代史·一行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난 날 오대시기의 혼란은 극에 달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오십삼 년

---

192) “歐陽修認爲文章是人的精氣所致.”周楚漢, 「歐陽修文章論」, 『中國文學研究』, 1996년 제4기, p50참조.

193) 周楚漢, 상계서, p50 참조.

194) 副島一郎, 상계서, p142 참조

사이에 다섯 성씨가 바뀌고 열세 임금이 바뀌었으며, 나라가 망하여 피살당한 임금이 여덟이었습니다. 오래 간 것이 불과 십여 년이오, 심지어는 삼사 년 만에 망한 나라도 있었습니다.”<sup>195)</sup>

“불행한 선비들은 그 시기에 태어나, 그 몸을 더럽히지 않고 그 절개를 온전히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드물었다.”<sup>196)</sup>

“아아! 오대의 혼란이 극에 달하니……신하가 그 임금을 죽이고 아들이 그 아비를 살해하며…… 비록 군대가 흥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학교는 폐하여지니 예의가 쇠약해지고 풍속이 크게 어그러짐이 이와 같음에 이르렀다.…… 五代之 혼란 속에 임금은 임금답지 못하고 아비는 아버지답지 못하며 아들은 아들답지 못하였으며 형제, 부부의 인륜에 까지 크게 무너지지 않은 것이 없으니 천하의 이치가 모두 멀하였다.”<sup>197)</sup>

歐陽修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미 宋이 건립된 지 80여 년이 지난 후였지만 그 동안에 농민봉기가 일어나는 등 내재되어 있었던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간의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던 시기였다. 특히 五代시기를 겪는 동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치의 주체나 儒學의 윤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정치의 주체가 어떻게 바뀌어도 자신들의 삶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경제의 발전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이전의 사회는 정치권력이 민간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절대적이었지만 唐末 五代이후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경제력의 힘을 경험한 이후에는 정치권력이 지향하는 명분이 예전처럼 절대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sup>198)</sup> 따라서 사회와 정치권력간의 관계는

---

195) “前日五代之亂可謂極矣,五十三年之間易五姓十三君, 而亡國被弑者八, 長者不過十餘歲, 甚者三四歲而亡.”, 歐陽修, 「本論 上」 『歐陽修全集』 卷六十, p862.

196) “士之不幸而出乎其時, 能不污其身得全其節者鮮矣.”, 歐陽修, 「王彥章畫像記」, 『歐陽修全集』 卷三十九, p570.

197) “嗚呼, 五代之亂極矣……臣弑其君, 子弑其父……雖曰干戈興, 學校廢而禮義衰, 風俗墮壞, 至於如此……五代之亂, 君不君, 臣不臣, 父不父, 子不子, 至於兄弟、夫婦人倫之際, 無不大壞, 而天理幾乎其滅矣.”, 歐陽修, 「一行傳 二十二」, 『新五代史』 卷三十四.

이전 사회보다 느슨해져 있었으며 宋은 왕조를 유지할 새로운 질서의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을 가장 절실히 느낀 이들이 새로 정치에 입문한 신진사대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중 范仲淹은 儒家의 六經인 『詩』, 『書』, 『禮』, 『樂』, 『易』, 『春秋』를 학교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으며 왕도의 흥성을 儒學의 道에 걸었다.<sup>198)</sup>

范仲淹과 같이 개혁의 길을 걷던 歐陽修 역시 北宋의 사회가 기강이 잡히지 않은 이유를 儒學의 道의 붕괴에서 찾고 있다. 위에 글에서 나타나듯이 五代의 혼란의 원인을 학교가 폐하여 예의가 어그러짐에 의한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학교교육을 주장하게 되었으며 「吉州學記」에서도 학교를 왕도정치의 근본이라고 하여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다.

儒學 교육의 중요성은 과거의 개혁에서도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 策論을 우선시하고 그 題材를 유가의 경전에서 찾음으로써 학인들로 하여금 유가의 경전을 공부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관리등용의 길인 과거에까지 유교사상을 확대한 것은 사회질서를 확립함에 유교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儒學의 道로서 사회질서를 바로 잡고자 한 신진사대부들에게 내용은 없고 문장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駢儷文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사람들에게 儒學의 윤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것을 나타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학이었던 것이다.

宋代에는 이미 인쇄술이 발달하여 많은 사람들이 문학을 향유할 수 있었으며 이전 시대와 달리 문학이 일부의 정치권력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었기에 古文은 신진사대부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당시의 대부분의 古文家들은 내용이 없는 駢儷文을 비판하고 문장에 儒學의

---

198) 서경호, 『중국 문학의 발생과 그 변화의 궤적』, 문학과 지성사, 2003년, pp483-484참조.

199) 李淑芳, 상계서, p27참조.

道를 실을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며 학교 교육과 과거에 적용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확립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에 의해 古文運動이 시작되었으며 문체복고를 넘어 사상운동으로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4. 서민계급과의 소통 추구

安史의 난 전까지는 자립자족 형태의 경제구조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서민이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서민들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그러나 宋代로 들어오면서 사회구조가 점점 변하기 시작하였다. 서민들은 나름대로의 삶의 법칙을 가지고 있었으며, 변화하는 경제구조 속에서 경제력을 무기로 해서 커다란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문화와 조직을 가지고 있었으며 도시를 형성하였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즐겼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話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민계급의 성장으로 인해 지배계층에서는 서민계급과의 소통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소통의 방법으로 古文을 선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宋代의 古文은 道와 文의 결합을 강조함으로 실용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 심미안이 높아진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또한 당시에 유행하던 駢儷文보다는平易한 문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胡雲翼은 『中國文學史』의 「宋代的文學運動」에서 宋代의 古文은 周, 秦, 兩漢의 古文과도 다르고 唐代의 古文과도 다른 宋代의 새로운 형식의 古文으로 쉽고 명료한 문장이며 歐陽修 일파의 古文은 문법구조를 가지고 있는 평이한 문장이라고 하였다.<sup>200)</sup> 이처럼 歐陽修

---

200) “宋代的文章，不但沒有復周秦兩漢之古，不但沒有復唐代之古文，而且是異於一切古文的新式宋文。因爲宋代的學者文人提倡，「文以載道」之說，他們的文章並不要華麗好看，只要說得清，看得懂，因以造成一種最簡易明白的文章。這種文章是最適宜於載道論學和記事用的。歐陽修一派的所謂古文，並沒有復古的氣味，都是些有文法組織的平易文章。” 胡雲翼，『中國文學史』三民書局，1979年，p171 참조. 胡雲翼은 더 나아가 宋代의 산문의 진상은 원래는 통속적이고 쉬운 산문으로 宋代의 학문은 산문의 영향을 받아 백화의 길로 나아갔다고 하였다. “道破了宋代所謂古文的真相，原來都是些通俗淺近的散文……可

는 어려운 한자의 사용을 피하고 불필요한 말을 줄여 평이하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였다. 예로 「洛陽牡丹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낙양의 풍속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꽃을 좋아한다. 봄이 되면 성안의 사람들은 귀하고 천한 것을 가리지 않고 모두 꽃을 꺾고 다니며, 비록 등짐을 지고 다니던 사람들도 역시 그러하였다. 꽃이 피면 사대부고 서민이고 구분이 없이 다투어 꽃을 구경하며 노닌다. 종종 오래된 사찰이나 폐가, 연못이나 누대가 있는 곳에서는 시장이 열리고 작은 장막들이 쳐지고 생황과 노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온다. 가장 번화한 곳은 월피계, 장가원, 당체방, 장수사, 동가와 광령의 가택으로 꽃이 떨어지는 때가 되면 끝이 난다. (洛陽之俗, 大抵好花. 春時, 城中無貴賤, 皆插花, 雖負擔者亦然. 花開時, 士庶競爲遊遨. 往往於古寺、廢宅、有池臺處, 爲市井, 張幄帟, 笙歌之聲相聞. 最盛於月陂堤、張家園、棠棣坊、長壽寺、東街與郭令宅, 至花落乃罷.)”<sup>201)</sup>

위의 글을 보면 한 문장이 비교적 짧고 불필요한 수식이 없어 글이 간결하고 뜻이 명확하게 전달된다. 특히 어려운 한자를 쓰지 않아서 읽기도 쉽다. 이처럼 歐陽修는 古文運動을 통해 좀더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서민문화에 접근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내용 역시 모란을 좋아하는 낙양의 풍습을 담담하게 적은 것으로 이전에 주로 사용되던 소재와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란을 키우는 방법까지 서술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것 역시 古文運動이 추구하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道の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時文이라 불리던 西崑體는 그 내용이 주로 궁중생활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민문화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古文은 그 제재의 범위가 매우 넓었기 때문에 상류계층의 일을 제재로 삼은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서민들의 생활을 그려내고 있기도 하다. 예로 歐陽修의 「夷陵縣至喜堂記」에서는 夷陵

以看得出來的, 宋代學受了散文的影響, 更趨於白話一途了.”, 상계서, pp171-172 참조.  
201) 歐陽修, 「洛陽牡丹記 · 風俗記」, 『歐陽修全集』卷七十五, p1101.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주의 사방에는 성벽도 없고 주요 도로는 마차와 말이 쉽게 다닐 수가 없으며, 시장에는 여러 물건을 진열해 놓지도 않았고, 소금에 절여 말린 물고기를 파는 상점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비록 知州가 시장을 지나가려 해도 반드시 말에서 내려 코를 막고 빨리 지나갔다. 백성들이 사는 곳도 부엌, 공간, 변소, 우물이 서로 다른 자리에 있지 않고, 한 칸의 집에서 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아래에서는 돼지를 기른다. 그 지붕은 모두 풀과 대나무를 엮어 엮었는데 해마다 항상 불이 난다. 귀신을 믿는 풍속이 있어 전해오기를 ‘기와집을 지으면 이롭지 못하다’한다.”<sup>202)</sup>

이처럼 古文이 서민들의 생활모습을 제재로 삼음으로써 지배계층에 서민의 생활을 대변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두 계층 간의 소통의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古文은 제재가 통속화 되어 조금 더 서민문화에 가까이 갈 수 있었다. 이런 古文의 통속화 지향은 宋代에 처음 생긴 현상은 아니다. 이미 韓愈의 古文運動에서도 보여 지는 현상이지만,<sup>203)</sup> 宋代에 들어서면서 서민계층의 증가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古文運動을 주도했던 歐陽修 역시 이러한 제재의 통속화를 실천하였다. 歐陽修의 「歸田錄」은 조정의 사대부들에 관한 일들을 적고 있지만 그 중에는 사대부가 아닌 사람들을 제재로 쓴 것도 있다. 開寶寺의 탑을 쌓은 預浩는 사대부가 아니지만 그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또 활을 잘 쏘던 陳堯咨의 이야기에서는 기름을 파는 노인이 등장하여 사대부인 陳堯咨를 깨우치기도 한다. 또 다른 예로 「憎蒼蠅賦」, 「鳴蟬賦」에서는 미물인 파리와 매미가 주인공

---

202) “州居無郭郭，通衢不能用車馬，市無百貨之列，而鮑魚之肆不可入。雖邦君之過市，必常下乘，掩鼻以疾趨。而民之列處，竈、廩、區、井無異位。一室之間，上父子而下畜豕。其覆皆用茅竹，故歲常火災。而俗信鬼神，其相傳曰作瓦屋者不利。” 歐陽修，「夷陵縣至喜堂記」，『歐陽修全集』，pp562-563.

203) 황정희, 「韓愈 古文運動의 문화적 지향성 연구」, 『중국어문논총』 제31집, pp193-199참조.

으로 등장한다. 이것은 俗적인 제재를 사대부들의 문학인 賦의 제재로 사용한 것으로 俗과 雅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속화의 지향을 통해 古文運動이 서민문화와의 소통을 시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서민들의 문화를 대변하고 그들과의 소통을 시도하고자 한 것에 古文運動의 또 다른 의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VI. 歐陽修 古文運動의 사회적 영향

歐陽修의 古文運動은 문학방면에서 문체의 복고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儒學의 도로 국가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古文運動의 사회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식인 계층의 문화를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는 과거제도와 宋代 정신문화를 이끌었던 新儒學과의 관계, 그리고 종교인 佛敎와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 1. 과거제도에 대한 영향

宋代의 과거제도는 지식인계층에게는 관직으로 통하는 중요한 길이었다. 宋代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과거를 위해 모든 것을 투자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sup>204)</sup> 때문에 文風의 변화는 科擧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상호간에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宋初에 西崑體가 유행을 하게 된 것 역시 귀족계급들의 애호와도 관계가 있지만 과거에서 자신의 文才를 드러내기 좋은 형식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에는 과거에서 詩賦를 일순위로 하였기 때문에 형식을 중요시하는 西崑體는 더욱 유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歐陽修 역시 과거에 급제하기 위하여 時文을 공부하였다는 것은 앞서서도 밝힌 바가 있다.

또한 太學體가 古文임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奇澁한 문장으로 변하게 된 것 역시 그 당시의 문풍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西崑體의 여풍이 사라졌다

---

204) 蘇軾부자를 예로 들면 원래는 四川 尾山縣의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蘇軾형제가 과거에 급제를 하는 과정에서 가산을 거의 탕진하였다고 한다. 그만큼 과거는 사대부계층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金諍 著, 상계서, p208 참조.

고는 하지만 문장의 형식을 중시하던 풍조가 古文으로 흘러들어 古文을 奇澀하게 만드는 太學體로 변형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太學體로 과거에 급제하는 사례가 생기고 과거에 전념했던 舉子들이 문장의 형식에 구애되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 한 것이 점점 奇澀한 太學體로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05)</sup>

古文運動 역시 과거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古文運動의 전개가 과거에의 적용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앞장에서도 이야기하였다.

歐陽修는 과거를 통하여 인재를 등용하고자 하였기에 과거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때문에 詩賦보다는 策論을 중요시 하고자 하였으며 형식보다는 내용을 위주로 하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古文家인 孫復의 글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신(孫復)이 삼가 지금의 선비들을 살펴보니. 舜, 禹, 文, 武, 周公, 孔子의 도를 아는 자가 적습니다. 어찌 그렇겠습니까? 나라가 隋나라와 唐나라의 제도를 계승하여 오로지 辭賦로써 관리를 뽑으니, 천하의 선비들이 모두 힘을 다해 성률과 대우에만 매달리고 성현의 심오한 도를 탐색하는 이는 백에 하나 둘도 되지 않습니다.”<sup>206)</sup>

歐陽修 역시 詩賦取士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지금 貢舉(과거)의 문제점은 시험관이 詩賦를 우선으로 하고 策論을 나중으로 하여 관리를 뽑는 것으로, 학인들로 하여금 경술과 도리의 근본은 모르고 단지 시부나 암송하고 六帖과 初學記 따위나 베끼도록 하며 대우나 베끼도록 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sup>207)</sup>

205) 東英壽, 「太學體考-從北宋古文復興의 角度」, 상계서, p140 참조.

206) “復竊嘗觀於今之士人, 能盡知舜禹文武周公孔子之道者鮮矣. 何哉? 國家踵隋唐之制, 專以辭賦取人, 故天下之士皆奔走致力於聲病對偶之間, 探索聖賢之闢奧者, 百無一二.”, 孫復, 「寄范文正書一」, 『孫明復小集』. 林岩, 상계서, pp79-80에서 재인용.

207) “今貢舉之失者, 患在有司取人先詩賦以後策論, 使學者不根經術, 不本道理, 但能誦詩賦, 節抄「六帖」、

이상의 글은 詩賦取士를 비판하면서 儒學의 道에 치중할 수 있는 策論을 우선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글재주보다는 儒學적 수양을 갖춘 인물을 등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歐陽修의 古文運動의 추진 이후 과거제도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우선 策論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慶曆新政 실패 이후 詩賦를 우선시 하던 이전의 제도로 되돌아갔으나 古文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십여 년 이후인 嘉祐년간(1056-1063)에는 策論이 詩賦보다 훨씬 중요해졌고 王安石의 개혁 이후로는 詩賦가 폐지되고 經義와 策論이 詩賦를 대신하게 되었다.<sup>208)</sup> 이것이 古文運動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文風의 변화로 형식주의 문풍이 사라지면서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古文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밝힐 수 있었다. 예를 들어 蘇轍이 嘉祐6년에 制科試에서 썼던 문장은 仁宗황제의 환락과 사치로 인해 민생이 곤궁해지고 재정의 낭비를 가져온 것을 직접적으로 간언한 것이었으나 蘇轍은 4등으로 뽑혀 商州軍事推官으로 임명되었다.<sup>209)</sup>

또한 과거에서 策論이 중요시 되면서 경사의 내용이든 현실 문제이든 모두 儒學사상으로 관철되었는데 경전의 정신과 의리에 대한 진일보한 이해와 해석이 더하여졌다고 할 수 있다. 策論의 試題를 주로 儒學의 경전에서 찾았기 때문에,<sup>210)</sup> 古文運動 이후 과거에서 儒學의 경전 이해가 중요해지면서 儒學의 부흥에도 일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과거개혁의 목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儒學의 道로서 사회질서를 세우고 유지하려 하였던 것과 古文家들이 儒學의 道로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던 목적이 일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

「初學記」之類者，便可剽盜偶麗，以應試格。」，歐陽修，「論更改貢舉事件劄子」，『歐陽修全集』卷一百四，p1590.

208) 金諍 著, 상계서, pp172-174 참조.

209) 金諍 著, 상계서, pp188-190 참조.

210) 林岩, 상계서, p95참조.

있다.

古文運動의 성공은 과거에서 형식주의에 치중하던 文風을 古文으로 변화시켜 놓았으며 詩賦에 밀려있던 策論을 과거의 주 시험과목이 되게 하였고 策論의 試題를 儒學의 경전에서 찾음으로써 儒學의 부흥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 2. 新儒學에 대한 영향

古文運動과 朱子學이라고도 불리는 新儒學과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宋學과 新儒學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보고자 한다. 宋學은 宋代의 儒學을 통칭하는 말이며 朱子學이라 불리는 新儒學은 宋學의 한 학파로 출발하여 宋學을 대표하는 사상계의 지배적 위치를 점하였다.<sup>211)</sup> 때문에 宋學을 新儒學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히 이야기 하자면 新儒學은 宋學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新儒學은 歐陽修가 古文運動을 전개하던 시기에는 아직 발흥하기 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新儒學의 실제적 출발은 周敦頤로부터 보는데 周敦頤는 歐陽修보다도 열 살 연하였으며 지방의 하급관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歐陽修가 古文運動을 전개하던 당시는 新儒學이 유행하기 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sup>212)</sup>

그러나 新儒學의 출발을 唐代의 韓愈의 「原道」, 「原性」과 李翱의 「復性書」에서 찾기도 하고<sup>213)</sup> 宋初 三先生인 胡瑗, 孫復, 石介에서 찾기도 한다. 이들은 대부분 古文家들이었으며 韓愈는 唐代 古文運動을 이끌었고 胡瑗·孫

211)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실, 상계서, p195 참조.

212) 박석, 『송대의 신유학자들은 문학을 어떻게 보았는가』, 역락, 2005년 p213참조.

“宋의 眞宗, 仁宗대는 儒林의 개벽기였다. 당시 周敦頤와 二程은 맹아단계로 나오지 않았던 때였다. …… 마침 朝廷에는 安陽 韓忠獻公, 高平 范文正公, 樂安 歐陽文忠公이 있어 탁연히 도의 대개를 보는 안목이 있음에 서로 협력하여 이에 학교는 사방에 설치되고 師儒之道가 이로써 수립되었다.”, 全祖望 『宋元學案』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실, 상계서, p196 재인용

213)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실, 상계서, pp195-196 참조.

復·石介 역시 宋初에 古文을 제창하였다. 이들과 함께 古文을 제창했던 范仲淹과 歐陽修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儒學의 도로써 변화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 하였으며 침체되어 있던 儒學의 부흥을 이끌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 古文運動이라고 할 수 있다. 宋初의 古文家들의 古文運動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新儒學이 꽃 피우기에 환경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歐陽修가 古文運動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古文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었으며 古文의 문학이념인 ‘文以載道’는 儒學가 다시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될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歐陽修의 散文에서 보여지는 설리성은 이러한 ‘文以載道’를 작품에 실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 莊子가 말하길, 가죽나무와 상수리나무는 재목이 되지 못하여 그 천수를 다하고 계수나무와 옷나무는 쓰이는 곳이 있기에 한창 때에 상함을 입었다. 지금 가죽나무는 재목이 되지 못하는 데도 하루아침에 잘리어 버려졌고, 살구나무는 그 재목이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우며 윤기가 흘러 쓸모가 있음에도 오히려 보존되었다. 어찌 재목과 재목이 되지 못하는 것이 그 때의 필요와 불필요에 의해 보존되기도 하고 잘리기도 한단 말인가?” 다른 날 손님이 나를 찾아왔는데 종이 뿔나무를 끌고 堂아래를 지나가고 있었다. 이로 인해 그것을 가르키며 의혹된 바를 손님에게 말하였다. 손님이 말하길 ‘그것이 어찌 괴이한가? 무릇 쓰일 곳이 없는 것은 쓸모없는 것인데 莊子가 그것을 귀하게 여긴 것뿐이다. 쓸모없는 것 때문에 쓸모 있는 것이 상한다면 어찌 배어짐을 면할 수 있겠는가? 저 살구나무는 꽃과 열매가 있으니 살아날 조건을 갖추고 있어 그 뿌리가 뽑히지 않은 것이니 다행이다. 계수나무와 옷나무 같은 것들이 도끼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배어져야만 이롭기 때문으로 형편상 살 수 없었으니 살구나무와 진실로 다른 것이다. 지금 가죽나무가 그 혹으로 재목이 될 수 없으면서 그 기세가 왕성하여 해로운 것이 되니 그 배어짐을 보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재목이 되어 죽고 재

목이 되지 못하여 살아남는 것은 또한 다른 것이다. 그 사물의 행복함이나 불행함은 그가 처한 것에서 볼 뿐이다.’ 손님이 가고 나는 그의 말이 옳다고 여겨 기록하여 둔다.”<sup>214)</sup>

“이에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게 십수 마리의 물고기를 사서 동자로 하여금 그 안에 기르게 하였다. 동자는 그 안의 물이 10말 정도로 작고 연못도 좁다고 여겨 작은 고기는 키우고 큰 고기는 버렸다. 궤이 여겨 그 이유를 물으니 그렇게 대답하였다. 아! 동자의 어리석고 식견이 없음이여! 나는 큰 물고기들이 말라가며 연못가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 것과 작은 물고기들이 좁고 얇은 곳에서 유유히 헤엄치며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 養魚記를 적는다.”<sup>215)</sup>

이 글들에서는 직접적으로 교훈을 언급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돌려 이야기하고 있다. 이 작품들처럼 歐陽修는 자신의 작품으로 ‘文以載道’를 실천하여 古文運動에 힘을 실었다고 할 수 있다.

‘文以載道’의 문학관이 보편화 되면서 철학적 사유체계를 갖는 新儒學은 부흥의 발판을 얻을 수 있었으며 歐陽修의 古文運動 이후 宋代의 사유체계를 지배하는 위치를 점하였다고 할 수 있다.

‘文以載道’의 사상 역시 新儒學에 영향을 주어 문장은 반드시 道를 실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지만 이러한 사상이 지나쳐서 作文害道의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朱熹는 歐陽修의 문장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는데 歐陽修가 文의 역할을 강조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

214) “吁! 莊周之說曰: 樗、櫟以不材終其天年, 桂、漆以有用而見傷夭. 今樗誠不材矣, 然一旦悉翦棄; 杏之體最堅密, 美澤可用, 反見存. 豈才不才各遭其時之可否邪?’ … 他日, 客有遇修者, 僕夫曳薪過堂下, 因指而語客以所疑. 客曰: ‘是何怪邪? 夫以無用處無用, 莊周之貴也. 以無用而賊有用, 烏能免哉! 彼杏之有華實也, 以有生之具而庇其根, 幸矣. 若桂、漆之不能逃乎斤斧者, 蓋有利之者在死, 勢不得以生也, 與乎杏實異矣. 今樗之臃腫不材, 而以壯大害物, 其見伐, 誠宜爾, 與夫才者死、不才者生之說又異矣. 凡物幸之與不幸, 視其處之而已.’ 客既去, 修然其言而記之”, 歐陽修, 「伐樹記」, 『歐陽修全集』卷六十四, p929.

215) “乃求漁者之罟, 市數十漁, 童子養之乎其中. 童子以爲斗斛之水不能廣其容, 蓋活其小者而棄其大者. 怪而問之, 且以是對. 嗟乎! 其童子無乃闇昏而無識矣乎! 予觀巨漁枯涸在旁不得其所, 而羣小漁游戲乎淺狹之間, 有若自足焉, 感之而作養魚記..”, 歐陽修, 「養魚記」, 『歐陽修全集』卷六十四, p937.

“歐陽修는 ‘三代 이전은 정치가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악이 천하에 널리 행하여 졌다. 三代 이후로는 정치가 둘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악은 허명이 되었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은古今의 변하지 않는 지극한 논설이다. 그러나 그는 정사와 예악이 하나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도덕과 문장이 둘에서 나오게 해서 더욱 안 된다는 것은 아직 알지 못하였다.”<sup>216)</sup>

古文의 부흥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사상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펼 수 있었기에 新儒學이 더욱 유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형식주의 문학을 부정하는 것이 지나쳐서 作文害道의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新儒學은 古文의 문학적 역할은 부정하여 문학의 순수한 발전에는 악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지만 新儒學의 실용성과 古文이 만나서 古文은 완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217)</sup>

### 3. 佛敎에 대한 영향

古文運動의 영향이 종교에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宋初의 古文家들 중 많은 사람들이 佛敎를 배척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sup>218)</sup> 佛敎의 배척은 唐나라 韓愈의 古文運動에서도 시도된 것이었는데, 韓愈의 道統의 계승을 자임했던 宋代의 古文家들은 韓愈와 마찬가지로 佛敎를 배척하였으며<sup>219)</sup> 古文運動을 완성시켰다고 할 수 있는 歐陽修 역시 佛敎를 배척하였다. 이것은 古文運動

216) “歐陽子曰，三代而上，治出於一，而禮樂達於天下。三代以下治出於二，而禮樂爲虛名，此古今不易之至論也。然彼知政事禮樂不可不出於一，而未知道德文章之尤不可使出於二也。”，朱熹，「讀唐志」，『晦庵先生朱文公文集』卷七十。洪本健編，상계서，p321.

217) 김학주，『중국문학사』，신아사，2000년，p325 참조.

218) “文人中有些人堅持儒家道統觀念，對佛敎排斥批評。如孫奭(992-1057)作『儒辱』，石介(1005-1045)作『怪說』，李觀(1009-1059)作『潛說』，都以明儒反佛爲宗。”，孫昌武，『佛敎與中國文學』，上海人民出版社，1988년，p146.

219) “當是時(約慶曆前後)，天下之士，學爲古文，慕韓退之排佛，而尊孔子”，陳舜俞，「鐔津明敎大師行業記」，林岩，상계서，p85제인용.

이 문학방면에서는 문체의 복고운동으로 나타났지만 사상적으로 儒學의 도를 강조함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며, 儒學의 道로써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東洋의 종교는 西洋의 종교와 달리 종교가 왕권에 귀속되어 있었다. 서양에서는 종교로 인해 왕이 바뀌기도 하였지만,<sup>220)</sup> 東洋에서는 왕이 宗教를 통치의 방편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불교가 가장 흥성하였던 唐代에도 佛教 교단이 왕권의 예속을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이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감찰과 통제를 가하였다. 그러나 왕권의 비호 아래 사원이 증가하고 사원경제가 팽창하여 토지, 노동력, 재원, 병력 등 각 방면에서 통치계급의 현실적 이익을 저해하기도 하였다. <sup>221)</sup>

이러한 폐단은 宋代에도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北宋은 徽宗을 제외한 일곱 황제가 모두 佛子였으며,<sup>222)</sup> 太祖와 太宗은 불사를 중흥시키고 불상을 건설하기도 하고 대량의 譯經 사업을 하기도 하면서 대량의 국고자금을 낭비하기도 하였으며, 승려의 증가 역시 조세의 감소를 가져왔다. 歐陽修는 「原弊」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백성들은 농사에 전력을 다하지만 개, 돼지들이 먹는 밥을 면하지 못하지만, 한번 중이나 병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편안하고 풍성하여 아랫배가 살찌는 것을 누리게 되니, 농사를 짓는 백성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백성을 유혹하는 폐단이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sup>223)</sup>

“중이 된 자는 자식과 제자를 먹여 살리고 자신 또한 풍족하게 먹으니 한 사람의 중이 항상 농민 다섯 사람 몫을 먹는 것이다. 가난한 농민은 두 배

220) 황심천, 「중국역사상 종교와 국가의 관계」, 『불교연구』 14권, 1997년, pp129-131 참조

221) 차차식, 『중국의 불교문화』, 운주사, 2007년 p55 참조.

222) 황심천, 상계서, p137 참조.

223) “然民盡力乎南畝者, 或不免乎狗彘之食, 而一去爲僧、兵, 則終身安佚而享豐腴, 則南畝之民不得不日減也. 故曰有誘民之弊者, 謂此也”, 歐陽修, 「原弊」, 『歐陽修全集』卷六十, p871.

의 이자를 내며 생활하니, 한 사람이 항상 두 사람, 세 사람의 몫을 먹이는 것이다. 천하가 어찌 가난하지 않겠는가?”<sup>224)</sup>

이처럼 佛敎가 왕실의 비호 아래 흥성하면서 재정을 낭비하고, 승려가 늘어남으로써 농민이 줄고 조세 수입이 줄어들었기에 爲政者의 입장에서 佛敎는 배척할 수 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백성들이 승려를 동경하여 출가하려는 경향이 있었기에 불교를 가르켜 백성을 유혹하는 폐단이라고 한 것이다. 佛敎의 이러한 폐단은 ‘經世致用’의 의식이 강한 古文家들에게는 불합리한 것이었다.

또한 古文運動은 儒學의 道로써 사회질서를 바로잡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歐陽修는 “임금과 아버지는 인륜의 큰 근본이고, 충효는 신하와 자식의 큰 절개이다.”<sup>225)</sup>라고 하였다. 그러나 佛敎는 이에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本論·下」에서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佛者가 되면 그 아비와 자식을 버리고, 부부의 연을 끊으니, 사람의 본성에 심하게 맞지 아니하며, 또한 벌레처럼 축내는 폐단이 있는데도, 백성들이 모두 쫓아 귀의하니, 불가로써 좋은 학설이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다.”<sup>226)</sup>

이처럼 佛敎는 儒學에서 중요시 하는 仁義와 道德에 맞지 않았기에 儒學의 道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佛敎는 배척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佛敎가 중국에 유입된 것도 禮義가 손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佛敎의 가장 큰 폐단은 堯, 舜과 三代의 도를 무너뜨리는 데 있다고 「本論·中」에서 밝히고 있다.

---

224) “爲僧者, 養子弟而自豐食, 是一僧常食五農之食也. 貧民舉倍息而食者, 是一人常食二人三人之食也. 天下幾何其不乏也!”; 歐陽修, 「原弊」, 『歐陽修全集』卷六十, p872.  
225) 「唐明宗家人傳·論」, 『新五代史』卷十五, 高國抗 著(오상훈, 이개석, 조병한 옮김), 『중국사학사』, 풀빛, 1998년.  
226) “彼爲佛者, 棄其父子, 絕其夫婦, 於人之性甚戾, 又有蠶食蟲蠹之弊, 然而民皆相率而歸焉者, 以佛有爲善之說故也.”; 歐陽修, 「本論·下」, 『歐陽修全集』卷十七, p291.

“佛法이 중국의 근심이 된지 천여 년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식견이 탁월한 사람이나 불교에 미혹되지 않으면서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제거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그것을 제거하여도 다시 크게 일어났으니 잠시 그것을 공격하여 파괴하여도 더욱 견고해지고,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면 더욱 기세가 세차지니, 어찌해 볼 수 없는 데에까지 이릅니다.…… 佛敎는 오랑캐로 중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佛敎가 있는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堯, 舜임금과 삼대의 시절에는 왕의 정치가 밝게 다스려지고 예의의 교화가 천하에 충만하였으니 이 시기에는 비록 佛敎가 있어도 들어오지 못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대가 쇠락하고 왕의 정치가 무너지고, 예의가 없어지면서 이백여 년이 지나서 불교가 중국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면 佛敎가 우리의 우환이 된 것은 왕정과 예의가 무너진 틈을 타서 들어온 것이니 이것이 환난의 근본이 된 것입니다. 무너진 왕정을 복구하고 없어진 예의를 완비하여 왕정을 밝게 하고 예의를 충만하게 한다면 비록 불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백성들에게 시행될 바는 없을 것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형세입니다. …… 周나라가 쇠락하고 秦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면서 삼대의 법이 다 없어지고 왕도가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후에 천하를 차지한 사람은 힘써 그 정치를 완비하지 않고 백성들을 방비하는 것도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佛敎는 이때를 틈타 들어온 것입니다. 천여 년 간 佛敎를 들어오는 자는 나날이 많아졌지만 우리가 하는 바는 나날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정전제가 가장 먼저 없어지자 검병이 생기고 놀면서 게으름을 부리는 나쁜 풍조가 일어나고 그 후에 사냥과 혼인, 상제와 향사의 예절처럼 백성들을 교화하던 도구들이 점차 없어져갔습니다.”<sup>227)</sup>

227) “佛法爲中國患千餘歲，世之卓然不惑而有力者，莫不欲去之。已嘗去矣，而復大集，攻之暫破而愈堅，撲之未滅而愈熾，遂至於無可奈何。……佛爲夷狄，去中國最遠，而有佛固已久矣。堯、舜、三代之際，王政修明，禮義之教充於天下，於此之時，雖有佛無由而入。及三代衰，王政闕，禮義廢，後二百餘年而佛至乎中國。由是言之，佛所以爲吾患者，乘其闕廢之時而來，此其受患之本也。補其闕，修其廢，使王政明而禮義充，則雖有佛無所施於吾民矣，此亦自然之勢也。……及周之衰，秦并天下，盡去三代之法，而王道中絕。後之有天下者，不能勉強，其爲治之具不備，防民之漸不周。佛於此時，乘間而入。千有餘歲之間，佛之來者日益衆，吾之所爲者日益壞。井田最先廢，而兼并游惰之姦起，其後所爲蒐狩、婚姻、喪祭、鄉射之禮，凡所以教民之具，相次而盡廢。” 歐陽修, 「本論·中」, 『歐陽修全集』卷十七, pp288-289.

이처럼 儒學의 도를 바로 세워야만 佛教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歐陽修의 주장은 古文運動이 지향하는 儒學의 道로써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려 하는 바였다고 할 수 있다.

古文運動이 성공하고 儒學이 사회질서의 중심에 서면서 佛教는 더 이상 唐代만큼의 흥성함을 이룰 수는 없었다. 그러나 儒學의 佛教 배척이 객관적으로는 儒學과 佛教의 교류를 촉진하기도 하였으며 많은 고승들은 사대부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儒學의 도를 인정하고 佛教와의 융합을 시도하였다. 대표적으로 智圓이라는 승려는 「中庸子傳」에서 ‘儒學로써 修身하고 佛教로 마음을 다스린다.’<sup>228)</sup>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儒學과 佛教는 말은 다르지만 이치는 일관되어 백성을 교화하여 선을 실천하고 악을 배격하게 한다. 儒學은 몸을 닦는 가르침이므로 외전이라고 한다. 佛教는 마음을 닦는 가르침이므로 내전이라고 한다. 몸과 마음은 내외의 차이일 뿐이다. 어리석은 백성이 어찌 마음과 몸에서 벗어나겠는가? 두 가르침이 없다면 어떻게 그들을 교화하겠는가! 아! 儒學과 佛教가 함께 표리가 되구나!”<sup>229)</sup>

또한 古文家로써 이름이 높았던 契嵩이 쓴 「輔教篇」에서는 佛教의 五戒와 儒學의 五常을 비교하여, 두 가지가 같은 방법으로 사람에게 선을 교화한다고 하였다.<sup>230)</sup>

이와 같이 儒學과 佛教의 조화는 지식인계층에 居士佛教의 유행을 가져왔

---

228) “修身以儒，治心以釋.”，孫昌武，상계서，p145 재인용.

229) ① 「中庸子傳·上」，주성옥，「북송시대 문의 부활과 불교의 과제」，『불교학연구』제14호，2006년，p45에서재인용.

② “夫儒釋者言異而理貫也，莫不化民俾遷善遠惡也。儒者，飾身之教，故謂之外典也。釋者，修心之教，故謂之內典也。惟身與心，則內外別矣，蚩蚩生民，豈越於身心哉？非吾二教，何以化之乎？噫！儒乎？釋乎？其共爲表裏乎” 「從智圓思想看佛法與儒學之交涉」，劉貴傑，『印順導師八秩晉六壽慶論文集』，p251 재인용.

230) “北宋有契嵩，作「輔教篇」，以佛教的五戒比附儒家的五常，以爲二者同樣教人爲善.”，孫昌武，상계서，p145 참조.

다.<sup>231)</sup> 그 예로 적극적인 排佛論者였던 歐陽修 역시 六一居士라는 호를 사용하였으며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던 蘇軾 역시 東坡居士라는 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居士의 표현 역시 儒學와 佛敎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

宋代 이전까지는 佛敎에 사상적 우위를 내주었던 儒學은 古文運動의 성공으로 인해 사상의 변화를 가져오고 佛敎로 하여금 儒學과의 융합을 시도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

231) 孫昌武, 상계서, p145 참조.

## VII. 결론

王水照는 『宋代散文研究』의 「序」에서 古代散文은 문학적 요소와 비문학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학적 기준으로 古文을 연구한다면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sup>232)</sup> 여기서 말하는 비문학적 요소란 문학 이외에 문화, 사회와 관련된 요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歐陽修의 古文運動 역시 문학적 요소와 함께 비문학적 요소까지도 살펴보아야 그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歐陽修의 古文運動을 문학운동을 넘어선 문화운동으로 설정하고 문학의 영역 이외에도 정치와 사회, 종교 등과 관련하여 다각도에서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古文運動이라는 용어를 고찰하면서 歐陽修가 주도한 古文運動이 현대적인 의미의 문학운동으로 타당한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歐陽修의 古文運動은 文學運動의 개념이 없던 宋代에 이미 현대적 의미의 문학운동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기에 古文運動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歐陽修가 古文運動을 주도하던 시기의 사회적 배경과 문학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았다. 古文運動은 宋代의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처하려는 지식인들의 ‘經世致用’ 정신의 발로였다고 할 수 있다. 또 문학적 배경에서는 당시의 사회에 맞는 문학양식을 추구함으로써 문학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와 융합하려는 자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歐陽修의 古文運動의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 歐陽修 이전의 古文家들의 古文運動에 대한 공헌과 실패 원인을 알아보았다. 北宋 초기 古文家들

---

232) “西方文學理論中關於詩歌、戲曲、小說的分析術語和鑑賞方法，大都可引入中土，而對於兼具文學因素和非文學因素的我國古代散文，却無法與之直接對話，進行簡單的類比、比附從文學的標準來研究古文，幾乎處於‘失語’的境地。” 楊慶存, 상계서, p2참조.

은 尊韓의 기치 아래 古文運動의 儒學적 성질을 확립하고 실용적인 문장을 추구하여 駢儷文에 대항하였으나 重道에 치중하여 문학적인 면을 간과하였고 모범적인 문장을 써내지 못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없었으며 정치적 입지가 좁아 성공할 수 없었다. 歐陽修는 前人들의 古文運動의 실패 이유를 간파하고 현실에 맞는 문학이론을 확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스스로의 문체를 확립하고 뛰어난 작품을 써냄으로써 古文의 문학적인 면을 증명하여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 특히 道에 대한 개념을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확장하여, 문학과 실용을 융합하였다. 또한 정치적 지위를 이용하여 과거제도를 변화 시킴으로써 문풍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뛰어난 후진들을 대거 양성하였다. 歐陽修에 의해 발탁된 蘇洵, 蘇軾, 蘇轍과 曾鞏, 王安石은 歐陽修와 함께 宋代 六大家로 이름을 높였으며 歐陽修의 문학관을 이어받아 뛰어난 古文 창작을 계속 함으로써 古文運動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음으로 歐陽修의 古文運動이 추구하는 신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歐陽修의 古文運動은 문체의 변화를 통하여 당시에 모순이 드러나고 있던 정치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또한 부염하고 나약한 문풍에서 웅건하고 건설적인 문풍으로의 변화도 시도하였다. 이는 군사적으로 나약했던 宋나라의 상황 하에서 신진 사대부들이 駢儷文의 유약함을 벗어나 웅건한 문풍을 추구함으로써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고자 하는 심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문장에 儒學의 道를 실을 것을 주장함으로써 五代이후 무너진 사회 질서를 儒學 윤리로 세우고자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전 시대까지는 문학이 귀족들만의 전유물이었으며 어려운 駢儷文을 사용하고, 제재 역시 서민생활과 거리가 먼 궁중생활이나 사대부들의 창화 내용이었다. 그러나 古文運動을 펼침으로써 평이한 문장으로 서민문화와의 소통을 시도하였으며 내용과 제재의 선택 역시 서민들과 관계된 것에서 가져오기도 하였다. 특히 歐陽修는 道의 범위를 실생활로 넓히면서 서민문화를 대변하고 평이한 문체와 제재의 사용으로 서민문화와의 융합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古文運動과 과거제도, 신유학, 불교와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古文運動의 영향이 제도와 종교 및 사상으로 확대 된 것을 확인하였다. 古文運動은 官職으로 나가는 길인 과거제도를 변화시켜 문풍의 변화를 꾀함과 동시에 詩賦에 밀려있던 古文의 위치를 상승시켰고, ‘文以載道’의 문장을 강조함으로써 儒學적 성격을 강화하여 유교적 사상의 고취를 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儒學의 부흥을 이끌었으며 宋代의 정신적 기반이던 新儒學이 발흥하고 부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다. 또한 儒學의 부흥은 이전 시대까지 사상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佛敎로 하여금 儒學와의 융합을 시도하게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歐陽修의 古文運動의 현대적 의미를 정의하자면 歐陽修의 古文運動은 문학의 영역에서 문체의 복고만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문학, 사상, 제도 등의 변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그 영향이 사회와 문화 전반으로 확대된 것이었다. 이는 현대의 문학인들이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과제로 文學運動과 사회와 문화의 관계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본고에서 살펴본 歐陽修의 古文運動과 사회, 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미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古文運動과 서민들의 사회, 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은 깊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參考文獻

### 1. 國內論文類

- 노장시, 『歐陽修 散文의 분석적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년.
- 이승신, 『歐陽修 〈居士集〉의 散文 문체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년.
- 한지희, 「歐陽修의 생애와 작품연구」, 성균관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년.
- 고도욱, 「歐陽修‘序跋文’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년.
- 박형수, 「歐陽修 譏類 散文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년.
- 박경숙, 「歐陽修 古文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년.
- 장수열, 「歐陽修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년.
- 고광민, 「歐陽修의 韓愈수용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30호, 2005년.
- 고진아, 「북송대 문학 정통성 회복 노력과 왕안석의 杜詩 선택」, 『중국인문과학』 제31집, 2005년.
- 김계태, 「北宋 古文運動 전개과정상 蘇軾의 지위」, 『중국어문학논집』 제28호, 2004년.
- 김용표, 「歐陽修의 碑誌文 分析을 통해 본 ‘簡而有法」, 『중국학연구』 제5집, 1990년.
- 노장시, 「「論尹師魯墓誌銘」을 통해 본 歐陽修의 碑誌文의 창작이론」, 『중국어문학』 제47집, 2006년.
- 노장시, 「韓愈의 ‘不平則鳴’설과 歐陽修의 ‘窮而後工’설에 관한 再論」, 『중국문학』 Vol.47, 2006년.
- 노장시, 「歐陽修 記文의 표현기교 연구」, 『서라벌대학 논문집』 제18집, 2000년.
- 노장시, 「歐陽修의 古文창작론」, 『경주전문대학논문집』 Vol 10, 1996년.
- 문명숙, 「宋初 詩혁신운동 연구」, 『중국어문논총』 Vol 2, 1989년.

- 박경실, 「歐陽修 산문에 나타난 현실의식」, 『중국어문논역총간』 제14집, 2005년.
- 송용준, 「북송 초기 서곤체시 연구」, 『중국어문학』, Vol 26 No 1, 1995년.
- 신체식, 「北宋의 蔭補제도 研究」, 『역사학보』 제42집, 1969년.
- 오태석, 「北宋詩壇略論」 『중국어문학』 제16집, 1989년.
- 윤원호, 「균전제를 통한 토지제도의 발전」, 상대논문집 제1집, 1972년.
- 은무일, 「駢文의 特性과 興衰」, 『원광한문학』 Vol 2, 1985년.
- 이승신, 「정치와 문학의 관계로 본 북송 초기 문장」, 『중국어문논총』 제32집, 2007년.
- 이승신, 「歐陽修 문장에서 보여지는 정치적 성격 검토」, 『중국학논총』 제21집, 2008년.
- 이승신, 「북송초 산문문체의 변화와 발전에 대하여」, 『중국어문학지』 Vol 19, 2005년.
- 이승신, 「歐陽修 文章初探」, 『중국어문학지』 Vol 8 No1, 2000년.
- 이영주, 「北宋詩文革新運動과 歐陽修」, 『중국문학』 Vol.12, 1984년.
- 장현근, 「송대 이학의 성립배경에 관한 사상사적 고찰」, 『용인대학교논문집』 제16집, 1998년.
- 주성옥, 「북송시대 문의 부활과 불교의 과제」, 『불교학연구』 제14호.
- 진영희, 「北宋古文家들의 道와 文에 대한 견해 小考」, 『중국어문학』 15집, 1988년.
- 홍병혜, 「歐陽修의 人品과 詞品」, 『외국문학연구』 Vol-No 13, 2003년.
- 황심천, 「중국 역사상 종교와 국가의 관계」, 『불교연구』 14권, 1997년.
- 황정희, 「韓愈 古文運動의 문화적 지향성 연구」, 『중국어문논총』 제31집, 2002년.

## 2. 國內書籍類

- 高國抗(오상훈, 이개석, 조병한 옮김), 『중국사학사』, 풀빛, 1998년.
- 金諍(김효민역), 『중국과거문화사』, 동아시아, 2003년.

- 김학주, 『중국문학사』, 신아사, 1989년.
- 김학주, 『중국문학사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년.
- 노장시譯, 『新譯歐陽修散文選』, 명문당, 2004년.
- 노태준, 『고문진보』, 흥신문화사, 1982년.
- 박 석, 『宋代의 신유학자들은 문학을 어떻게 보았는가』, 도서출판 역락, 2005년.
- 서경호, 『중국문학의 발생과 그 변화의 궤적』, 문학과 지성사, 2003년.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실, 『講座中國史 3』, 지식산업사, 1989년.
- 송용준·오태석·이치수, 『宋詩史』, 역락, 2004년.
- 양종국, 『송대사대부사회연구』, 삼지원, 1996년.
- 이근명, 『중국역사·하권』, 신서원, 2002년.
- 이용주, 『주희의 문화 이데올로기』, 이학사, 2003년.
- 차차석, 『중국의 불교문화』, 운주사, 2007년.
- 패트리샤버클리예브리,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공사, 2001년.
- 허세욱, 『중국고전문학사』, 법문사, 1996년.

### 3. 國外論文類

- 李淑芳, 「古文運動의 社會背景」, 湖南師範大學校碩士學位論文 2003년.
- 高光敏, 『北宋時期對韓愈接受之研究』, 臺灣師範大學國文研究所博士論文, 2004年.
- 劉寧, 「歐陽修提倡平易文風的思想淵源和時代意義」, 『北京大學學報』, 1995年 2期.
- 徐劍凌, 「歐陽修與北宋古文運動」, 『攀枝花大學學報』, 2000年 第17卷第4期.
- 周楚漢, 「歐集陽修文章論」, 『中國文學研究』, 1996年 第4期.
- 劉貴傑, 「從智圓思想看佛法與儒學之交涉」, 『印順導師八秩晉六壽慶論文集』, 2003년.
- 馮仲平, 「唐宋的文道論」, 『東方叢刊』, 1998年.
- 沈履偉, 「宋初古文運動的定義界定及其影響」, 『天津外國學院語學報』, 1996年 第1期.
- 暢孝昌, 「唐宋古文運動復古實質初探」, 『太原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02年.

第2期.

陳平原, 「唐宋古文運動述略」, 『浙江社會科學』, 1996年 第1期.

王懷讓, 「試論歐陽修的文道觀」, 『齊魯學刊』, 1996年 第2期.

寇養厚, 「歐陽修文道并重的古文理論」, 『文史哲』, 1997年 第3期.

劉衍, 「從唐宋兩次古文運動看歐陽修革新傳統散文的理論貢獻」, 『中國文學研究』, 1998年 第3期.

朱迎平, 「宋文體演變論略」, 『中山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7年 5期 第47卷.

于景祥, 「歐陽修對駢體和散體的科學態度」, 『遼寧大學學報』, 1997年 第6期.

#### 4. 國外書籍類

歐陽修, 『歐陽修全集』, 中華書, 2001年.

陳必祥 編, 『歐陽修散文選集』, 上海古籍出版社, 1997年.

洪本健 編, 『歐陽修資料彙編』, 中華書局, 1995年.

洪本健 評點, 『宋代散文評點』, 廣西教育出版社, 2001年.

王更生, 『歐陽修散文研讀』, 文史哲出版社, 1996年.

黃一權, 『歐陽修散文研究』,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3年.

顧永新, 『歐陽修學術研究』, 人民文學出版社, 2003年.

劉德清, 『歐陽修論稿』,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1年.

劉子健, 『歐陽修的治學與從政』, 新文豐出版公司, 1984年.

何寄澎, 『北宋古文運動』, 幼獅文化事業公司, 1992年.

何寄澎, 『唐宋古文新探』, 大安出版社, 1998年.

錢冬父, 『唐宋古文運動』, 上海古籍出版社, 1991年.

楊慶存, 『宋代散文研究』, 人民文學出版社, 2002年.

敏澤, 『中國文學理論批評史』, 人民文學出版社, 1981年.

劉文源 編, 『廬陵文章耀千古』, 白花洲文藝出版社, 1999年.

- 東英壽, 『復古與創新』, 上海古籍出版社, 2005年.
- 副島一郎, 『氣與士風—唐宋古文的進程與背景』, 上海古籍出版社, 2005年.
- 寥瀛艇, 『宋代文化史』, 河南大學出版社, 1992年.
- 葛曉音, 『唐宋散文』, 上海古籍出版社, 1992年.
- 顧易生、蔣凡、劉明今, 『宋金元文學批評史(上)』, 上海古籍出版社, 1996年.
- 王運熙、顧易生, 『中國文學批評史-中冊』, 上海古籍出版社, 1981年.
- 郭預衡, 『中國散文簡史』,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1年.
- 胡雲翼, 『中國文學史』, 三民書局, 1979年.
- 郭預衡, 『中國古代文學史』, 上海古籍出版社, 1998年.
- 吳小林, 『中國散文美學』, 里仁書局, 1995年.
- 林岩, 『北宋科學考試與文學』, 上海古籍出版社, 2006年.
- 孫昌武, 『佛教與中國文學』, 上海人民出版社, 1988年.
- 張毅, 『宋代文學思想史』, 中華書局, 2006年.
- 柯慶明, 『中國文學的美感』, 河北教育出版社, 2001年.
- 蕭慶僞, 『北宋新舊黨爭與文學』, 人民文學出版社, 2001年.
- 袁梅、劉焱、李永祥、徐北文 注譯, 『古文觀止』, 齊魯書社, 1983年.
- 龍潛庵 編著, 『宋元語言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5年.
- 陳復華 主編, 『古代漢語詞典』, 商務印書館, 1998年.
- 陳振鵬、章培恒 主編, 『古文鑑賞辭典-下冊』, 上海辭書出版社, 1997年.
- 楊家駱 主編, 『舊五代史·新五代史』, 鼎文書局印行, 1979年.

# ABSTRACT

A study on the Ancient Writing Movement of  
Ou Yangxiu

Moon, Myoung Hee  
Dept. of Chinese Literatur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Ancient Writing Movement of Ou Yangxiu who was a literary man and politician in Song Dynasty. Ou Yangxiu(1007-1072) left a lot of literary works in various fields such as prose, poem, phrase, etc. and made a great contribution towards the literary development of Song Dynasty a lot. Because of this reason, some researchers have already studied about Ou Yangxiu actively in various fields. The greatest contribution of Ou Yangxiu towards Chinese literary history is Ancient Writing Movement which was led and completed by Ou Yangxiu. Archaic Writing Movement began to string up at the beginning of Song Dynasty, but it was completed by Ou Yangxiu. It can be considered the success of Ancient Writing Movement had a great influence on politics and society including prose which is one area of literatur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Ancient Writing Movement of Ou Yangxiu from many angles under the setting that it extensively developed as cultural movement with having an influence on politics and

society without the restriction to cultural movement for the restoration of ancient Chinese prose.

First of all, while examining the origin of the term 'Ancient Writing Movement', the author could know Ancient Writing Movement played a role of modern literary movement at the times of Song Dynasty when there was no concept of literary movement. Then,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of Archaic Writing Movement by categorizing into society and literature. Ancient Writing Movement played an instrumental role in reforming politics under confrontation between the aristocracy and rising gentry, and its development can be regarded as the attitude of Pragmatism of intellectuals who coped with the developing and changing society fast, and chased literary type suitable to the times also on literary side. Then, this analyzed the cause of contribution and failure that scholars who studied archaic writing made towards Archaic Writing Movement earlier than Ou Yangxiu, and examined the process of developing Archaic Writing Movement of Ou Yangxiu. Scholars who studied archaic writing at the beginning of Song Dynasty established Confucian characteristics of Ancient Writing Movement and opposed verse by developing Ancient Writing Movement under the flag of succeeding to Han Yu. However, they could not write brilliant works, and draw chemistry from people because they overlooked the artistry of literature, and were inclined only to practical side, and they could not lead Ancient Writing Movement successfully because of their narrow political position. Ou Yangxiu led Ancient Writing Movement successfully by reading the cause of failure of these former people, by establishing outlook on literature by himself, and then suggesting model ancient

Chinese prose with gorgeous works. Also he induced the change of literary style by changing the state examination with sufficiently using his political position, opened the way that Ancient Writing Movement could be continued by training and recommending superb younger scholars, and completed Ancient Writing Movement. Then, this study examined the purpose of developing Archaic Writing Movement. Ancient Writing Movement tried to reform politics and change literary style, and had a purpose of establishing social order with reinforcing Confucian ethics in addition to the purpose of restoring literary style. Also this tried to interchange with popular culture on the basis of type and subject easier than those of verse. Then,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Ancient Writing Movement and society. Most of all, Ancient Writing Movement changed literary symbol of literary men by transforming the state examination which was an approach path to government post, induced the change of literary style, and made a stepping-stone that Confucianism could reconstruct by emphasizing Confucian characteristics of ancient Chinese prose. Due to the success of Ancient Writing Movement, Confucian thought was stirred up, new Confucianism could reconstruct, and it brought the change that made Buddhism try to fuse into Confucianism. On the basis of contents above, the author could know that Ancient Writing Movement had an influence on politics, society, idea, and religion in addition to literature, and thus the author could confirm Ancient Writing Movement was cultural movement, not just literary movement.